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최종보고서

2019. 2.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성북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2.

연구책임자: 이석환(국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병준(국민대학교 교수)

하현상(국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정길호(국민대학교 석사)

이기태(국민대학교 석사)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5
1. 연구 목적	5
2. 기대효과	5
제3절. 연구 범위	7
1. 시간 범위	7
2. 내용 범위	7
제2장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설계	11
제1절.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1
1. 아동안전 거버넌스 개념	11
2.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원칙과 기본방향	16
3.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구성	19
제2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32
1. 전문가 세미나	32
2. 실무자 세미나	35
제3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설계	38
1. 아동거버넌스 모델 설계의 원리	38
2.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수립과정	39
3.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체계	40
4.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46
제3장 커뮤니티매핑에 대한 이론적 논의	63
제1절. 커뮤니티 매핑의 이론적 배경 및 효과	63
1. 커뮤니티 매핑의 이론적 배경	63
2. 커뮤니티 매핑의 효과	66
3. 커뮤니티매핑 해외 사례	69
제2절. 커뮤니티매핑의 사례분석	75
1. 성북구 내 커뮤니티매핑	75
2. 커뮤니티매핑 활동 결과	77

제3절. 성북구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실행과 분석.....	85
1. 성북구 아동안전 커뮤니티 매핑의 개요.....	85
2.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매핑 활동.....	86
제4장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실행.....	109
제1절.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파일럿 테스트.....	109
1. 거버넌스 협의체.....	109
2. 장위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거버넌스 실행.....	111
제5장 결론.....	125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25
제2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파일럿 테스트의 정책적 함의와 개선사항.....	128
1.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개선.....	128
2. 정보소통과 공유 강화.....	128
3. 훈련과 조직구성으로 실행력 강화.....	129
4.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 및 본연의 업무로 편입	130
부록.....	133
1. 제1차 세미나 결과(전문가).....	133
2. 제2차 세미나 결과(실무자).....	149
3. 매핑 참여자 소감.....	166
4.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170
5.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내용.....	172

표 차례

〈표 1-1〉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데이터	3
〈표 1-2〉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연구 수행일정	7
〈표 2-1〉 거버넌스의 개념	12
〈표 2-2〉 거버넌스의 한계	14
〈표 2-3〉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수준	26
〈표 2-4〉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26
〈표 2-5〉 핵심적 거버넌스 구축요인	31
〈표 2-6〉 전문가 세미나 타임테이블	32
〈표 2-7〉 실무자 세미나 타임테이블	35
〈표 2-8〉 교육/홍보 거버넌스	42
〈표 2-9〉 현장활동 거버넌스	43
〈표 2-10〉 시설 및 정책지원 거버넌스	44
〈표 2-11〉 연구와 회의활동 거버넌스	45
〈표 3-1〉 성북구 내 국민대학교 커뮤니티매핑	76
〈표 3-2〉 석관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86
〈표 3-3〉 석관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87
〈표 3-4〉 장위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91
〈표 3-5〉 장위초등학교 매핑 결과(위해요인별)	92
〈표 3-6〉 정덕초등학교 매핑 시간표	96
〈표 3-7〉 정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97
〈표 3-8〉 정덕초등학교 기타범례 세부내용	98
〈표 3-9〉 돈암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101
〈표 3-10〉 돈암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102
〈표 4-1〉 제1차 거버넌스 협의체 참여자 명단	110
〈표 4-2〉 제2차 거버넌스 협의체 참여자 명단	11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방법	8
<그림 2-1>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41
<그림 2-2>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수립 절차	48
<그림 3-1> 커뮤니티 매핑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성	67
<그림 3-2> 개인자산과 지역자산 간의 관계	68
<그림 3-3> 커뮤니티 매핑의 사례(지역자산지도)	68
<그림 3-4> 커뮤니티 매핑의 피드백 현장	69
<그림 3-5>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커뮤니티 매핑사례	70
<그림 3-6> Fixmystreet 커뮤니티 매핑사례	71
<그림 3-7> Fixmystreet 운영 플랫폼	71
<그림 3-8> NCMI 커뮤니티매핑 사례	73
<그림 3-9> Ushahidi 커뮤니티매핑 사례	74
<그림 3-10> 연극 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 매핑 결과	77
<그림 3-11> 정릉3동 마을자원 매핑 결과	78
<그림 3-12> 법률 구조 장소 매핑 결과	79
<그림 3-13> 방사능 매핑 결과	80
<그림 3-14> 수목의 개엽 및 개화 시기 매핑 결과	81
<그림 3-15> 교환학생을 위한 문화거리 매핑 결과	82
<그림 3-16>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매핑 결과	83
<그림 3-17>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매핑 결과	84
<그림 3-18> 석관초등학교 매핑 구역	86
<그림 3-19> 석관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분석	87
<그림 3-20> 석관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위험인지장소)	88
<그림 3-21> 석관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청소년유해업소)	89
<그림 3-22> 석관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불법주정차)	90
<그림 3-23> 장위초등학교 매핑 구역	92
<그림 3-24> 장위초등학교 매핑 결과	92
<그림 3-25> 장위초등학교 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교통안전시설)	94

〈그림 3-26〉 장위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청소년유해시설)	95
〈그림 3-27〉 정덕초등학교 매핑 구역	96
〈그림 3-28〉 정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97
〈그림 3-29〉 정덕초등학교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	98
〈그림 3-30〉 정덕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교통안전시설).....	99
〈그림 3-31〉 정덕초등학교 신호등 미설치(예시).....	100
〈그림 3-32〉 돈암초등학교 매핑 구역	101
〈그림 3-33〉 돈암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102
〈그림 3-34〉 돈암초등학교 반경 100m 매핑 결과.....	103
〈그림 3-35〉 돈암초등학교 위험도로	104
〈그림 3-36〉 돈암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불법주정차).....	105
〈그림 3-37〉 돈암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쓰레기 무단투기).....	106
〈그림 4-1〉 아동안전 거버넌스 수립 절차.....	112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 성북구는 현장중심, 사람중심, 실속 행정의 3대 구정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성북구에서는 2017년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 커뮤니티 매핑’ 연구를 통해 관내 29개의 초등학교 반경 300m의 아동안전위해 요인을 조사하였음
 - 2017년 커뮤니티 매핑연구 결과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불법주정차 등 6,000여개의 아동안전위해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데이터

연번	항목	세부항목	데이터 수(개)
1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331
		신호등	298
		과속방지턱	430
		어린이보호지역표지판	253
		합계	1,312
2	청소년유해시설		1,197
3	19금환경		298
4	불법주정차		1,585
5	CCTV		1,142
6	기타		867
합계			6,401

*자료 출처 : 201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연구용역(p42)

- 성북구의 아동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로 나타난 아동안전위해 요인을 개선하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아동안전위해요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관내 초등학교 별 아동안전위해요소가 각기 다르고, 위해요소의 발생이 시간대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상시적·지속적으로 위해요소가 나타나기에 따라 단일 정책행위자가 아동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아동안전문제와 같이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문제들은 문제가 상호 복합적이며,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협력 및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아동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아동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주민, 성북구청,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관내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성북구의 아동안전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거버넌스란 단일 조직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체계를 말함
 - 아동안전문제의 개선은 단일 정책 행위자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하고 효과적·효율적인 정책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임

제2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 2017년에 성북구에서 수행된 커뮤니티매핑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6,000여개 이상의 아동안전위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안전위해요인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 정책행위자가 해결하기 힘든 상황임
- 그렇기 때문에 아동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북구의 아동안전위해요소 개선 및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효과적·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세미나 개최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북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실제적인 거버넌스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
 - 더불어, 거버넌스 모델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할 것임

2.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4가지 효과를 기대함

1) 아동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문헌조사만을 활용한 거버넌스 모델 제시가 아니라 전문가 및 실무자 세미나, 커뮤니티 매핑, 거버넌스 시범운영 등의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 또한, 커뮤니티 매핑, 거버넌스 시범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실제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2) 민·관 협력 증대

-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성북구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초등학교, 마을공동체, 주민 등 광범위한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
-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협력의 증대는 아동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민과 관의 협력을 원활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음

3)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활동과 거버넌스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유도되고, 주민 참여 활성화는 참여행정, 주민자치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음
- 더불어,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성북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

4)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이론 검토 및 사례 분석, 세미나를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주의환기 및 문제 해결의 전문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커뮤니티매핑 및 거버넌스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역량·협업역량·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제3절. 연구 범위

1. 시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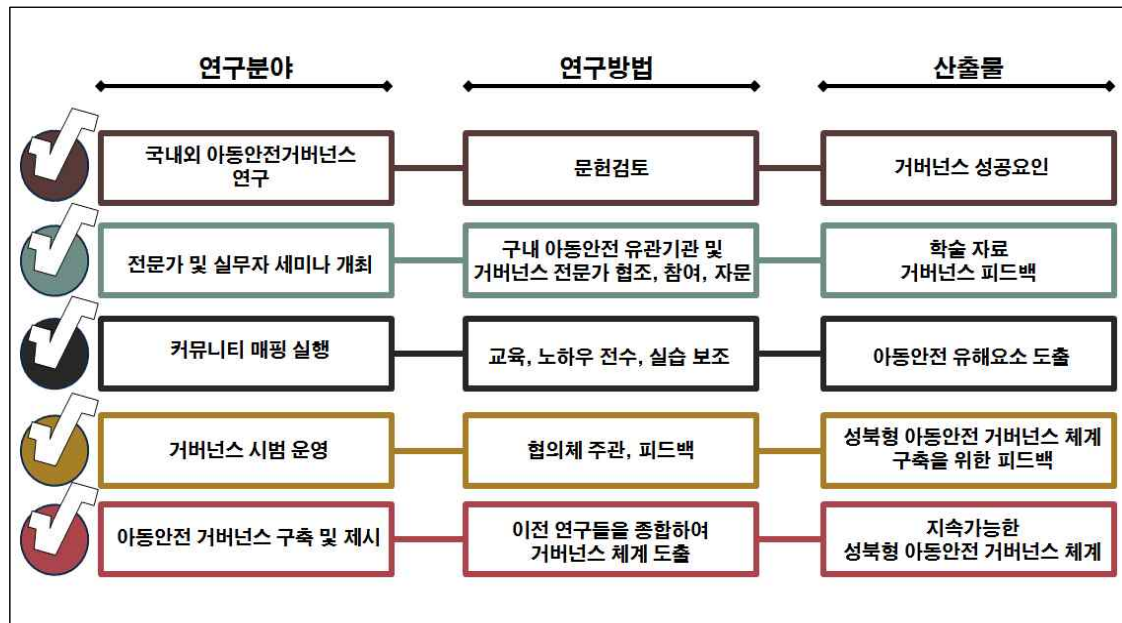
- 과업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세부적 연구내용에 따른 시간적 연구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2〉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연구 수행일정

공정(개월) 과업내용	1개월 (6월)	2개월 (7월)	3개월 (8월)	4개월 (9월)	5개월 (10월)	6개월 (11월)	7개월 (12월)	8개월 (1월)	9개월 (2월)	비고
1. 이해관계자세미나										활동 연구
2. 매핑교육 및 매핑활동										
3. 거버넌스협의체 시범운영 (아동안전 이해당사자)										
4. 아동안전 거버넌스 문헌 검토										문헌 연구
5. 커뮤니티매핑 문헌검토										
6.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보 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2. 내용 범위

- 본 연구는 성북구의 아동안전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아동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단계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자함
- 5단계의 세부 내용과 연구 수행방법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방법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2장.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설계

제1절.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 아동안전 거버넌스 개념

1) 아동안전의 개념

- 학교안전의 개념에 의하면, 아동안전은 활동으로써의 안전과 상태로써의 안전으로 구분이 가능함(노경란, 2014)

(1) 활동으로써 아동안전

- 활동으로써 안전의 정의는 안전관리와 안전평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함
 - 아동안전관리는 아동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으로서 인적요인, 물적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음
 - 아동안전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제품, 시설, 체계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결함을 조사 및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활동을 말함

(2) 상태로써 아동안전

-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부터 안정적인 상태
 - 상태로써의 안전은 관련된 구성원들의 역량과 상태로서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아동안전은 활동, 상태로서의 안전과 더불어 역량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2)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학문분야에 따라 대상과 관점의 차이가 있음
 -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행위자 간의 다원적·협력적 통치방식으로, 통치 권력의 시각에서 봄
 -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약화된 자율적인 관리체계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정의함

- 사회학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양식이나 협력체계로서, 사회적 양식의 관점에서 정의함(김석준 외, 2000; 한승준, 2007)
- 행정학에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제로서 정의함(이명석, 2002)

○ 기존의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거버넌스의 개념

학자	개념정의
World Bank (1992, 1997)	1.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 2.발전을 위해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권력행사의 방식
Kooimin& Viet(1993)	1.거버넌스를 복합조직(Heteroarchy) 또는 네트워크로 부름 2.공식적 권위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형태
Wamsley & Dudley (1995)	1.신공공관리에 입각한 거버넌스 개념에 반대 2.거버넌스는 경영(management)으로 축소시킬 수 없는 개념이며,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구성적 합리성에 기초해야함
Rhodes(1997)	1.거버넌스는 최소국가론의 논리를 반영하는 정부개입의 축소, 민간부분의 관리개념을 공공부분에 적용, 공공부분에 이윤개념을 내재화, 시장의 경쟁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공공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체계, 공공, 민간 및 자원봉사조직 간의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을 포함
Ressell(1997)	1.하나의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
Stoker(1999)	1.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변화된 의미로 정부중심의 공정 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 2.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특징하는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
Jessop (1992, 2000)	1.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 2.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
Pierre&Peters (2000)	1.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체적인 참여자로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시스템
Pierre(2001)	1.정책과정에서 과거처럼 관료들에 의한 일방적/수직적 의사결정이 아닌 제도화된 정책커뮤니케이션 내의 이해관계자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 2.공공의사결정이 다양한 수준(국가, 광역, 지역)에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의 여러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
Hooghes & Marks(2001)	1.의사결정영역이 핵심적인 대의기관의 범주를 넘어 민간부분으로 확산되는 한편, 공식적인 권한이 국가로부터 초국가적인 기관에서부터 국가하위단위 정부로 분산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계

Rosenau (2001)	1.수요를 창출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 조정기제를 활용하는 공공 혹은 민간 집합체
Huxham (2000)	1.어떤 행위자가 다른 조직에 있는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형태
Innes & Booher(2003)	1.전통적인 정치시스템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식분포를 증가시켜서 상호 만족스러운 정책을 산출하는 것
Thomson & Perry (2006)	1.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Bryson, Crosby & Stone(2006)	1.정부와 기업, 비수익조직, 공동체 그리고 시민이 관여하는 파트너십 또는 어느 한부문의 조직에 의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공동으로 이루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문들에 속하는 조직들에 의해 정보와 자원 및 활동 그리고 역량을 연결하거나 공유하는 과정
Ansell & Gash(2007)	1.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정과정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열
김석준 외 (2000)	1.광의적 거버넌스: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 2.협의적 거버넌스: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는 조정형태
하미승&전영상 (2007)	1.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3대 주체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3대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수행하는 주체
정문기(2009)	1.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목적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식화된 구조와 권한을 가지는 공동행위
박형준&이인원 (2009)	1.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혹은 비영리조직까지가 네트워크로 포함된 통치구조
이명석, 배재현, 양세원(2009)	1.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채중헌&김재근 (2009)	1.자율성을 갖춘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및 관리노력의 수단으로 합의 추구를 지향하는 숙의적 의사결정체계
이명석(2002)	1.최광의의 정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동문제 해결 기제를 말함 2.광의의 정의: 정부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부 관련 공동문제해결 기제를 말함 3.협의의 정의: 법적/공식적인 통제권한 없이 구성원 및 단위 간의 갈등해결과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신거버넌스)
장지호&홍정화 (2010)	1.넓은 의미의 거버넌스: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영역에서의 행위를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체제 2.공공 거버넌스: 공공재를 통제하고 서비스 공급을 지시하고 가능하게 하는 법 체제, 규칙, 사법적 결정, 관리방식

*자료출처: 하현상(2014). 지역거버넌스 모델과 우수사례」. pp. 8-10. 재인용.

○ 이러한 기존 정의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유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율적인 개인 또는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의사결정 방식 및 운영체제

- 거버넌스는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동의를 중시함(Jessop, 2000). 그러나 집합적 행동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임
- 따라서 집단 및 개인들 간의 상반된 이익 및 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들 간의 성숙한 상호작용의 문화가 중요함(원소연, 2013)
- 수평적, 비계층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다차원적 정부(국가, 지방 등),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식 관리체계를 강조함(Putnam, 1993)
-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조건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하현상, 2015)
- 한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정책의 개방성 등이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져야함

(2) 거버넌스의 한계

○ 거버넌스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님.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영해야할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 거버넌스의 한계

유형	내용
책임성의 부재	-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책임이 없는 주체를 거버넌스체계에 끌어들임으로써 전통적인 권력과 책임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폐쇄성의 강화	-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는 외부자들에 오히려 더욱 폐쇄적일 수 있고 사익을 공익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음(Rhodes, 1997)
계층제의 강화	- 거버넌스는 계층제보다는 네트워크가 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전제하지만 네트워크적 거버넌스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적 조정기제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나친 맹종을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네트워크가 아닌 파트너십의 지나친 증대로 전통적 정부권력이

	더욱 교묘하게 확산될 수도 있음(Newman, 2001) - 여러 집단들이 하나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조성한, 2005) - 실제로 정보나 재정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상호관계와 영향력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음(배용환, 2005) -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위자들이 자원과 권력을 하나의 조직 또는 연합체로 연계시키지만 행위자들은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층제적 특성을 다시 보일 수 있음 - 거버넌스는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계층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Jouve, 2005)
갈등의 증대	- 거버넌스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상호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짐에 따라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짐 - 초기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상호협력을 하면서 연합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목표수행 과정에서 집단 또는 개인 간의 업무분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조직과 기능의 분화를 심화시키면서 권력의 배분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킴 - 거버넌스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행동과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대립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한승준, 2007)
부패발생의 증대	-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는 거버넌스가 오히려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Jouve, 2005) - 거버넌스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실질적 거버넌스의 실패로 인한 부패를 더욱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음(나태준, 2006)
성과측정의 어려움	- 행위자들의 분산과 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업무성과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Kramer, 1994)

*자료출처: 하현상(2014). 「지역거버넌스 모델과 우수사례」. pp. 13-14. 재인용.

○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설계에서도 이러한 한계점들을 섬세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문화, 역할부담으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고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원소연, 2013)

3) 아동안전 거버넌스 개념

- 앞에서 거버넌스는 관리방식 또는 운영체계를 의미하는데, 아동안전거버넌스에서는 전자를 ‘관계 기반형 제도적 아동안전거버넌스’를 의미하며 후자는 ‘활동 기반형 운영적 아동거버넌스’를 의미함(노경란, 2014)
- 제도적 아동안전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안전을 위한 협력적 체제와 메커니즘을 의미함
 - 제도적 아동안전거버넌스는 제도를 구성하는 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짐
 - 따라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관계구조에 초점을 두고 설계함
- 운영적 아동안전거버넌스는 아동안전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의미함
 - 운영적 아동안전거버넌스는 아동안전 영역의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따라서 대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과 과정을 중시함
-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은 제도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기체로 볼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참여 주체와 관계형성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협력적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적 요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연계한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자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을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대상) 각자의 수행 가능한 역할들을 협력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기(역할) 위한 제도의 운영’

2.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원칙과 기본방향

1)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원칙

-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 아동안전은 학교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방서,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조직,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상시적 활동과 사각지대 방지가 일정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음
-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 그 외의 다양한 주민자치활동과 연동하여 아동안전문제를 거미줄처럼 중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권기창 외, 2006)

○ 아동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 아동안전은 사고 및 유해시설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생활환경 전반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스스로 유해시설과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한 활용 및 이용방식을 실천하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중요함(권기창 외, 2006)

○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 아동안전은 다양한 단체와 기관 및 개인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역할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과정에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참여 주체들 간의 투명하고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권기창 외, 2006)

2)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기본방향

- 위에서 언급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원칙을 토대로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법(규제)이 아동안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함

- 둘째, 아동안전 문제는 통합적 접근을 할 때 해결이 가능함
 - 특정지역이나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별적 정책적 접근은 서비스 간의 단절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
 -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안전 서비스와 활동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중첩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아동안전 서비스가 최종 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성이 담보될 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아동들의 특성상, 아동안전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기적 교육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계된 안전위해요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활동이 필요함
- 넷째, 아동안전서비스 또한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영역의 기관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적 구조를 형성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한된 재정적·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영역의 인적자원, 환경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아동안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친숙도가 높아야 함
 - 서비스 제공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활용성과 친숙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어린이들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 응급상황시의 시간적 신속성, 운영 및 활용의 용이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3.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구성

1)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는 아동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내의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개개인을 포함할 수 있음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 성북구청
 - 국민대학교
 - 성북소방서
 - 성북·종암경찰서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아동안전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협력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역할

-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른 참여주체들과의 관계속에서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 수행할 역할을 10가지로 구분함
 - 구체적으로 ①교육, ②홍보, ③현장활동(정보 및 자료 수집(매핑), ④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 ⑤사후대응 및 복구, ⑥시설 및 장소지원, ⑦정책 및 제도 지원, ⑧연구, ⑨회의 및 세미나, ⑩기타로 구분함
 -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부터 수렴된 역할을 정리하고자 함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역할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관내 초등학교	교육		-커뮤니티 매핑 활동 후 학교 주변 유해시설 안내 및 안전 교육 실시
	홍보		-커뮤니티 매핑 결과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커뮤니티 매핑 활동 참가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 아동안전 예방교육 참가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실시
	시설 및 장소지원		- 커뮤니티매핑 교육 실시 장소 지원
	정책 · 제도 지원		-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성북구청의 역할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성북구청	교육		-
	홍보		-커뮤니티매핑 활용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매핑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시설 및 장소지원		
	정책 · 제도 지원		-거버넌스 협동체 구축 이후 매핑데이 주관 -매핑활동 시 활용되는 어플서비스 구축 및 시행 -아동안전활동 예산지원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확립된 거버넌스 체계의 지원활동(매핑데이 주선 및 홍보, 사후조치)

○ 국민대학교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국민대학교	교육		-커뮤니티 매핑 교육
	홍보		-거버넌스 참여기관 성과 홍보(언론보도, 본교 소식지 등)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기관 간 아동안전정보통합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유 -커뮤니티 매핑 활동 인력보조(본교 대학생)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시설 및 장소지원		- 교육 및 회의장소 등 시설·장소지원
	정책·제도 지원		-아동안전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연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기관 회의 주선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성북소방서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소방서	교육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시(연중) -초등학교 화재대피훈련(연중, 일정협의) -소규모 테마여행 119동행교육(분기별 계획)
	홍보		-소방동요대회, 불조심 포스터 등 공모 -아동참여 각종 소방 활동 행사 언론보도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 시설 및 지역 정보 제공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아동안전 침해 시설 모니터링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긴급구조 및 복구 활동
	시설 및 장소지원		-본서 소방안전교육장 시설제공
	정책·제도 지원		-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연중 일정대비 교육진행 -인원(2명) 부족으로 교육수요 충족미흡

○ 경찰서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성북·종암 경찰서	교육		-어린이(도로, 우범지역 등)안전교육 실시
	홍보		-아동참여 안전지킴 활동 및 행사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 시설 및 지역 정보 제공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아동안전 침해 시설 및 지역 순찰 및 모니터링 -녹색어머니회 참여 유도 및 지원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아동안전 사고 및 사건 조사 및 조치
	시설 및 장소지원		-
	정책·제도 지원		-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교육지원청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교육		-
	홍보		-아동안전 활동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시설 및 장소지원		-
	정책·제도 지원		-아동안전 활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내 초등학교의 아동안전 강화 활동 유도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지역사회 직능단체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교육		-
	홍보		-아동안전 활동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매핑활동 참여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초등학교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우범지역 순찰 활동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시설 및 장소지원		-
	정책·제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주민자치위원회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주민자치 위원회	교육		-
	홍보		-주민대상 아동안전 인식 홍보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아동안전 침해 지역 정보 제공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시설 및 장소지원		-
	정책·제도 지원		-아동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활성화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등

기관	역할 범주		세부 역할
마을활동가, 마을사회적 경제 센터	교육		-주민대상의 아동안전 교육
	홍보		-
	현장 활동	정보 및 자료수집 (매핑) 활동	-아동안전 침해 지역 정보 제공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마을단위 아동안전 침해 시설 및 지역 개선 활동
		사후 대응 및 복구 활동	-
	시설 및 장소지원		-
	정책·제도 지원		-아동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활성화
	연구		-
	회의 및 세미나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피드백 공유
	기타		-

3) 아동안전 거버넌스 대상

○ 아동안전 거버넌스 대상은 ①아동안전을 침해하는 위해요인(시설, 장소, 환경 등)과 ②아동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동안전 위해요인은 매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함

- 아동안전 위험시설: 건물, 놀이기구 등
- 아동안전 위험구역: 도로, 우범지역 등
- 아동안전 위험 제품 및 재료: 약품, 장난감, 도구 등
- 아동안전 위험활동: 위험한 게임과 놀이, 사이버 공간의 활동 등
- 아동안전 위험인물: 불량 학생 등

○ 매핑을 통한 정보 수집은 주로 시설, 구역에 제한적인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는 행위, 물질, 인물도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협력적 관계형성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활성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활동에서 지나친 부담이나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참여정도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요인들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관계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참여정도와 활성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함

(1)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정도

-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자발적·협력적 참여와 상호작용이 중요함. 그러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정도가 관계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거버넌스 활동은 참여하는 정도(수준)에 따라 주도적 참여(proactive engagement), 협력적 지원(collaborative support), 소극적 참가(reactive participation)로 구분할 수 있음(하현상, 2015)
 - 참여 주체별 일괄적으로 참여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역할에 따라 참여수준이 다를 수 있음
 - 주도적 참여: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 특정 역할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로, 해당 역할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접 수행하는데 주관 또는 주최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협력적 지원: 아동안전을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해당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협조 또는 후원을 하는 경우를 말함. 업무협조, 자료·정보공유, 예산·인력·시설 지원 등의 형태를 의미함
 - 소극적 참가: 아동안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과정이나 결과에 수동적으로 관계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로, 단순 참가나 참관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표 2-3〉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수준

주도적 참여 (proactive engagement)	협력적 지원 (collaborative support)	소극적 참가 (reactive participation)
• 주관 또는 주최(단독, 공동, 위탁수행 모두 포함)	• 협조와 후원(업무협조, 자료·정보 지원(S/W), 예산·인력·시설(H/W) 후원)	• 단순 참가, 참관

(2) 아동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 지역사회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참여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연구자	거버넌스 활성화요인
Callahan(2007)	책임성, 참여, 성과측정
Lasker et al.(2001) 최영출(2004)	자원, 파트너 특징, 파트너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의 특성, 외부 환경
Leach & Pelcy-Smith(2001)	재정지원, 조정자 역량, 신뢰와 참여, 갈등의 부재, 대표자의 참여, 제도화된 절차와 결정
Kickert et al.(1999)	행위자 및 자원의 활성화, 상호작용 비용의 한계, 공동목표에 대한 몰입, 상호작용의 투명성
한승준(2004)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 권한의 형평성, 상호신뢰성, 공동목표에의 몰입정도
안성호·이정주(2004)	상호의존성, 지속적인 상호작용, 게임의 규칙, 네트워크
오철호·고숙희(2012)	초기조건(권력, 자원, 정보의 불균형, 유인 및 억제요인, 협력에 대한 공감), 협력과정(기관 간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제 3기관의 지지와 지원), 결과(실질적 성과)
라미경(2006)	네트워크, 참여조직, 전략, 사회자본
김환철·김세훈(2007)	참여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자원동원능력, 영향력, 집단간 신뢰, 정보공유
민현정(2009)	자원, 정보력, 파트너십, 제도
이곤수 외(2005)	네트워크, 신뢰와 규범, 행위자
배응환(2005)	파트너십, 유인, 사회자본, 상호작용기제의 작동, NGOs의 역할
배응환(2010)	협력구조(정책적 행위자의 이익), 협력과정(대화, 상호성, 학습, 창조성)

유호룡·장인봉(2003)	참여자, 참여, 네트워크, 신뢰
홍성만(2004)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 설득전략, 동등한 참여, 정보교환, 협력의 장, NGOs의 역량
김시영·노인만(2004)	조직내부(조직구조와 특성), 상호작용(목표인식, 상호의존성, 신뢰, 의사소통), 환경(정치적, 환경적, 제도적), 협력수준(시간, 빈도, 합의도달 정도)
김광구·문채(2006)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리더십, 법적장치의 존재와 실효성
서순탁·민보경(2005)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동체 의식과 지역의 역사, 제도
박희봉·김명환(2000)	의사소통, 교육, 리더십, 지방정부의 역할
박희봉(2002)	신뢰와 참여, 시민단체, 네트워크, 정책결정의 합의
김정렬·김시윤(2003)	전문성과 자율성, 대등한 관계, 신뢰, 정보공유
김형양(2004)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의 정보공개, 신뢰와 대화, 파트너십,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역량,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대표성
한준(2006)	정치적 정체성, 적응성, 역량과 책무성
양기근(2009)	공유목표의 일원화와 몰입, 소통과 신뢰, 상호존경,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치적 지원, 지역사회의 사명감, 전문성
Lee et al.(2014)	리더십, 체계적 전략, 헌신적 조직, 원칙, 성과측정

*자료출처: 하현상(2015).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역동성 분석」. p. 92. 일부수정 인용.

(3) 핵심적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의 도출

- 기존의 많은 경험적·이론적 연구들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특성을 종합적·비판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¹⁾
 - 학자들에 따라 동일한 속성의 유사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념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요인을 포괄하는 8가지 구축요인으로 정리하였음
- 기존연구들이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요인들을 정리하여 핵심요인을 도출하면 목표의 공유, 유인기제, 신뢰, 원활한 네트워크, 제도적 지원, 내부역량, 헌신적 조직과 조직특성, 외부환경의 8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음

1) 핵심적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하현상(2015)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대부분 포괄적으로 재인용 하였음(pp. 93-95 재인용)

- 먼저 아동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서로 목표를 공유하여 높은 몰입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유인기제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계하여 이 기제들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 간의 신뢰 구축으로 이기적 행태로 인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를 방지해야함
-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야 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도적으로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활동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현장이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조직역량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 재정력, 전문성, 정보력, 창조력과 같은 내부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 헌신적인 조직이 있어야 함. 또한, 조직문화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직의 문화와 특성이 거버넌스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과정에는 외부환경의 변화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거버넌스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가 발생하고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환경적 제약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4) 아동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설명

- 목표의 공유: 기존연구에 따르면 거버넌스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목표의 공유와 일원화(shared purpose)임(양기근, 2009; 한승준, 2004; Kickert et al., 1999)
- 목표의 공유나 일원화가 투명하게 구현되고 공유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몰입도가 높다면 거버넌스는 더욱 쉽게 형성될 수 있음(한승준, 2004; Kickert et al., 1999)

- 인센티브: 아동거버넌스 참여자들은 다른 목적함수를 가지고 거버넌스에 참여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구조의 상이성이 지속적인 거버넌스에 높은 불확실성을 제공함. 비록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협력에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기제(incentives)가 있어야 함(오철호·고숙희, 2012; 배응환, 2005; 2010)
 - 인센티브는 상호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기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주체들은 유인기제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고 인센티브가 있을 때 협력적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음(홍성만, 2004; 배응환, 2005; 김시영·노인만, 2004)
- 신뢰: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의 신뢰(trust)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박희봉·김명환, 2000; 이숙중 외, 2008; 김용민, 2007)
 - 신뢰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가치로서,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함
- 상호작용 네트워크: 상호작용 네트워크(interactive networks)가 활발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Ostrom, 2008; 유효룡·장인봉, 2003; 라미경, 2006; 김광구·문채, 2006; 박희봉, 2002; 서순탁·민보경, 2005)
 -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파트너십과 참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
 - 정보공유, 상호의존성에 대한 공감, 상호호혜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Callahan, 2007; Lasker et al., 2001; 최영출, 2004; Leach & Pelcy-Smith, 2001; Kickert et al., 1999; 한승준, 2004; 안성호·이정주, 2004; 김환철·김세훈, 2007; 민현정, 2009; 배응환, 2005; 배응환, 2010; 김형양, 2004; 김정렬·김시윤, 2003; 양기근, 2009)
 - 파트너십과 참여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이며 정보공유, 상호호혜, 상호의존성에 대한 공감은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적 토대에 해당됨
- 제도적 기반: 아동거버넌스에서 참여자들이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야 함
 - 법이나 조례에서 참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또한,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정에 절차와 규칙을 제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오철호·고숙희, 2012; 안성호·이정주, 2004; 김광구·문채, 2006)
- 내부역량: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은 거버넌스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함
- 특히, 전문성, 정보력, 재정력, 리더십, 자원동원력, 학습과 창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또한 한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역량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실효성 있는 유인기제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들 내부역량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제고시키고 거버넌스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함(민현정, 2009; 오철호·고숙희, 2012; 김형양, 2004; 배응환, 2010; 김광구·문채, 2006)
- 헌신적 주체조직: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헌신적 조직이 있어야 함.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본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거버넌스의 참여수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서순탁·민보경, 2005; 김시영·노인만, 2004)
-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권한이나 역할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방적인 업무형태와 수직적 조직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직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조직들의 이러한 특성들이 조직의 문화로 나타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외부환경: 당면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한 영향 미침(김시영·노인만, 2004; 최영출, 2004; Lasker et al., 2001)
-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이 변하면서 거버넌스의 주체와 참여수준이 변화를 겪을 수 있음
 - 외부환경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목표의 공유, 유인기제, 네트워크 방식, 내부역량 등에 영향을 주어서 거버넌스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함

○ 이상에서 언급한 8가지 핵심적 거버넌스 형성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 핵심적 거버넌스 구축요인

거버넌스 구축요인	내용
목표의 공유	목표의 공유와 일원화, 공유 목표에 대한 몰입도
인센티브	강한 인센티브, 인센티브의 상호의존성
신뢰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사회자본의 핵심적 가치)
상호작용적 네트워크	파트너십, 수평적 참여
제도적 기반	법,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 명시
내부역량	거버넌스 주체가 보유한 역량(전문성, 정보력, 재정력, 리더십, 인력규모, 자원동원력, 학습과 창조력 등)
헌신적 주체조직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열정적 주체조직과 조직이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특성(업무형태, 조직구조)
외부환경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자료출처: 하현상(2015).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역동성 분석」. p. 95. 일부수정 인용

제2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 성북구 내 아동안전 관련 기관 및 학계에서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에는 다양하고, 넓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토론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거버넌스 형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거버넌스 성공요인 도출, 유관 기관 간 역할 등을 파악하였음

1. 전문가 세미나

1) 개요

- 일 시 : 2018년 7월 12일(목), 14:00 - 16: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3층 세미나실(311호)
- 참석인원 : 17명(대학교, 연구원, 센터 등)
- 주요내용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발표 및 토론
 - 아동안전 및 손상현황과 정책과제 발표 및 토론
- 전문가세미나 행사진행표

〈표 2-6〉 전문가 세미나 타임테이블

구분	시간	내용	담당
등록	13:40-14:00	세미나 개최 및 등록	참여자 전원
Session 1 (본부관 311호)	14:00-16:00	〈커뮤니티 매핑과 지역사회 아동안전거버넌스〉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이석환 (국민대학교)
		아동안전 및 손상현황과 정책과제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자유토론	참가자 전원
폐회	16:00-16:20	폐회	

2) 주요내용

(1) Session 1: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 방안(이석환)

-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인센티브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행정 절차나 장벽을 없애서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매핑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와 정책문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거버넌스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단체(NGO)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북구에 있는 비영리 단체를 활용하여 거버넌스의 실제적 운영을 맡기고 예산과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면 성북구가 직접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됨
 - 비영리조직을 통한 운영의 또다른 장점은 성북구청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임. 비영리조직은 하나의 목적과 사업에 몰두하여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거버넌스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량강화의 과정이 필요함
- MOU를 체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들의 업무부담을 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판단됨. 실제 담당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가장 큰 기피요인은 ‘업무부담의 증가’ 임. 따라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도 업무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부담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 기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 인센티브나 제도적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함

(2) Session 2: 아동안전 및 손상현황과 정책과제(김미숙)

- 아동·청소년들의 일회성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임.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로 인해 실제 행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 거버넌스와 안전교육이 함께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성북구에는 현재 아동지킴이단이 있는데, 이들이 직접 교육과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관이 중심이 되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들이 많으며, 시민사회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경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음. 때문에, 관은 참여 촉진과 조정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적인 역할은 시민사회나 학교에 맡겨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됨
-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강의실에 앉아서 단순히 듣는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 나가 배우는 교육이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거버넌스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참여시키는 과정에서도 실제적 ‘행동’을 잘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

3) 시사점

-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가 필요함
-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참여자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지속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임. 거버넌스의 운영의 초점을 현장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아동안전의 증대에 맞추고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변화는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아동안전 거버넌스와 매핑활동을 통해 발견된 위해요인을 하나씩 없애가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거버넌스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화·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져야함. 교육을 통해 학생과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안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거버넌스 운영의 주체역할을 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나 학교가 가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실무자 세미나

1) 개요

-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10:00 - 12: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3층 세미나실(311호)
- 참석인원 : 19명(구청, 경찰서, 학부모, 대학교 등)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 실무자 세미나 행사진행표

〈표 2-7〉 실무자 세미나 타임테이블

구분	시간	내용	담당
등록	09:40-10:00	세미나 개최 및 등록	참여자 전원
Session 1 (본부관 311호)	10:00-11:50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김병준 (국민대학교)
		자유토론	참가자 전원
폐회	11:50-12:00	폐회	

2) 주요내용

- 아동안전 거버넌스 연구과정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하는 이유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내 기관과 실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문제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려줌

- 커뮤니티 매핑활동을 통해서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의 정보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구성이 가능해짐
- 아이들이 직접 매핑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커뮤니티 매핑의 긍정적 효과로 보임
- 매핑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핑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함. 학생들이 매핑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거버넌스는 실패할 것이라 생각함
- 거버넌스 구축단계에서 우선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할 필요도 존재함. 또한 아동안전을 위해서 동네 순찰단, 지역봉사단 등의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
- 초등학교는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특성이 존재함. 아동은 학교가 있는 이상 계속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음.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거버넌스가 너무 거대해지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짐. 때문에, 권역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성북구 안에 7개의 복지관들이 존재하는데, 복지관의 인력을 거버넌스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 아동안전 관계기관이 각각 자신들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유가 되고 있지 못함.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아동안전의 질이 높아 질 수 있음
 - 정보의 공유, 플랫폼의 공유를 위해서 아동안전 거버넌스가 필요함
- 또한, 경찰, 학부모, 구청 등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사점

- 아동이 직접 매핑활동에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핑결과를 통해 나타난 위해요인을 실제로 제거하게 된다면 거버넌스는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즉,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만 가능할 것임
-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거대해지면 거버넌스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할 것임
- 각 관계기관이 자신들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효과적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기관 간의 정보공유 플랫폼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동네 순찰단, 지역봉사단, 복지회관 등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보다 실효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제3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설계

1. 아동거버넌스 모델 설계의 원리

-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은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의미에서 확인했듯이 제도적 거버넌스와 운영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인 ①참여주체, ②거버넌스에서 각 주체의 역할, ③참여자들 간의 관계망, ④거버넌스가 필요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연계시켜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대상은 크게 아동안전을 침해하는 위해요인(시설, 장소, 행태)과 아동안전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교육, 예방활동, 대책수립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 아동안전을 침해하는 위해요인은 세부적으로, ①화재, 재난으로 인한 상해와 시설과 관련된 소방영역의 안전거버넌스 모델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으며 ②도로안전, 우범지역 관리, 불량어린이 단속 등과 같이 경찰영역의 안전거버넌스 모델이 있을 수 있음
 - 아동안전과 관련된 위해요인을 정확하게 배타적으로 소방영역의 안전과 경찰영역의 안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복적인 부분, 배제된 부분은 가장 근소한 영역의 해당되는 거버넌스 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역할, 주체, 관계형성을 수립하고자 함
 - 아동안전을 보호 및 관리하는 활동은 위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연동하여 제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은 소방영역 안전거버넌스 모델과 경찰영역 안전거버넌스 모델로 구분하여 설계하고자 함

- 또한,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역할들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모델보다는 역할에 따라 분화된 거버넌스 모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보면, 교육과 홍보, 현장활동(매핑, 예방과 모니터링, 사후대응과 복구), 지원활동(장소와 시설, 정책과 재정), 연구와 회의는 주도적 참여자, 활동과 관계가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일차원의 모델보다는 다층적으로 연계된 거버넌스 모델수립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 거버넌스의 이분화된 대상을 토대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 역할들을 구분하고, 구분된 역할별로 참여주체와 관계형성 요인들을 확인하여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고자 함

2.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수립과정

1) 거버넌스 대상영역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및 미취학아동 교육기관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해, 화재, 위험시설, 자연재난 등과 같이 소방영역의 안전 거버넌스와 도로교통안전, 우범지역 및 범죄 등과 같이 경찰영역의 안전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중복적인 영역과 배제된 영역은 가장 접근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주체별 역할, 관계망을 설정하고자 함

2)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구분

- 역할체계는 공통적 속성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함
 - 교육 및 홍보 영역: 아동안전 시설 활용, 개선, 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성과, 매핑결과 홍보, 캠페인 등
 - 현장활동 영역: 매핑활동, 위해시설 및 정보 제공, 예방활동과 모니터링, 사후대응과 복구활동, 참여유도 현장 캠페인 등
 - 시설 및 정책지원 영역: 장소 및 시설 지원, 예산지원, 제도개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 연구 및 회의 영역: 성과분석, 성과공유, 피드백, 개선사항 논의, 정책형성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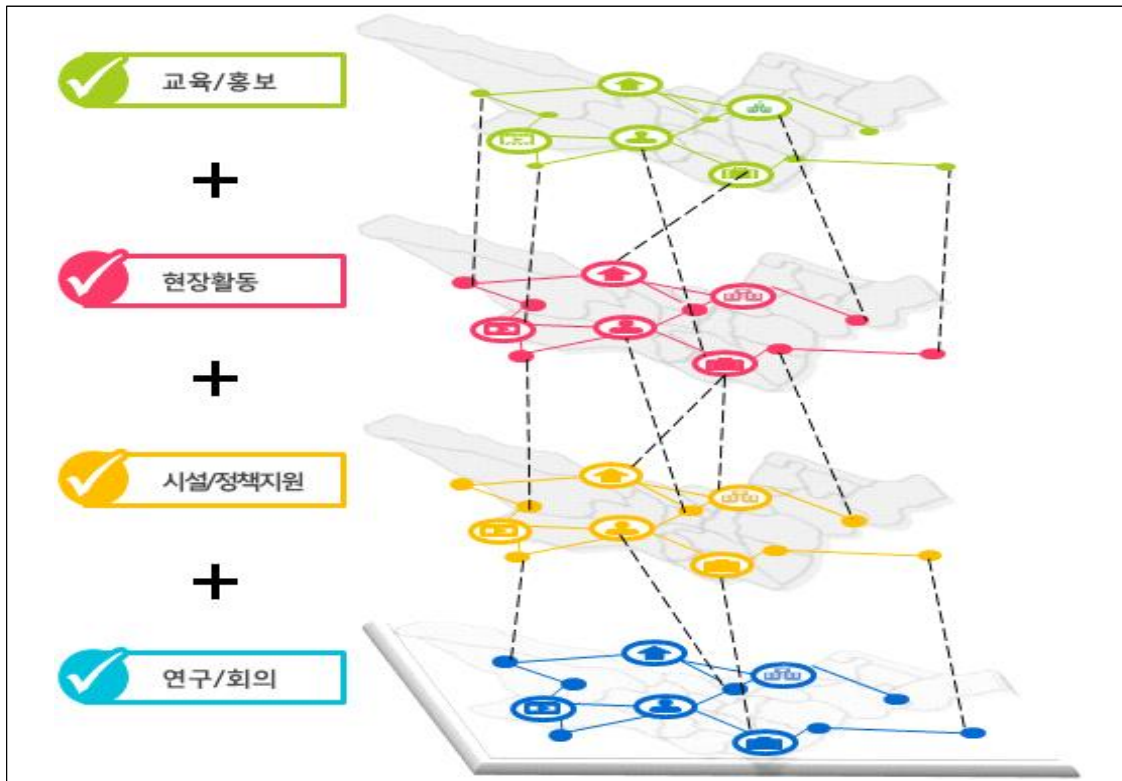
3) 거버넌스 참여자의 관계형성

- 아동거버넌스 참여자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9개 유형의 참여자가 있음
 - ①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②성북구청, ③국민대학교, ④성북소방서, ⑤성북 및 종암경찰서, ⑥성북강북교육지원청, ⑦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⑧주민자치위원회, ⑨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은 참여수준과 활성화요인으로 형성됨
 - 주도적 참여, 협력적 지원, 소극적 참가로 구분함
-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참여수준을 높여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요인이 필요함
 - 활성화요인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 목표의 공유와 참여 인센티브임. 따라서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며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빈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함
 - 이러한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리더십과 재정과 정보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역할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존재하고 조직들의 특성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문화와 수평적 관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외부의 다양한 제한적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외부적 장애요인을 가난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3.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체계

-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은 4개로 구분된 역할영역에서 소방관련 안전 거버넌스와 경찰관련 안전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설정함
 - 세부적으로 소방관련 안전 거버넌스와 경찰관련 안전 거버넌스는 상호협력적 작용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홍보, 현장활동, 시설 및 정책지원, 연구 및 회의 영역 간에도 상호간에도 상호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작용하여 역할을 수행함



<그림 2-1>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모델

1) 교육/홍보 거버넌스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는 커뮤니티 매핑활동 전후 학교 주변유해 시설에 대한 안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성북구청은 커뮤니티 매핑활동 및 매핑활용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국민대학교는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교육과 언론보도 및 본교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거버넌스 참여기관의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성북소방서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연중), 초등학교 화재대피훈련(연중, 일정협의), 소규모 테마여행 및 119동행 교육(분기별 계획)을 각 시기에 맞게 진행함. 뿐만아니라, 소방동요대회, 불조심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각종 소방활동행사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성북경찰서와 중암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로와 우범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담당하며, 아동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 활동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아동안전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들은 아동안전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교육을 담당함

〈표 2-8〉 교육/홍보 거버넌스

역할 구분	거버넌스 영역	참여자	관계형성	
			참여수준	인센티브
교육/ 홍보	소방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협력적 지원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적극적 참여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협력적 지원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적 지원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협력적 지원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소극적 참가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소극적 참가	지원금
	경찰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협력적 지원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협력적 지원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적 지원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협력적 지원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소극적 참가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소극적 참가	지원금

2) 현장활동 거버넌스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는 커뮤니티 매핑활동과 아동안전 예방교육에 참가함. 또한,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을 담당함
- 성북구청은 커뮤니티 매핑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역할 수행
- 국민대학교는 기관 간 아동안전정보통합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유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커뮤니티 매핑활동시에 필요한 인력을 본교 대학생을 활용하여 지원함
- 성북소방서는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안전 침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함.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을 실시함
-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안전 침해 시설에 대한 지역순찰 및 모니터링 역할을

- 수행함. 또한, 아동안전 관련행사에 녹색어머니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아동안전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담당함
-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의 안전활동을 위한 정책지원을 담당함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는 매핑활동에 참여하며, 초등학교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담당함. 또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역할을 수행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동안전위해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은 아동안전 위해지역에 대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마을단위 아동안전침해시설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함

〈표 2-9〉 현장활동 거버넌스

역할 구분	거버넌스 영역	참여자	관계형성	
			참여수준	인센티브
현장 활동	소방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적극적 참여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적 지원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협력적 지원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경찰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적극적 참여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력적 지원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협력적 지원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3) 시설 및 정책지원 거버넌스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는 커뮤니티 매핑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성북구청은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이후 매핑데이를 주관하며, 매핑활동시 활용되는 어플서비스를 구축하고 시행함. 또한, 아동안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당함
- 국민대학교는 교육 및 회의장소 등 시설·장소지원을 담당하며, 아동안전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MOU 체결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성북소방서는 소방안전 교육장에 대한 시설을 제공함
-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담당함
- 교육지원청은 아동안전활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며, 관내 초등학교의 아동안전강화 활동을 유도함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아동안전활동에 참여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동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에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등을 회의장으로 제공함

〈표 2-10〉 시설 및 정책지원 거버넌스

역할 구분	거버넌스 영역	참여자	관계형성	
			참여수준	인센티브
시설/ 정책 지원	소방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협력적 지원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협력적 지원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소극적 참관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적극적 참여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적극적 참여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경찰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협력적 지원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소극적 참관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협력적 지원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적극적 참여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적극적 참여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4) 연구 및 회의활동 거버넌스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는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
 - 성북구청은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 공유를 담당함. 확립된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매핑데이 및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함
 - 국민대학교는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를 담당함. 또한, 거버넌스 참여기관의 회의를 주선하고,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을 공유함
 - 성북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은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와 피드백을 공유함

〈표 2-11〉 연구와 회의활동 거버넌스

역할 구분	거버넌스 영역	참여자	관계형성	
			참여수준	인센티브
연구/ 회의	소방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적극적 참여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적극적 참여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적극적 참여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경찰관련 거버넌스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적극적 참여	수상, 승진
		성북구청	적극적 참여	승진
		국민대학교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소방서	적극적 참여	승진, 수상
		성북, 종암경찰서	적극적 참여	수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적극적 참여	수상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적극적 참여	수상, 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적극적 참여	지원금
		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적극적 참여	지원금

4.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1)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개요

○ 성북구의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액션플랜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한 거버넌스 모델을 기반으로 역할과 실행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교육·홍보 영역
- 현장활동 영역
- 시설/정책지원 영역
- 연구 및 회의 영역

○ 4가지 영역별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2개 영역으로 구분함

-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위해요인(시설, 장소, 인물, 물질, 행위, 환경 등)의 발굴 활동

- | |
|--------------------------------------|
| ①아동안전 위험시설: 건물, 놀이기구 등 |
| ②아동안전 위험구역: 도로, 우범지역 등 |
| ③아동안전 위험 제품 및 재료: 약품, 장난감, 도구 등 |
| ④아동안전 위험활동: 위험한 게임과 놀이, 사이버 공간의 활동 등 |
| ⑤아동안전 위험인물: 불량 학생 등 |

- 아동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활동

- | |
|---|
| ①목적, 세부적인 목표(명확한 시간제한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설정 |
| ②각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 현장활동 영역이 주로 발굴활동에 해당되지만 예방 및 대응활동에서 실시하는 목적 설정,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등의 확인과 대안모색을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홍보, 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회의는 대부분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해당됨

○ 거버넌스를 위한 대상에 따라 4개 영역에서 경찰서가 관할하는 아동안전과 소방서가 관할하는 아동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액션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 경찰관련 대상은 도로안전, 우범지역 및 시설 관리, 불량어린이 및 청소년 단속 등이 있음

- 소방관련 대상은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상해와 시설 발굴 및 예방, 대응관리가 해당됨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는 9개 참여자로 구분함

- | |
|--|
| ①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②성북구청
③국민대학교
④성북소방서
⑤성북 및 중암경찰서
⑥성북강북교육지청
⑦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⑧주민자치위원회
⑨마을활동가, 성북구마을사회적 경제센터 |
|--|

- 9개 참여주체들의 4가지 영역의 발굴활동 또는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수준에 따라 참여함
- 참여자들의 참여수준은 적극적 참여, 협력적 지원, 소극적 참관으로 구분함

2)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수립

(1) 액션플랜 수립절차

- | |
|---|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9개 기관의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서 전체목적과 세부목표를 설정함
-4개 영역의 전체목적은 1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설정하며 세부목표와 계획은 매년 설정함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필요자원 확인
-한계점과 대안모색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거버넌스 핵심참여자 선정
-거버넌스 참여수준 결정
-거버넌스 체계 구현

4단계: 거버넌스 실행
-4개 영역별로 거버넌스 실행
-3단계까지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면 이후에는 4단계의 거버넌스 실행 단계부터 주기적 또는 필요시 실행됨 |
|---|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방식
- 협력활동(회의, 교육 등) 진행 방식
- 의사결정 조건 및 준칙
- 추진과정 및 결과 보고 등

5단계: 환류 및 개선

- 진행결과의 한계와 개선안 논의 및 결정 방식
- 1분기 정기회의와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합동을 개최할 수 있음



〈그림 2-2〉 아동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 수립 절차

(2) 교육·홍보영역 액션플랜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을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역할**들을(역할)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와 활동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교육·홍보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경찰관련 아동안전과 소방관련 아동안전으로 구분함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을 제시함
-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함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커뮤니티 매핑 활동 후 학교 주변 유해시설 안내 및 안전 교육 실시

○ 성북구청

-커뮤니티 매핑 활용 홍보

○ 국민대학교

-커뮤니티 매핑 교육

-거버넌스 참여기관 성과 홍보(언론보도, 본교 소식지 등)

○ 성북소방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시(연중)

-초등학교 화재대피훈련(연중, 일정협의)

-소규모테마여행 119동행교육(분기별계획)

-소방동요대회, 불조심 포스터 등 공모

-아동참여 각종 소방활동 행사 언론보도

○성북·중암경찰서

-어린이(도로, 우범지역 등) 안전교육 실시

-아동참여 안전지킴 활동 및 행사 홍보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아동안전 활동 홍보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아동안전 활동 홍보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상 아동안전 인식 홍보

○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주민대상의 아동안전 교육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육홍보 위원회를 구성함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도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기준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재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명을 지명함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 또한 필요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의 1/2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성북구청, 교육지청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분기 회의 때는 1년간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착수를 결정함

- 위원회는 교육 및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때 실시함
- 1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3) 현장활동 영역 액션플랜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에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에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정보수집, 현장시찰,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역할들을(역할)**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와 활동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각 현장활동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경찰관련 아동안전과 소방관련 아동안전으로 구분함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을 제시함
-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함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 커뮤니티 매핑 활동 참가
- 아동안전 예방교육 참가
-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실시

○ 성북구청

- 매핑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국민대학교

- 기관 간 아동안전정보통합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유
- 커뮤니티 매핑 활동 인력보조(본교 대학생)

○ 성북소방서

-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 시설 및 지역 정보 제공
- 아동안전 침해 시설 모니터링
- 긴급구조 및 복구 활동

○성북·종암경찰서

- 매핑을 위한 아동안전 시설 및 지역 정보 제공
- 아동안전 침해 시설 및 지역 순찰 및 모니터링
- 녹색어머니회 참여 유도 및 지원
- 아동안전 사고 및 사건 조사 및 조치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활동을 위한 협력적 정책지원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 매핑활동 참여
- 초등학교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 우범지역 순찰 활동

○ 주민자치위원회

- 아동안전 침해 지역 정보 제공

○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 아동안전 침해 지역 정보 제공
- 마을단위 아동안전 침해 시설 및 지역 개선 활동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현장활동 위원회를 구성함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기준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제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명을 지명함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 또한 필요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 1/2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성북구청, 교육지원청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분기 회의 때는 1년간의 현장활동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착수를 결정함
- 위원회는 현장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 때 실시함

- 1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4) 시설 및 정책지원 영역 액션플랜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에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에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예산 및 행정, 시설지원 등을 위한 역할**들을(역할)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와 활동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시설 및 정책지원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경찰관련 아동안전과 소방관련 아동안전으로 구분함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을 제시함
-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함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 커뮤니티 매핑 교육 실시 장소 지원

○ 성북구청

- 거버넌스 협동체 구축 이후 매핑데이 주관
- 매핑활동 시 활용되는 어플서비스 구축 및 시행

- 아동안전활동 예산지원

○ 국민대학교

- 교육 및 회의장소 등 시설·장소지원
- 아동안전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MOU 체결)

○ 성북소방서

- 소방안전교육장 시설제공

○ 성북·종암경찰서

-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협력적 지원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아동안전활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관내 초등학교의 아동안전 강화활동 유도

○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 등)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 주민자치위원회

- 아동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활성화

○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 아동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활성화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시설 및 정책지원 위원회를 구성함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기준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

- 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제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명을 지명함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 또한 필요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의 1/2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성북구청, 교육지원청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분기 회의 때는 1년간의 시설 및 정책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착수를 결정함
- 위원회는 시설 및 정책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 때 실시함
- 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5) 연구 및 회의 영역 액션플랜

○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에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에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연구 및 회의 등을 위한 역할들을(역할)**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와 활동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구 및 회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경찰관련 아동안전과 소방관련 아동안전으로 구분함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을 제시함
-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함

○ 관내 초등학교(초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 공유

○ 성북구청

-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 공유
- 확립된 거버넌스체계의 지원활동 (매핑데이 주선 및 홍보, 사후조치)

○ 국민대학교

- 아동안전 거버넌스 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기관 회의 주선
-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 공유

○ 성북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직능단체(녹색어머니회, 방법순찰대 등),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성북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등

- 아동안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또는 의견제출
- 거버넌스 활동의 한계와 성과 및 피드백 공유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회의 위원회를 구성함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기준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제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명을 지명함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 또한 필요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성북구청, 교육지원청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분기 회의 때는 1년간의 연구 및 회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 착수를 결정함
- 위원회는 연구 및 회의를 체계적으로 지연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때 실시함
- 1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3장. 커뮤니티매핑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커뮤니티 매핑의 이론적 배경 및 효과

1. 커뮤니티 매핑의 이론적 배경

- 최근 웹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도만들기, 즉 커뮤니티 매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는 정보기술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변화를 함께 가져오는 새로운 변화의 큰 사례 중 하나임(정수희 · 이병민, 2014)
- 커뮤니티 매핑이란 ‘지리정보시스템기술(GIS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산을 지도 위에 매핑 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음(Kretzmann, J., & McKnight, 1993). 또한 커뮤니티 매핑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지역의 사회, 환경, 문화 자원 등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을 의미하는 개념임
-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자들은 매핑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Assets)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문제점들(Public Problems)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과 대안(Innovative Solutions)을 도출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은 커뮤니티(Community)와 매핑(Mapping)의 합성어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임. 즉 지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임. 즉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시민참여활동이란 시민들이 공적 책임감을 지니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기관 등과 함께 협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제반활동을 의미함²⁾

2) 사람들은 현실이나 사이버 공간 안에서 네트워킹을 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함.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가진 지식을 나누거나 하나로 결집시키기도 함. 이렇게 개인이 가진 정보와 지식이 하나로 모이

- 일반적으로 참여지도 제작은 [주제선정-주민모집-교육-지도제작-활용]의 단계로 진행되며, 주제선정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지도에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민모집단계에서는 지도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원봉사자(개인수준)나 단체(조직수준)를 모집, 교육 단계에서는 지도를 제작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지도제작 단계에서는 참여한 주민이 지역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 활용 단계에서 행정기관, 지역단체, 지역주민이 참여지도의 결과를 활용함

○ 특히 최근의 발전된 스마트폰 및 최신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음³⁾

- 커뮤니티 매핑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Education), 참여(Engagement), 자치권한(Empowerment)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의식이 고취될 수 있음
- 정수화·이병민(2014)은 커뮤니티매핑을, 커뮤니티의 구성원들(Who)이 지도만들기(How)를 통해 커뮤니티의 문제를 공유(What)하며 커뮤니티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Why) 적극적인 참여 행위로 정의하였음
- 또한 국내에 커뮤니티매핑을 소개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센터(2013년 설립, 센터장 임완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 이라고 밝히고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의 주제는 환경 및 복지, 그리고 시설이나 문화 등 공동체의 관심사라면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주제가 어떤 것이든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 중요함

면 그 파급 효과가 때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임

- 3) GIS의 확산으로 참여지도의 제작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지도 제작에 있어서 GIS가 제공하는 공간정보 구축, 관리, 지도화 기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임.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나타나는 GIS 기술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음.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와 웹 지도 서비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같은 새로운 매핑 도구가 GIS의 구축,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의 결과는 참여지도 제작방식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FOSS를 활용하면서 참여지도 제작에 필요한 매핑 프로그램 구입에 비용이 거의 필요 없게 되었음. 또한 웹 지도 서비스 오픈API를 활용하여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이 보다 손쉽게 지역정보를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음(안재성 & 황성수, 2013)

- 서로가 소통하는 공동체라고 자연스럽게 느낄 때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뮤니티 매핑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지성을 통해 커뮤니티 매핑을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 시설물관리 커뮤니티 맵’ 및 ‘교통안전 시설 커뮤니티 매핑’, 그리고 ‘서울시 희망 온돌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은 기존의 시민참여의 장점을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접목과 더불어 획일적인 방식,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One-way) 정보제공과 공공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전체가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기존의 문제 해결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할 때만이 가장 최적합의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매일 매일 현실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성공적인 공공문제의 해결 체계와 운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함
- 변증법적 접근(Dialectic Approach)을 통해 기존의 합리주의적 방식(Rational Approach)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창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참여자인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 소수의 전문가들 영유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수준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Belief)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사회구성주의적 관점(Social Constructionism)에서 “우리”라는 관계(We-relationship)의 회복을 통해 공공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커뮤니티매핑 기법은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이러한 성공의 주요 요인이 기술적 요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Community Value)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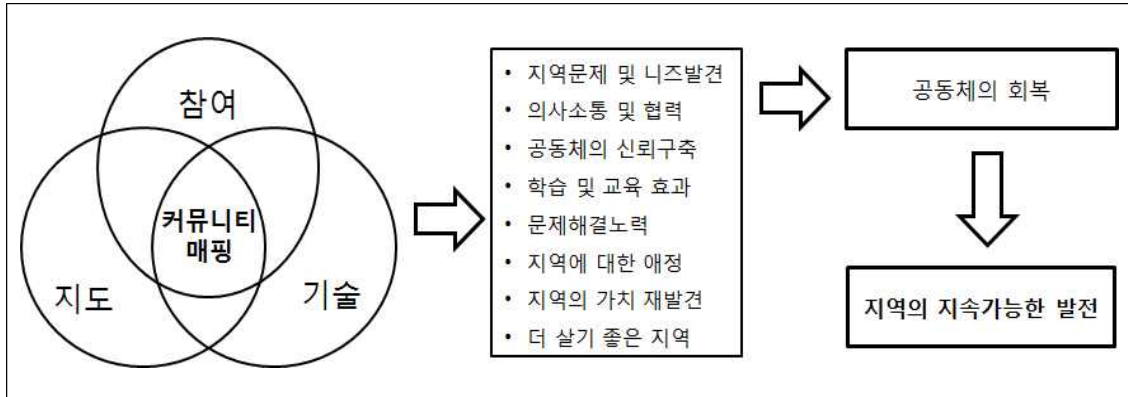
(Democratic Governance)적 요인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그 효과성을 증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커뮤니티 매핑의 첫 번째 단계이며, 실제 필드에 나가 매핑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이 두 번째 단계이며, 모아진 자료(Data)에서 유의미한 정보(Information)를 도출 공익을 실현하고, 이러한 기제(Mechanism)이 지속가능하도록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하도록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음

2. 커뮤니티 매핑의 효과

-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에서 커뮤니티 매핑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증대’, ‘정책참여의 가치’, ‘실질적 활용성’의 3가지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사회적 자본의 증대, 참여자 간 신뢰 증진, 공동체 가치 증대 등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아동안전 관련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여 ‘정책참여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은 아동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지역 내 아동안전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tool)임과 동시에,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실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참여의 플랫폼으로 ‘실질적 활용성’을 가짐

○ 커뮤니티 매핑의 효과(지속가능성과의 연계성)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 커뮤니티 매핑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성

○ 즉, 커뮤니티매핑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올리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 및 니즈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의사소통 및 협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재발견은 물론 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과정(process)이라 볼 수 있음

○ 결국 커뮤니티매핑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인 것임

○ 따라서 본 과제의 핵심적인 주제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와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함에 의의가 높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산(Assets)이며 이를 어떻게 유의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것임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개인수준의 자산(Individual Assets)과 지역사회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수준의 자산(Community Assets)과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자료출처: A Community Research Lab Toolkit (2012) Participatory Asset Mapping

〈그림 3-2〉 개인자산과 지역자산 간의 관계

- 이러한 자산은 커뮤니티 매핑을 활동을 통해 실시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 축적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s)들이 지도 안에 아래의 사례 스크린 화면과 같이 담겨지게 됨



*자료출처: A Community Research Lab Toolkit (2012) Participatory Asset Mapping

〈그림 3-3〉 커뮤니티 매핑의 사례(지역자산지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활용의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구조 하에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아래의 활동 예시 사진과 같이 (해외 사례) 함께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수준의 관리 계획을 도출함
- 지역자산의 경우 관리 방안의 도출과 창의적인 활용에 초점이 마련될 것이며, 지역 문제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그 해결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것임.

본 과제 의 경우 아동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매핑 하는 내용이 주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체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임



*자료출처: A Community Research Lab Toolkit (2012) Participatory Asset Mapping

〈그림 3-4〉 커뮤니티 매핑의 피드백 현장

3. 커뮤니티매핑 해외 사례

-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은 지역사회 개발 계획 단계 전반 창조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각광 받음
- 특히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 사회의 역량(capacities)과 지역의 자산/assets)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된 온라인 기술의 도입 이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음
- 예를 들어 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인지될 경우, 이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조사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성장에 기여, 지역의 자산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아 왔음
- 지역 사회에서 무엇이 부족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공유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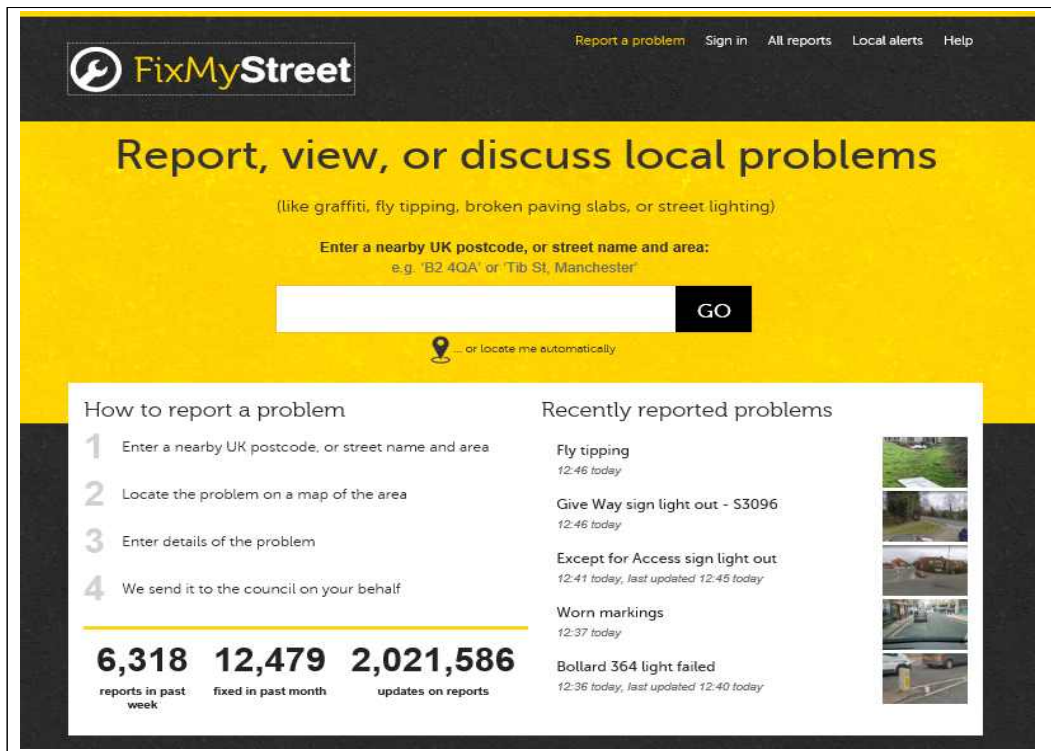


*자료출처: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2015), Achieving the Extension Mission Through Volunteers: Community Mapping Examples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 도입 이전부터 참여를 강조하는 지도 만들기 활동의 문제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음)

<그림 3-5>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커뮤니티 매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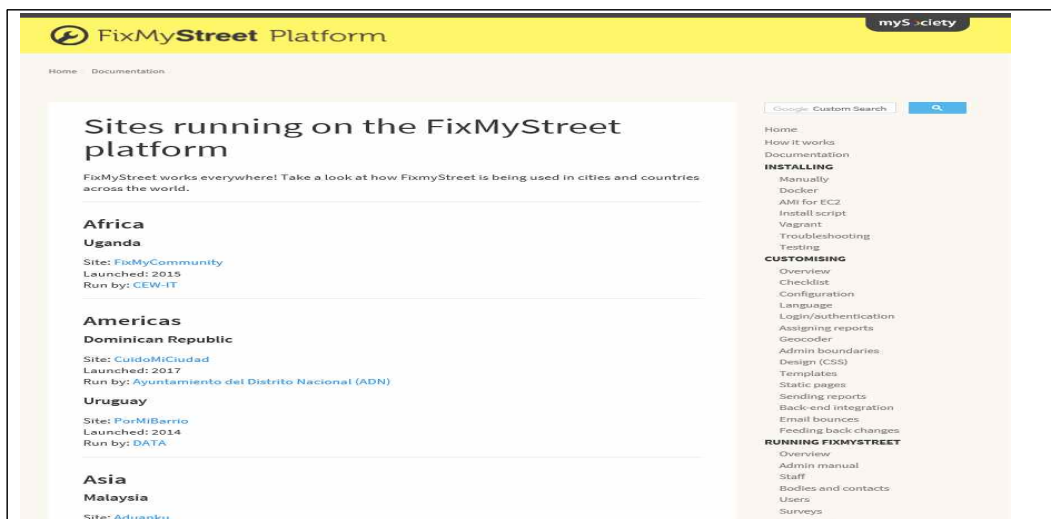
-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주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FixMyStreet은 대표적인 커뮤니티 매핑의 성공 사례임 (<http://www.fixmystreet.com>)
 -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라는 영국 비정부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함
 - 도로가 파손된 곳,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문제, 위험한 건널목 문제 등 지역사회의 불편사항을 글과 사진 등과 함께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가 있는 지점의 지도와 함께 첨부되어 정확하게 사이트가 디자인된 점이 특징임
 - 모바일 기술 발전이 성숙되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한 달 사이에 800여건이 접수되고, 이중 300여건이 일주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 처리되면서 지역사회에 각광을 받게 됨
 - 현재는 사이트가 영국 내에서 더욱 활성화 되어 일주일에 6000여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음

- 더불어 FixMyStreet Platform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자료출처: www.fixmystreet.com

〈그림 3-6〉 Fixmystreet 커뮤니티 매핑사례



*자료출처: <http://fixmystreet.org>

〈그림 3-7〉 Fixmystreet 운영 플랫폼

- 시민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 (public participatory GIS)은 Web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지자체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⁴⁾
 - 지자체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오렌지카운티의 Orange County Interactive Mapping이 있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로 다른 정보를 지도상에 의견의 형태로 남기고, 이를 종합하여, 카운티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한 일종의 온라인 지도 해결방안임
 - 미국 일리노이 주의 Resource Management Mapping Service의 경우, 전체 주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의 유용한 정보들을 온라인 지도상에 의견 형태로 남기고, 이를 종합, 유용한 정보가 담긴 주(state)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임
- 비영리단체 중심의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National Community Mapping Institute (NCMI)의 활동이 대표적임
 - 시민참여형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사람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광객이 많은 복잡한 뉴욕 도시의 공공화장실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었던 NY restroom 커뮤니티 매핑 활동과 미국의 Sandy 태풍 재난 당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에 있어서 정부기관(FEMA 미국재난관리청)보다 더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였던 Franklin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례가 있음
 - 특히, 태풍으로 전기가 끊겨 직접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커뮤니티의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지역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상에 정보를 올린 것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커뮤니티 매핑 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도구로서의 커뮤니티 매핑의 장점을 보여준 성공 사례임
 -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익 구현의 목적을 위해 상호작용형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토지이용, 오염출처, 수질 정보, 복원활동, 지역

4) Kingston et al. (1999) Virtual Decision Making in Spatial Planning: Web-base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 Hawthorne, T. (2004) A summary of Web Based Public Participation GIS

- 자원환경 역사 등에 대한 정보와 사진 비디오를 업로드 하는 커뮤니티 매핑도 대표적인 사례임 (ImRivers 프로젝트)
- 최근에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커뮤니티 매핑 등 다양한 보건위생분야에도 활발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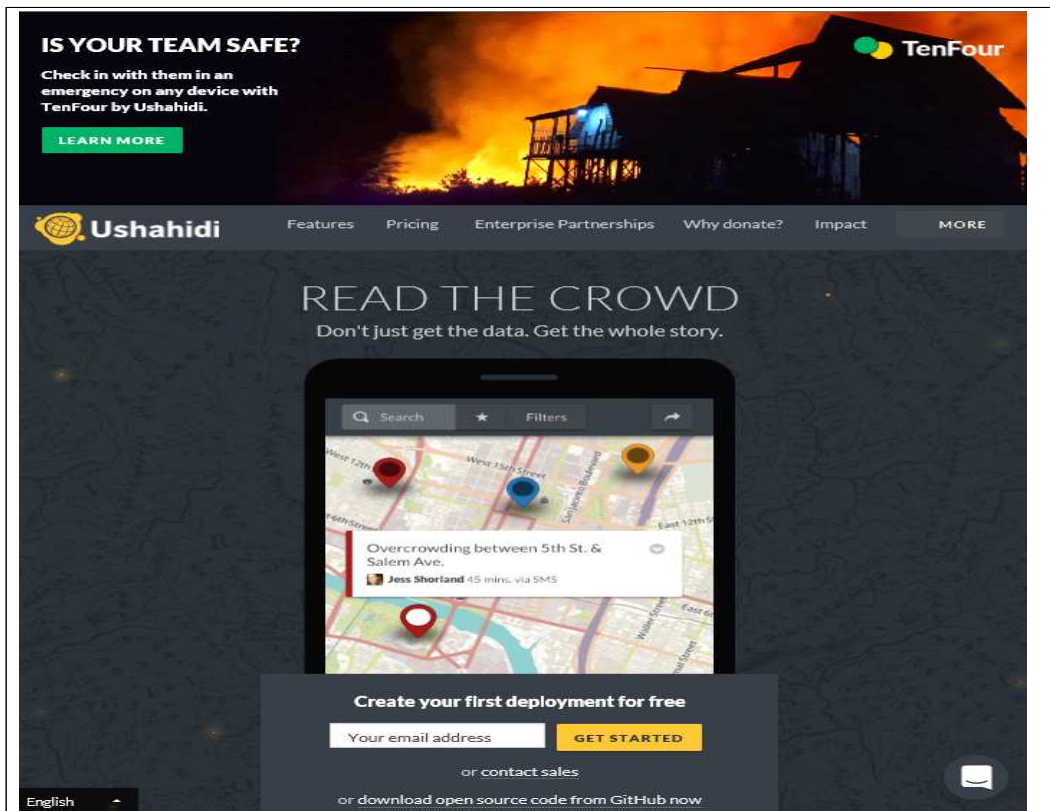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communitymappingforhealthequity.org>

<그림 3-8> NCMi 커뮤니티매핑사례

- 자연재해, 테러, 범죄,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비영리 기술회사 Ushahidi (<http://www.ushahidi.com>) 또한 커뮤니티 매핑관련 성공 해외 사례임
- Ushahidi는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로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시각화하는 오픈 플랫폼임
- 세계 각 지역별로 자연재해, 테러사태, 범죄, 질병 등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구호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아프리카 케냐 우샤히디(Ushahidi)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지역의 목격자들이 그들의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실시간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한 사이트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그 시작임

- 우샤하디가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아이티 지진사태 지도, 런던지하철 파업지도, 워싱턴 대폭설 도로 제설작업지도, 칠레 지진 지도 등이 있음



*자료출처: <http://www.ushahidi.com>

<그림 3-9> Ushahidi 커뮤니티매핑 사례

제2절. 커뮤니티매핑의 사례분석

- 본 절에서는 국민대학교가 성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커뮤니티매핑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에서 커뮤니티매핑의 ‘실질적 활용성’과 매핑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참여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함

1. 성북구 내 커뮤니티매핑

- 국민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커뮤니티매핑을 시행하고 있음
 - 국민대 북악인성교육센터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커뮤니티매핑들이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대학 단위의 대규모로 매핑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대학교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국민대학교는 성북구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주제를 매핑 및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연결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장조사방법 및 서비스 사용 설명 등을 듣고, 매핑 지역과 요소를 결정한 후 팀을 구성함. 각 팀원들은 정해진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해당 요소가 위치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지도에 기록함
 - 개개인이 기록한 요소는 데이터로 축적되어 그 지역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도가 만들어짐
 - 온라인 서비스인 맵플러케이투(MapplerK2)앱과 서울시 제공 매핑 서비스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함

〈표 3-1〉 성북구 내 국민대학교 커뮤니티매핑

연번	단과대학명/학과	교과목명	참여 인원	교원	구분	주제
1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희곡론	61	서재길	매핑	서울시내 연극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
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연습	21	하현상	매핑	마을공동체 활성화(마을 자원 조사)
3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	기업법과윤리	31	전해정	매핑	삶 속에서 법과 정의 실천하기
4	과학기술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사제동행세미나	12	심인보	매핑	방사능 수치 매핑
5	과학기술대학 (산업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과기후변화	55	최광훈	매핑	수목의 개엽 및 개화 시기 매핑
6	경영대학 (경영학부)	사제동행세미나	10	권순범	매핑	국민대학교환학생을 위한 문화거리 매핑
7	교양대학	시민사회와 정치	49	김경래	매핑	성북구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8	교양대학	시민정신과 사회봉사	104	여현철	매핑	교통약자 편의시설 매핑
	교양대학	삶과 윤리	160	박규철	매핑	교통약자 편의시설 매핑

- 국민대학교는 8개의 수업에서 503명의 학생들이 장애인 접근성, 마을 자원 조사, 방사능 수치, 개엽 및 개화 시기, 문화 시설 등 다양한 주제로 성북구 내 매핑 활동을 실시하였음

2. 커뮤니티매핑 활동 결과

1) 서울 시내 연극 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글로벌인문지역대학/서재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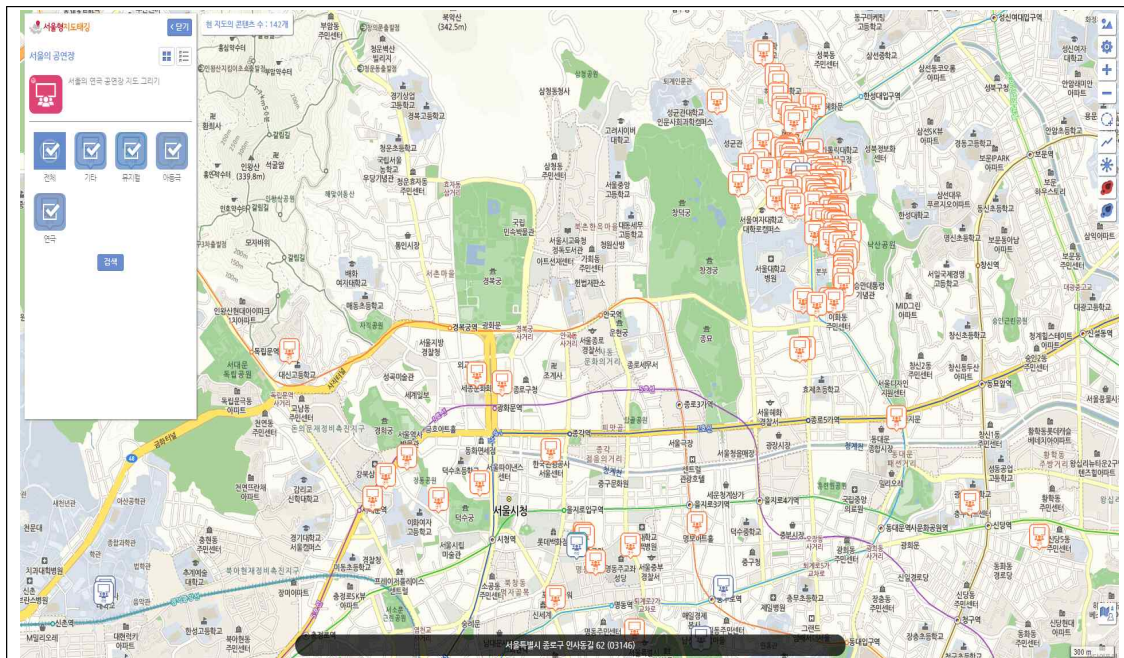
○ 서울 시내 연극 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 매핑은 성북구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의 연극 공연장을 매핑했음

○ 지난 학기 대학로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던 매핑활동을 확장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의 연극 공연장에 대해 장애인 접근 시설에 대한 매핑을 진행한 것으로, 인터파크 PlayDB 사이트와 네이버 지도를 참조하여 전체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서울 시내 극장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매핑을 진행했음

○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 도출한 매핑 데이터는 192개였으며,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데이터 매핑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는 문화생활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를지 느껴볼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D9D>



<그림 3-10> 연극 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 매핑 결과

2) 정릉3동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회과학대학/하현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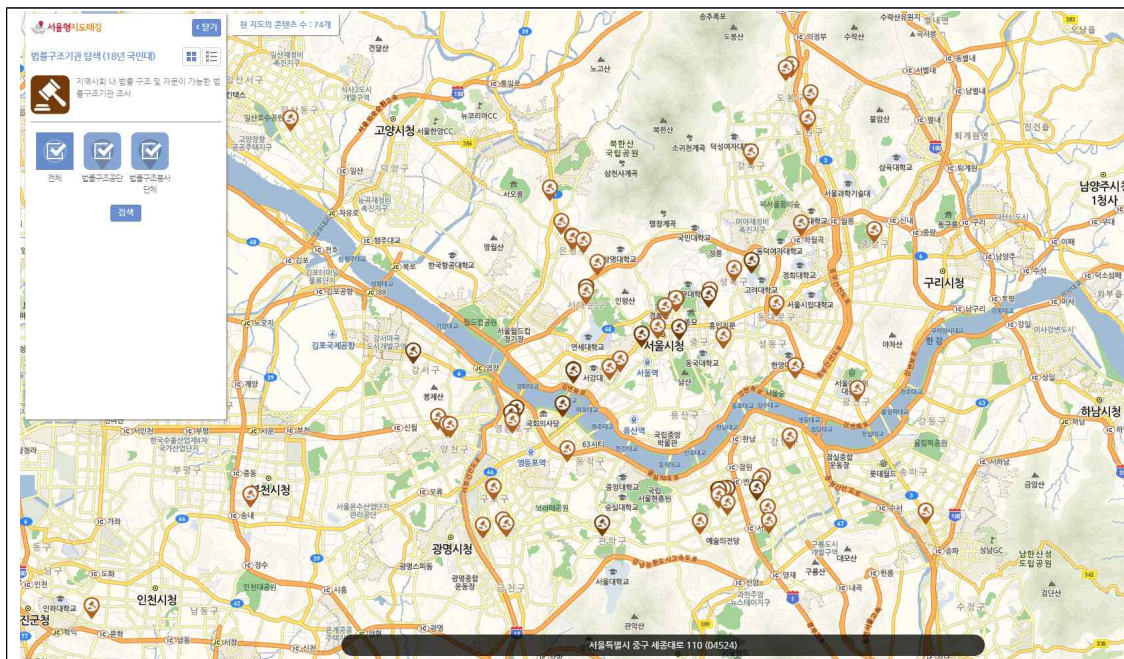
- 정릉3동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자원 조사 매핑은 정릉3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학생들이 정릉3동에 있는 마을 역사자원, 관광자원, 상가 및 가족 스토리 등 다양한 마을의 정보에 대해 매핑을 통해 데이터화하고 관련 정보 및 역사, 스토리 등을 담아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정릉 3동의 마을 자원 매핑 데이터를 563개를 도출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지역 자원을 데이터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제고 및 주민과 학생, 학교가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D9J>



<그림 3-11> 정릉3동 마을자원 매핑 결과

3) 삶 속에서 법과 정의 실천하기(법과대학/전해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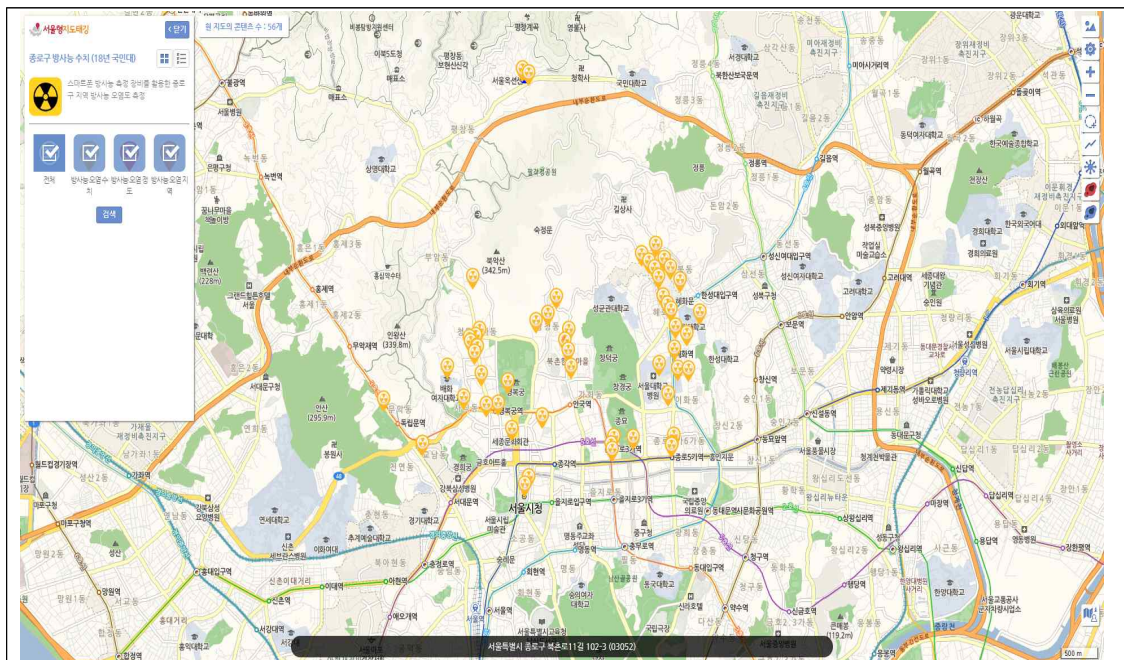
- 지역 사회에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매핑하기 위해 수강생들의 거주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매핑을 진행했음
-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매핑을 진행하여, 매핑 데이터를 77개 수집했음
-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쉬운 법에 대해서 법률구조가 필요할 때 주변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매핑함으로써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Ejp>



<그림 3-12> 법률 구조 장소 매핑 결과

4) 방사능 수치 매핑(과학기술대학/심인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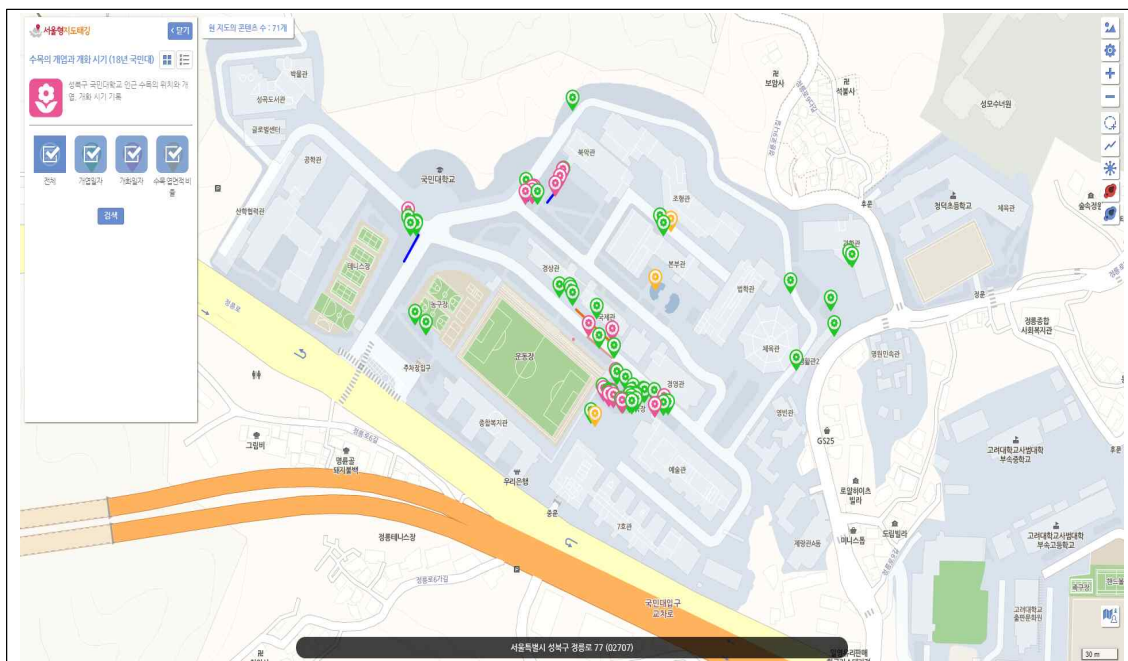
- 종로구의 방사능 수치 매핑은 성북구를 중심으로 종로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매핑이 이루어졌음
- 일상생활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도와 기준치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성북구와 종로구 지역 일대의 방사능 오염도를 스마트 기기형 방사능 측정기로 정도를 파악하여 지도에 표기했음
- 56곳의 매핑을 통해 생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해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방사능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Eju>



〈그림 3-13〉 방사능 매핑 결과

5) 수목의 개엽 및 개화 시기 매핑(과학기술대학/최광훈 교수)

- 수목의 개엽 및 개화 시기 매핑은 국민대학교 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기후 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식물 계절학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하기 쉬운 교내 수목을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3개월 동안 개엽 시기와 개화 시기를 기록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매주 식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은 매핑 데이터는 71개이며, 식물들이 계절 변화에 따라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시기에 특정 나무종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며, 식물의 변화, 자연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등 학생들이 생태 연구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또한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학술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Ejs>



<그림 3-14> 수목의 개엽 및 개화 시기 매핑 결과

6) 국민대학교 교환학생들을 위한 문화거리 매핑(경영대학/권순범 교수)

○ 국민대학교 교환학생들을 위해 문화거리 매핑을 실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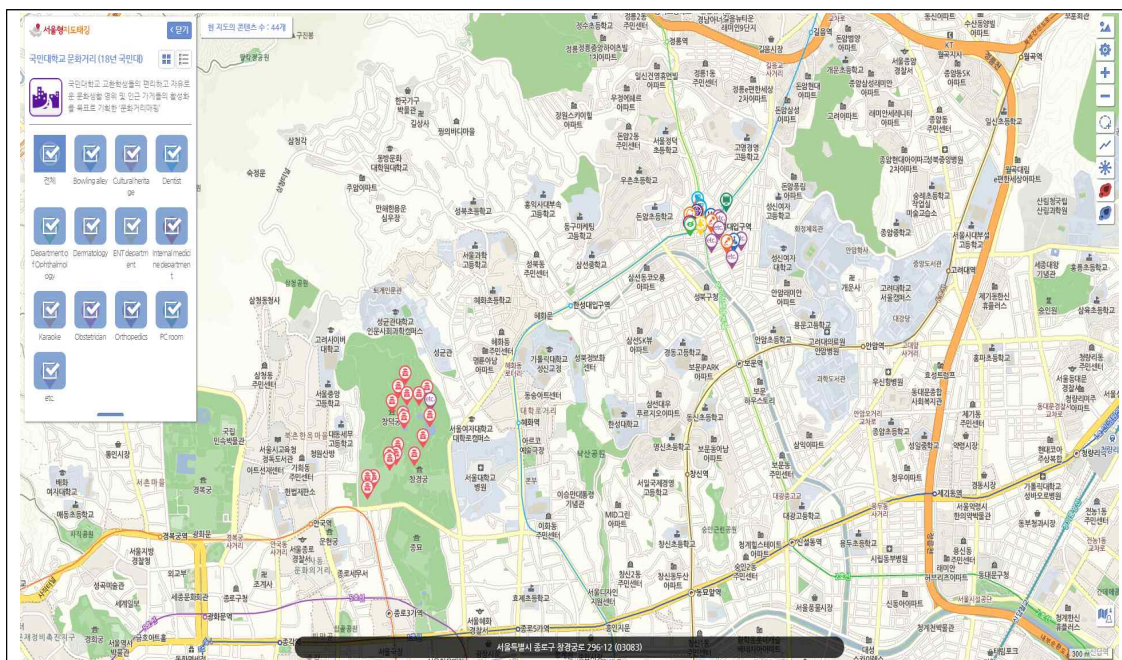
- 매핑 지역은 성북구를 중심으로 종로구의 창경궁, 창덕궁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했음

○ 국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정보를 설문 조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수집하고, 그 설문을 기반으로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및 창경궁, 창덕궁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44개의 매핑 데이터를 수집했음

○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타겟층의 수요를 파악하고 어느 곳이 접근성이 좋을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지 숙고해보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수정하는 작업 등을 통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성원 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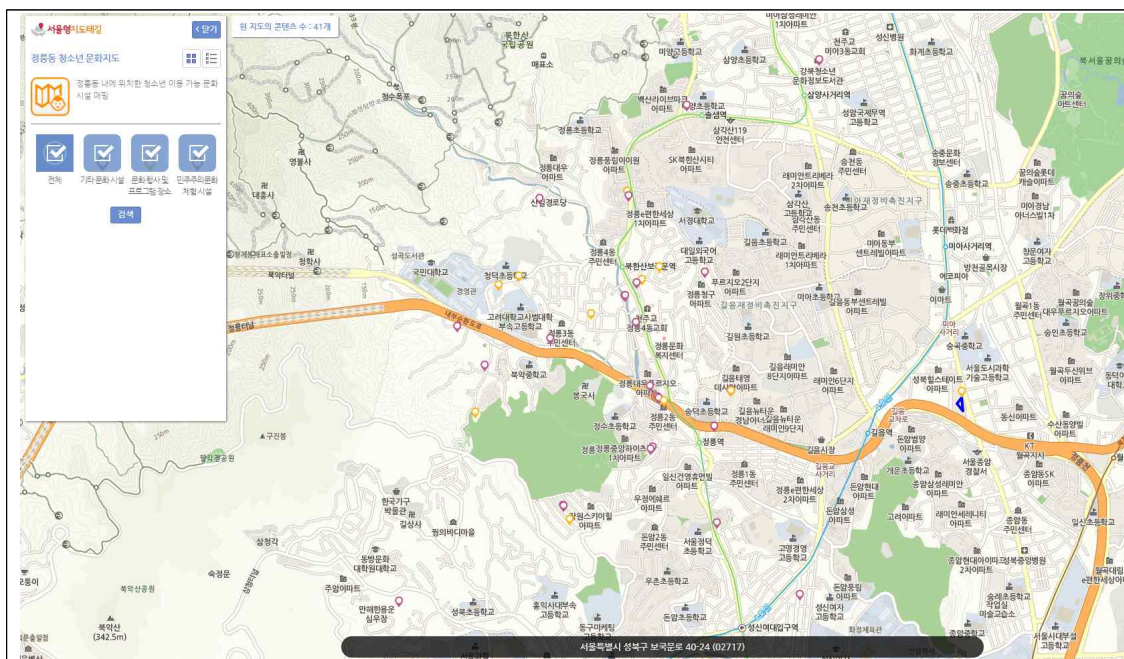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Ejk>



<그림 3-15> 교환학생을 위한 문화거리 매핑 결과

7) 성북구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매핑(교양대학/김경래 교수)

- 성북구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매핑은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
- 시민의 의미와 그 역할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필요했던 문화시설에 대한 매핑을 진행 했음
- 정릉동 일대의 매핑을 통해 매핑 데이터는 41개를 수집했으며, 시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map.seoul.go.kr/smgis/short.jsp?p=6LE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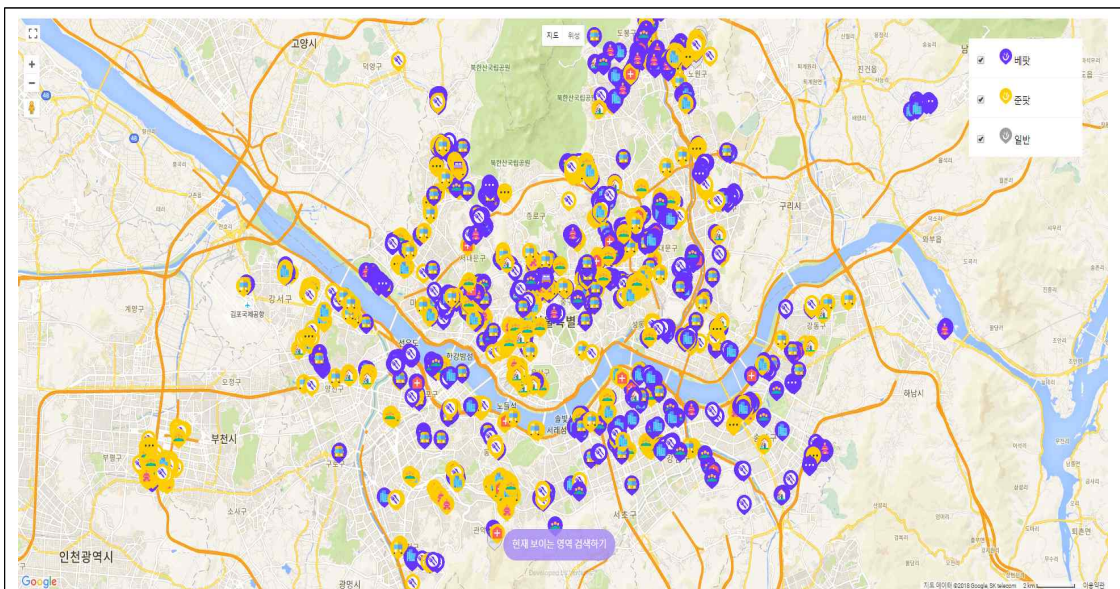


<그림 3-16>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매핑 결과

8) 커뮤니티매핑데이 참여(교양대학 시민정신과 사회봉사, 삶과 윤리)

(2018 국민* 집단지성 서울 전역 교통약자(장애인) 접근시설 매핑)

- 국민대학교는 커뮤니티 매핑데이를 운영하고 있음. 매핑 데이에서는 서울 전역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들의 접근시설에 관한 매핑을 진행하고 있음
 -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포함한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매핑하여 ‘장벽 없는 세상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난해 커뮤니티매핑 데이를 통해 모은 신규 등록 데이터는 2,398건이며, 커뮤니티매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등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고 있음
- 지도상에 표출되는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도: <https://bfzido.org/kmu/>



<그림 3-17>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매핑 결과

제3절. 성북구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실행과 분석

1. 성북구 아동안전 커뮤니티 매핑의 개요

- 성북구 내의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아동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매핑활동을 진행하였음
 - 2017년 국민대학교 대학생이 수행한 커뮤니티 매핑과 초등학생들이 진행한 커뮤니티 매핑활동 결과를 축적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누적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아동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커뮤니티 매핑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활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아동안전 커뮤니티 매핑활동은 성북구 내의 석관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돈암초등학교의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4개 학교의 선정기준은 성북구의 행정구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학교의 지원을 받아 4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음
- 커뮤니티 매핑 활동에 참여한 4개 초등학교의 지원을 받아 아동안전 거버넌스 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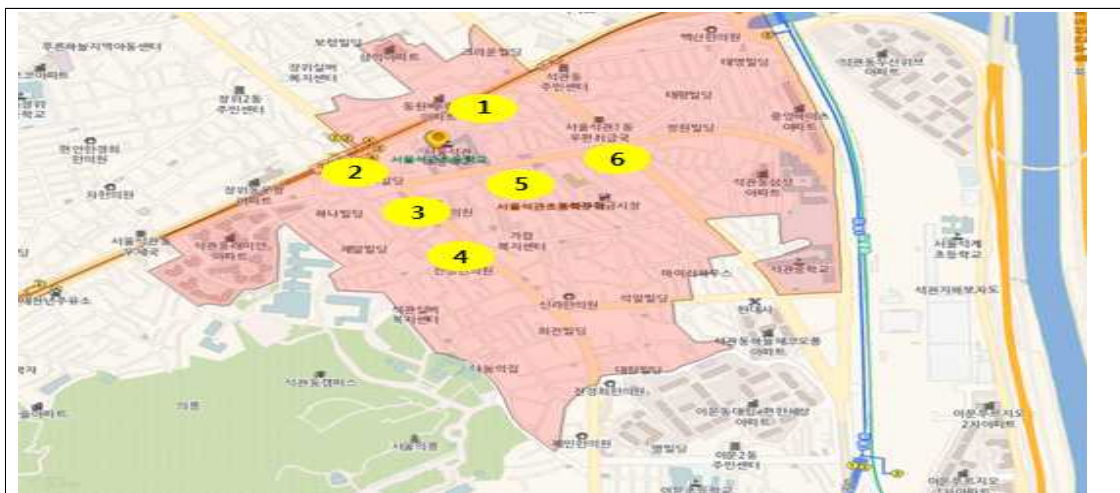
2.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매핑 활동

1) 석관초등학교

-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 장 소 : 석관초 정문 주변 일대
- 대 상 : 석관초등학생 (20명)
- 참여단체 : 석관초등학교, 국민대학교
 - 연구진 2인, 매핑보조원 6인(국민대학교 대학생)
- 주요내용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OT진행
 - 석관초등학교 정문 밖 아동안전에 위해하는 시설에 대해 매핑 실시
 - 초등학생 4~6명과 대학생 1명이 한 조를 이뤄 매핑 실시
- 세부진행

〈표 3-2〉 석관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시간	행사내용	비고
08:30-09:00('30)	- 매핑보조원 대상 안전 및 성 관련 교육	국민대학교
09:00-09:30('30)	- 커뮤니티매핑 OT	국민대학교
09:30-10:00('30)	- 조편성 및 동선/지역 분배	국민대학교, 석관초
10:00-11:20('80)	- 매핑 활동	국민대학교
11:20-12:00('40)	- 결과공유 및 토론	국민대학교, 석관초



〈그림 3-18〉 석관초등학교 매핑 구역



〈그림 3-19〉 석관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분석

○ 석관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전체 80여개의 커뮤니티매핑 데이터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CCTV 관련 7곳, 교통안전시설 관련 9곳, 19금 환경 10곳, 청소년 유해시설이 23곳, 불법주정차 지역이 13곳, 기타 18곳(위험물질 방치, 공사 중, 낙서, 쓰레기무단 투기, 기피지역 등)이 각각 매핑 되었음

○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 3-3〉 석관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석관초	수	비율
교통안전시설	9	11%
CCTV	7	9%
19금 환경	10	13%
청소년유해시설	23	29%
불법주정차	13	16%
기타	18	23%
총계	80	10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관초등학교 주변 커뮤니티매핑 결과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청소년 유해시설’, ‘기타’, ‘불법주정차’, ‘19금 환경’, ‘교통안전시설’, ‘CCTV’의 순으로 나타났다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석관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환경이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석관초등학교 주변 아동들이 ‘청소년 유해시설’과 ‘19금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임
 - ‘청소년 유해시설’과 ‘19금 환경’과 관련한 커뮤니티매핑 결과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석관초등학교 아동들이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둘째, 석관초등학교 주변 아동들이 보행 안전 및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임
 - 석관초등학교 매핑의 결과 ‘기타’ 카테고리가 23%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위험물질의 방치, 공사진행으로 인한 위험, 낙서,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 장소, 비행청소년들의 상주로 인한 기피지역 등임
- 이러한 측면은 모두 아동의 물리적·사회적 안전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아동의 등·하교 시 보행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사항임



<그림 3-20> 석관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위험인지장소)

- 커뮤니티매핑 결과 돌곶이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술집, 유흥주점, 당구장 및 PC방, 성인용품점 등 19금·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안전 환경의 구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해당 지역을 왕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조심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해당 상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등·하교 시간에 도로 변 자극적인 광고물 등을 일정시간 철거하는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한편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로 무단횡단의 일상화,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되었음
 - 도로 내에서 무단횡단 등이 자주 발생하여 아동들이 이를 따라하거나 자연스럽게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또한 오토바이 등이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아동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자주 왕래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2〉 석관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불법주정차)

- 또한 매핑 결과, 석관초등학교 인근에서 확인된 ‘불법주정차’는 총 13곳으로 전체 매핑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 상의 혼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아동안전 환경의 구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
- 아동들의 경우 도로에서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보행과 쾌적한 도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2) 장위초등학교

-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 장 소 : 장위초 정문 주변 일대
- 대 상 : 장위초등학생 (18명)
- 참여단체 : 장위초등학교, 국민대학교
 - 연구진 2인, 매핑보조원 7인(국민대학교 대학생)
- 주요내용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OT진행
 - 장위초등학교 정문 밖 아동안전을 위해하는 시설에 대해 매핑 실시
 - 초등학생 4~6명과 대학생 1명이 한 조를 이뤄 매핑 실시
- 세부진행

〈표 3-4〉 장위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시간	행사내용	비고
08:30-09:00('30)	- 매핑보조원 대상 안전 및 성 관련 교육	국민대학교
09:00-09:30('30)	- 커뮤니티매핑 OT	국민대학교
09:30-10:00('30)	- 조편성 및 동선/지역 분배	국민대학교, 장위초
10:00-11:20('80)	- 매핑 활동	국민대학교
11:20-12:00('40)	- 결과공유 및 토론	국민대학교, 장위초



〈그림 3-23〉 장위초등학교 매핑 구역



〈그림 3-24〉 장위초등학교 매핑 결과

○ 장위초등학교 매핑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5〉 장위초등학교 매핑 결과(위해요인별)

장위초	수	비율
교통안전시설	12	27%
CCTV	7	16%
19금 환경	1	2%
청소년유해시설	3	7%
불법주정차	1	2%
기타	21	47%
총계	45	100%

-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장위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전체 45개의 매핑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이 1곳, ‘CCTV’ 가 2곳, ‘19금 환경’ 이 12곳, ‘청소년 유해시설’ 이 6곳, ‘불법주정차’ 가 3곳, ‘기타’ 가 21곳 인 것으로 나타남
- 장위 초등학교 인근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유형은 ‘기타’ 가 47%, ‘19금 환경’ 이 27%, ‘청소년 유해시설’ 이 13%, ‘불법 주정차’ 가 7%, ‘CCTV’ 는 4%, ‘교통안전시설 관련’ 은 2%로 나타나고 있음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장위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환경이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우선, 장위초등학교 아동들이 ‘보행 안전’ 과 관련하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유형의 장소가 21곳으로 전체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범례에는 학교 내 날카롭고 위험한 물질들이 방치되어 있는 장소, 나무판자로 구성된 바닥이 노후하여 부서짐에 따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 학교와 인접한 공사장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장위초등학교 인근 상주하는 아동들이 날카롭고 위험한 공사자재 및 공사장 등 위험 환경에 다수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장위초등학교 아동들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한편, 파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장위초등학교와 인접한 외부도로와 학
내 녹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학교 내부에서 날카롭고 위험한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장소
 - 나무판자로 구성된 바닥이 노후하여 부서지는 등 활동 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
 - 학교와 인접한 공사장 등



〈그림 3-26〉 장위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청소년유해시설)

- 해당 위치는 장위동에 위치한 ‘지진옥외대피소 녹지쉼터’ 로써, 주거 밀집
지역 내에 공원의 형태로 놀이터·정자·벤치·광장이 조성되어 있음
- 주택밀집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나 녹지가 구성되어 있어 어둡고 조용하기
때문에 실제 아동들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라고 볼 수 있음
 - 아동들은 이 지역을 위험한 곳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CCTV도 대로변
을 따라서만 설치되어 있었음
 - 근처 주민센터와 장위지구대가 위치하고 있으나, 늦은 시간대에 아동들이
쉽게 도움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아동들이 실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장소가 확인된 만큼, 아동안전 환경의 구
축을 위해 경찰서, 학교, 구청 등이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3) 정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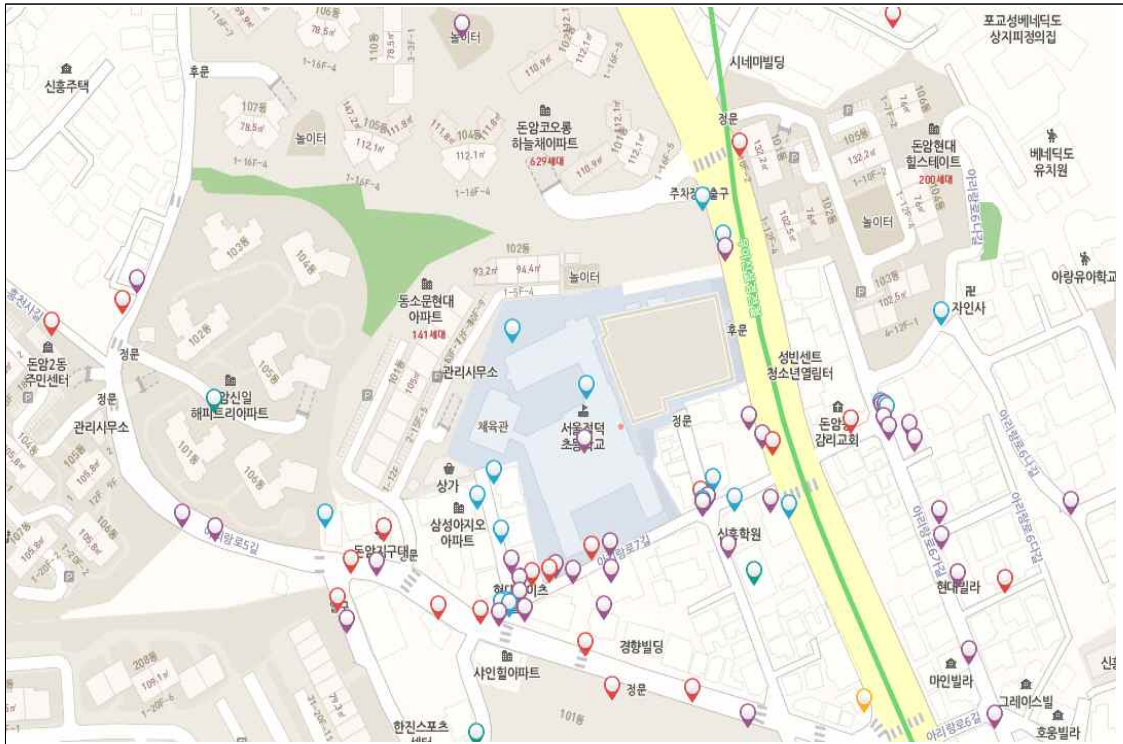
- 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 장 소 : 정덕초 정문 주변 일대
- 대 상 : 정덕초등학생 (30명)
- 참여단체 : 정덕초등학교, 국민대학교
 - 연구진 2인, 매핑보조원 6인(국민대학교 대학생)
- 주요내용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OT진행
 - 정덕초등학교 정문 밖 아동안전을 위해하는 시설에 대해 매핑 실시
 - 초등학생 4~6명과 대학생 1명이 한 조를 이뤄 매핑 실시
- 세부진행

<표 3-6> 정덕초등학교 매핑 시간표

시간	행사내용	비고
08:30-09:00('30)	- 매핑보조원 대상 안전 및 성 관련 교육	국민대학교
09:00-09:30('30)	- 커뮤니티매핑 OT	국민대학교
09:30-10:00('30)	- 조편성 및 동선/지역 분배	국민대학교, 정덕초
10:00-11:20('80)	- 매핑 활동	국민대학교
11:20-12:00('40)	- 결과공유 및 토론	국민대학교, 정덕초



<그림 3-27> 정덕초등학교 매핑 구역



〈그림 3-28〉 정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정덕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총 99개의 매핑 데이터가 확보되었으며 각각 ‘교통안전시설’ 관련하여 21곳, ‘CCTV’ 22곳, ‘19금 환경’ 2곳, ‘불법 주정차’ 3곳, ‘기타’ 51곳이 확인되었음

○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 3-7〉 정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정덕초	수	비율
교통안전시설	21	21%
CCTV	22	22%
19금 환경	2	2%
청소년 유해시설	0	0%
불법 주정차	3	3%
기타	51	52%
총계	99	100%

-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기타’가 52%, ‘CCTV’가 22%, ‘교통안전시설’ 관련이 21%, ‘청소년 유해시설’이 3%, ‘19금 환경’이 2%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정덕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환경이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CCTV의 경우 22곳에 설치되어 전체 매핑 결과의 22%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정덕초등학교 근방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아동안전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정덕초등학교 ‘환경’적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기타’유형이 전체 52%를 차지하며 앞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타’유형의 범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공사 및 전선노출로 인한 위험’, ‘불법부착물 및 낙서로 인한 미관 훼손’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정덕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 수집된 ‘기타’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총 35개의 데이터 중 ‘쓰레기 무단투기’가 17곳, ‘공사 및 전선노출 등으로 인한 위험’이 6곳, 불법부착물 및 낙서로 인한 미관 훼손’이 2곳으로 나타났음



<그림 3-29> 정덕초등학교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

〈표 3-8〉 정덕초등학교 기타범례 세부내용

내용	매핑 수
쓰레기의 무단투기	17
공사 및 전선노출 등으로 인한 위험	6
불법부착물 및 낙서로 인한 미관 훼손	2
전체	35

- 결과적으로 정덕초등학교 인근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 부착물·낙서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외에 공사장 및 전선노출 등으로 인해 실제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장소들도 확인되고 있음
- 아동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한편 정덕초등학교 인근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매핑 데이터는 총 21곳으로 전체 22%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30〉 정덕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교통안전시설)

- 실제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물, 방지턱, 어린이안전 구역 표지판 등 다수의 교통안전시설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3-31〉 정덕초등학교 신호등 미설치(예시)

- 그러나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위의 사진과 같이 표시된 도로 상에는 횡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등·하교의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실제 아이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신호등이 미설치된 도로를 건너는 것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커뮤니티매핑 활동을 통해 제기하였음

4) 돈암초등학교

- 일 시 : 2018년 10월 31일 (수)
- 장 소 : 돈암초 정문 주변 일대
- 대 상 : 돈암초등학교 5학년 7반 (24명)
- 참여단체 : 돈암초등학교, 국민대학교
 - 연구진 3인, 매핑보조원 5인(국민대학교 대학생)

○ 주요내용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OT진행
- 돈암초등학교 정문 밖 아동안전을 위해하는 시설에 대해 매핑 실시
- 초등학생 4~6명과 대학생 1명이 한 조를 이뤄 매핑 실시

○ 세부진행

<표 3-9> 돈암초등학교 매핑 활동 시간표

시간	행사내용	비고
08:30-09:00('30)	- 매핑보조원 대상 안전 및 성 관련 교육	국민대학교
09:00-09:30('30)	- 커뮤니티매핑 OT	국민대학교
09:30-10:00('30)	- 조편성 및 동선/지역 분배	국민대학교, 돈암초
10:00-11:20('80)	- 매핑 활동	국민대학교
11:20-12:00('40)	- 결과공유 및 토론	국민대학교, 돈암초



<그림 3-32> 돈암초등학교 매핑 구역



〈그림 3-33〉 돈암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 커뮤니티 매핑의 결과 돈암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총 71개의 매핑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각각 ‘교통안전시설’ 이 18곳, ‘CCTV’ 가 20곳, ‘19금 환경’ 이 1곳, ‘불법 주정차’ 가 17곳, ‘기타’ 가 20곳으로 나타났음

○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 3-10〉 돈암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결과

돈암초	수	비율
교통안전시설	18	25%
CCTV	20	28%
19금 환경	1	1%
청소년 유해시설	0	0%
불법 주정차	12	17%
기타	20	28%
총계	71	100%

-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형은 ‘기타’ 과 ‘CCTV’ 유형이 각각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교통안전시설’ 이 25%, ‘불법 주정차’ 가 17%, ‘19금 환경’ 이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돈암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환경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돈암초등학교 인근 아동들이 ‘불법 주정차’ 로 인한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음
 - 커뮤니티매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돈암초등학교 인근은 ‘불법 주정차’ 유형이 전체 17%를 차지하며 앞서 석관·장위·정덕초등학교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보도 블럭 불량 등 다수의 데이터가 돈암초등학교와 성신여대역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상가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다른 초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돈암 초등학교에서도 커뮤니티매핑 결과 ‘기타’ 의 유형이 전체 28%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3-34〉 돈암초등학교 반경 100m 매핑 결과

- 돈암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많은 교통안전시설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발견되었음
- 해당 위치는 돈암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길목으로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자주 이동하는 길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35> 돈암초등학교 위험도로

- 그러나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다음의 원인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의 폭이 좁아 차도를 넘어 통행해야 하는 상황
 -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과정에서의 위험
 - 신호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
-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중간에 위치하여 등·학교를 위해 많은 아이들이 왕래하는 장소임에도 아동안전을 위한 도로 및 보행환경이 일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3-36> 돈암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의 경우 지하철역 근처 상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혼잡한 교통상황과 맞물려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는 도로와 교통의 혼잡을 야기함에 따라 아동의 보행과정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이 요구되며, 아동들이 해당 지역을 보행하는 경우 안전과 사주경계에 주의하도록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음



〈그림 3-37〉 돈암초등학교 안전위해장소 밀집지역(쓰레기 무단투기)

- 커뮤니티매핑 결과 돈암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무단 투기’는 위에 표시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해당지역은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해있어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며,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4장.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실행

제1절.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파일럿 테스트

1. 거버넌스 협의체

-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파일럿 테스트는 장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 안전 개선을 위해 성북구 관내 여러 유관기관들이 거버넌스 협의체에 참여하였음
 - 장위초등학교, 성북구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중앙경찰서, 성북소방서, 학부모, 국민대학교 등 성북구 내 아동안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 회의에 참여했음
-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는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의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 ‘거버넌스 툴(tool)로서의 커뮤니티매핑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2차례 진행되었음. 그러나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거버넌스에서 각 기관들은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행정력의 한계와 우선순위의 문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업과의 중복문제, 행정력 투입의 형평성 문제, 역할 조정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 매핑의 역할에 대한 관과 민의 시각차이 극복 문제, 매핑 이후 협업 문제 등이 논의되었음

1) 제1차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1500-16:30(90분 간)
- 장 소 : 장위초등학교 교장실
- 참 석 : 13인(초등학교, 구청, 대학, 소방서, 경찰서 등)

- 주요내용: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의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

〈표 4-1〉 제1차 거버넌스 협의체 참여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이석환	국민대학교
2	김병준	국민대학교
3	하현상	국민대학교
4	임우섭	성북구청
5	임은숙	성북구청
6	고경남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7	박명희	성북소방서
8	김시몬	종암경찰서
9	신영희	장위초등학교
10	정수진	장위초등학교
11	정선영	장위초등학교
12	정길호	국민대학교
13	이기태	국민대학교

2) 제2차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 일 시: 2019년 1월 29일(화) 15:00-16:30(90분 간)
- 장 소: 장위초등학교 교장실
- 참 석: 12인(초등학교, 구청, 대학, 소방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 주요내용: 거버넌스 툴(tool)로서의 커뮤니티매핑의 역할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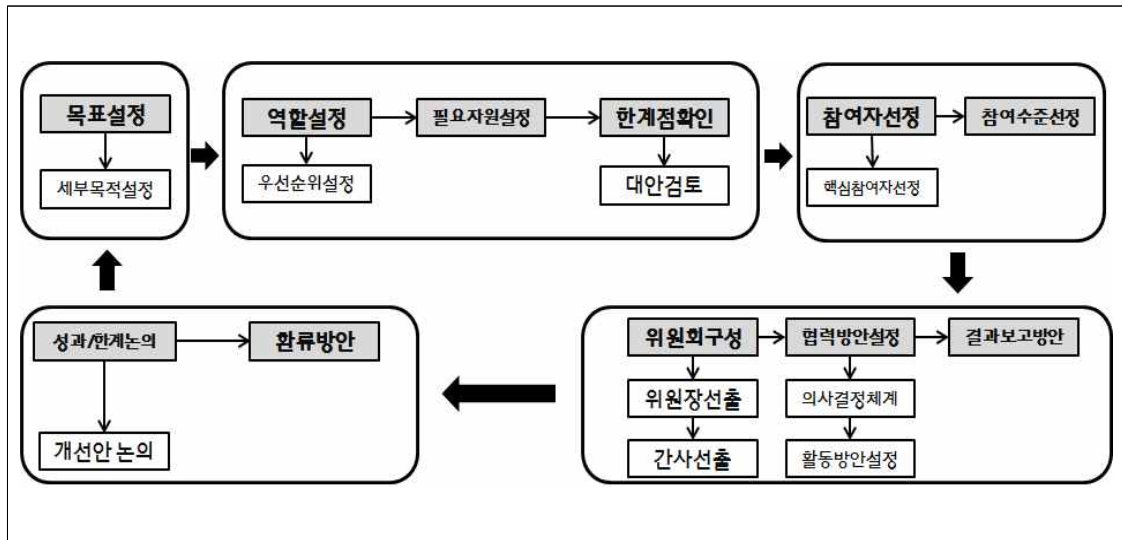
〈표 4-2〉 제2차 거버넌스 협의체 참여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이석환	국민대학교
2	장봉진	가톨릭관동대학교
3	임은숙	성북구청
4	고경남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5	김홍창	성북소방서
6	신영희	장위초등학교
7	정선영	장위초등학교
8	이희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9	김영주	장위초등학교
10	위정란	장위초등학교
11	정길호	국민대학교
12	차진영	국민대학교

2. 장위초등학교 인근 아동안전 거버넌스 실행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매핑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장위초등학교에 대한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시범운영하였음
 - 장위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거버넌스의 핵심참여자인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열의가 높아 장위초등학교를 선정하였음
- 장위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활동 결과와 선생님, 아동과의 인터뷰 결과 등을 통해 학교 시 교통안전과 학교 주변 빈 집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위해요인임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공사 등으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주택가가 밀집되어있고 골목길이 많은 특성상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행이 대단히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또한, 학교 주변에 공사 중인 빈집에 불량 학생들이 들어가 활용함으로써, 화재 및 우범지역으로 변화할 위험이 존재하였음
- 이와 같은 장위초등학교의 지역특성에 따라, 장위초등학교의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교통안전과 우범지역 안전의 2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시범운영하였음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참여지도 제작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주제선정-주민모집-교육-지도제작-활용]의 단계로 진행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계자 토론 및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지역의 실제 문제점들 중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주제인 빈집안전과 교통안전이 선정되었음
- 주제 선정이후의 과정 중 특히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액션플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 아동안전 거버넌스 수립 절차

1) 아동 우범지역 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빈 집)

○ 아동 우범지역 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주체) 자발적으로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관계) 아동안전에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안전에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대상) **정보수집, 현장시찰,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역할들**을(역할) 협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제반 활동을 아동안전 거버넌스로 정의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우범지역 안전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음

〈우범지역에 대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활동정의〉

아동의 위험시설이자 화재위험지역인 빈집에 대한 위험성 정보수집, 현장모니터링, 화재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활동 수행, 제도 및 재정지원으로 정의함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각 현장활동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 빈집화재는 소방서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서 소방서, 장위초,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국민대학교, 교육지원청, 성북구청, 성북사경센터(도시공동체 활동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빈집에서 아동들이 불량난, 폭행 등을 하는 불량행위를 할 소지가 높음
 -소방서, 지역주민 및 학교 측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필요한 공간임
 -대부분 등교 전, 하교 후에 아동들의 진입 가능성이 높음
 -등·하교 시 녹색어머니회와 장위초의 감시 및 통제
 -하교 후의 아동 진입에 대한 지역주민들(주민자치위원회, 방범순찰대)과 소방서의 모니터링
 -점심시간, 저녁시간 및 이후와 같이 모니터링이 소홀한 시간대 관리를 위해서 교육청과 성북구청의 정책적 지원 필요
 -빈집관리 및 접근통제를 위한 성북구청과 소방서의 접근 경고판 설치필요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장위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_k: 매핑활동 참여, 학생들 주의 및 정보 전달, 등하교시 빈집 접근 통제
 -녹색어머니회_k: 등하교시 빈집 접근 통제
 -성북소방서_k: 하교후 모니터링, 화재발생시 진압, 접근경고판 설치
 -국민대학교_k: 매핑활동 참여, 회의주체, 빈집화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주민자치위원회_k: 방과후 수시 모니터링, 빈집활용 대안 제시 및 참여
 -성북구청: 빈집관리를 위한 경고판 설치 지원, 빈집관리를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빈집관리를 위한 재정 및 정책 지원
 -성북사경센터: 빈집 활용 대안제시 및 참여
 *참조: _k: 핵심참여자를 의미함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들 명확하게 인식하고 빈집의 위험공간 신고, 매핑, 예방활동, 화재발생, 대응활동, 복구활동, 활용,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각자의 중요한 역할 확인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함(매핑활동, 등하교시 빈집접근통제, 정책적 지원 등)
 -같이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력방식 논의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 대안을 제시함

- 인력적, 재정적, 제도적, 시간적 한계 등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을 논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결정함
- 각 이해관계자들의 한계와 스스로 해결가능한 대안논의
- 상대방의 협력적 활동의 한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 제시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현장활동 위원회를 구성함

- 장위초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 녹색어머니회
- 성북소방서
- 국민대학교
- 주민자치위원회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거버넌스 위원회의 동일한 선출방식을 통하여 3선까지 가능함

- 장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소방서, 국민대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방식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제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명을 지명함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빈집화재 발생에 대한 예방, 대응, 대안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함(29일날 거버넌스 위원회는 과제의 일환으로 소집하였지만 2019년 2분기 회의때부터는 절차에 따라 추진함)
- 빈집 등 아동안전위협시설의 매핑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등하교 시에 빈집 접근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저녁시간 및 방범순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간에 통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구청과 교육청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논의

- 위원 또한 필요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 1/2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는 1/2 이상의 서명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2019년 1차 거버넌스 정기회의를 1월 29일날 하는 것으로 확정함
- 지난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거버넌스 활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한계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아동 위험지역인 빈집화재 예방활동, 대응, 화재발생 시 복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봄
- 시뮬레이션을 위한 날짜를 확정하고 실시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 참여를 원칙으로 함
- 1분기 회의때는 1년간의 현장활동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착수를 결정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위원회는 현장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 때 실시함

- 이번 1분기 회의 때는 5개 핵심관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기관의 모든 담당자들이 같이 논의를 함

- 2019년의 현장활동 계획을 구체화시킴

- 빈집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4개 분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분기 때 발대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번 해에 1분기 발대식을 갖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면 2분기 회의 때는 발대식을 갖는 것으로 확정하고 구체화시킴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2019년부터 성과점검회의는 실시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성과점검회의에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2) 아동 교통안전 거버넌스 액션플랜(등하교길)

○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활동정의

- 아동안전의 위해 요소인 좁은 주택가 도로의 차량통행 급증으로 인한 통학 아동의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 정보 데이터 수집(성북구 커뮤니티 매핑 통합 플랫폼), 현장모니터링, 교통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구난 활동 수행, 제도 및 재정지원으로 정의함

○ 1단계: 목적 및 목표 설정

- 9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각 현장 활동의 목적을 논의하여 명문화함

-교통안전과 관련한 경찰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서 경찰서, 장위초,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국민대학교, 교육지원청, 성북구청, 성북사경센터(도시공동체 활동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세부적 목표 설정(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시간제한 등 고려)

-장위초 주변은 지역 개발(도로 개발)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차량 수로 인해 골목길 교통사고율 높음
-특히 골목길 통행 차량의 속도위반 및 등하교 아이들의 활동 행태(성인보다 낮은 주의력)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아동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임
-경찰, 지역주민 및 학교 측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필요한 공간임
-대부분 등교 전, 하교 후에 특정 시간대 더 높은 관심과 취약지역 발견이 필요한 상황임(아이들 스스로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실시간 보고 및 교사와 학부모의 정보 제시)
-등·하교 시 녹색어머니회와 장위초의 감시 및 통제
-골목길 진출입 차량에 대한 지역주민들(주민자치위원회, 방범순찰대)과 경찰의 모니터링
-교통 모니터링이 소홀한 시간대 관리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성북구청의 정책적 지원 필요
-골목길 교통안전 및 속도통제를 위한 성북구청과 경찰서의 안내 경고 설치필요
-교통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소방서) 체계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훈련 및 신속한 통신 연계 훈련 마련 필요

○ 2단계: 참여자들의 역할과 역할별 우선순위, 필요자원, 한계점 확인 및 대안 검토

- 목표실현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 역할별 순위 선정

-장위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_k: 매핑활동 참여, 학생들 주의 및 정보 전달, 등하교 시 학교주변 골목길 교통 통제
-녹색어머니회_k: 등하교 시 학교주변 골목길 교통 통제
-중암경찰서_k: 등하교시 합동 모니터링, 교통 통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 국민대학교_k: 매핑활동 참여, 회의주체, 교통안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 주민자치위원회_k: 수시 모니터링, 근본적인 골목길 교통문제 해결 대안 제시 및 참여
- 성북구청: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경고판 설치 지원, 교통관리를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위한 재정 및 정책 지원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교통안전 대안제시 및 참여
- *참조: _k: 핵심참여자들 의미함

- 각 참여주체들이 핵심 역할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들 명확하게 인식하고 교통안전 위반 신고 및 취약 지역, 매핑, 예방활동, 사고발생, 대응활동, 구난활동,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각자의 중요한 역할 확인
-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함(매핑활동, 등하교시 골목길 교통문제, 정책적 지원 등)
- 같이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력방식 논의

- 각 기관의 참여자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 대안을 제시함

- 인력적, 재정적, 제도적, 시간적 한계 등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을 논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결정함
- 각 이해관계자들의 한계와 스스로 해결 가능한 대안 논의
- 상대방의 협력적 활동의 한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 제시

○ 3단계: 거버넌스 참여자 선정과 참여수준 설정

- 역할을 기반으로 핵심참여자를 선정하고 핵심참여자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 위원회를 구성함

- 장위초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 녹색어머니회
- 종암경찰서
- 국민대학교
- 주민자치위원회

- 핵심 참여자는 활동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머지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필요시 요청을 통하여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의무화함

○ 4단계: 거버넌스 실행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거버넌스 위원회의 동일한 선출방식을 통하여 3선까지 가능함

- 장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종암경찰서, 국민대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함

- 위원장은 핵심 참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내부추천을 받아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함
- 선출방식은 핵심참여자 2/3이상 참여, 복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공개 최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을 선정함. 동일할 경우, 재 투표로 결정함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함

<기본방향>

- 민간의 실질적 참여 보장 : 단순 자문 역할이 아니라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부처의 참여 범위 설정
- 계획수립과 모니터링의 전문성 확보 : 과학적 의사결정,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지원함

<교통안전 장위초 커뮤니티 매핑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안)>

- 명 칭 : (가칭) 장위초 교통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 위 상 : 성북구청장 직속 위원회(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속 위원회)
- 위원구성 : 상기 참여 주체 당 1~2명
- 위 원 장 : 교통안전 위원회 민관의 공동위원장(예를 들어, 종암경찰서장 & 장위초학부모위원회 회장)
- 간 사 : 상기 방식으로 선출

<거버넌스의 운영(안)>

- 정기회의 : 최소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임시회의 : 위원장의 소집요구,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활동진행 방식>

- 위원장은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정기회의 외에도 임시회의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교통안전 발생에 대한 예방, 대응, 대안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함(1월 29일 거버넌스 위원회는 과제의 일환으로 소집하였지만 2019년 2분기 회의 때부터는 절차에 따라 추진함)
- 교통안전 위해시설의 매핑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등하교 시에 골목길 차량 접근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등하교 시간에 외에 안전 통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및 합의
- 성북구청과 교육지원청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논의

- 위원 또한 필요 시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 1/2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는 1/2 이상의 서명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첫 번째 달(1, 4, 7, 10월)의 첫 번째 주에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별도로 12월 2째 주 전에 연간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함
- 분기별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의 활동을 점검 및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여 개선안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함

- 2019년 1차 거버넌스 정기회의를 1월 29일에 하는 것으로 확정함
- 지난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거버넌스 활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한계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아동 위험지역인 교통안전 예방활동, 대응, 교통사고발생 시 대응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봄
- 시뮬레이션을 위한 날짜를 확정하고 실시함

- 1분기 회의, 12월 성과점검회의 때는 협력기관 담당자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1분기 회의 때는 1년간의 현장 활동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착수를 결정함
- 의사결정은 2/3이상 참석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8개 기관은 모두 필요시 시설 및 장소, 인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 위원회는 현장 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연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기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발대식을 1분기 회의 때 실시함

- 이번 1분기 회의 때는 5개 핵심관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기관의 모든 담당자들이 같이 논의를 함
- 2019년의 현장 활동 계획을 구체화시킴
- 교통안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4개 분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분기 때 발대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번 해에 1분기 발대식을 갖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면 2분기 회의 시 발대식을 갖는 것으로 확정하고 구체화시킴

○ 5단계: 환류 및 개선

- 12월 둘째 주 전에 분기별 회의와 별개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년도의 연간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2019년부터 성과점검회의는 실시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성과점검회의에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발표 및 배포함
- 1분기 정기회의, 성과점검회의는 4개 영역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협력적 연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아동안전거버넌스에 대한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음
 - 기존의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가 제도적인 부분 혹은 운영적 부분 중 한곳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지 못하거나 운영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
 - 하지만,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는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버넌스를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가 활발히 발생하도록 거버넌스를 정의하였음
-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를 문헌검토를 통해 정의한 뒤, 거버넌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계하였으며,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음. 또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참여수준을 설정하여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의 프레임을 설계하였음
 - 기본적으로,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원칙과 방향은 아동안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음
 -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에 기반하여, 성북구 아동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역할과 참여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문헌검토를 통해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정의, 방향, 원칙, 참여자 등을 설계한 뒤, 아동안전 관계기관의 실무자, 학부모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 공유, 참여자들의 역할 및 필요 자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할 수 있었음

- 문헌검토 및 실무자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델설계 및 거버넌스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음
 - 거버넌스 모델설계 단계에서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활동영역을 교육/홍보영역, 현장활동영역, 시설정책영역, 연구 및 회의영역의 4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특징에 맞게 참여자와 역할을 설계하였음
 - 이후, 4개의 활동영역에 따라 5단계(목적 및 목표설정 - 역할, 자원 파악 및 대안검토 - 참여자 선정 및 참여수준설정 - 거버넌스 실행 - 환류 및 개선)로 구성된 액션플랜을 작성하였음
 - 구체적으로, 활동 세부영역에 따른 액션플랜의 작성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 초기 단계부터, 문제 해결 및 환류단계까지의 구체적인 참여자 역할 및 협력방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동시에, 아동안전의 대상자인 성북구 관내 초등학생들과 커뮤니티 매핑활동을 진행하여,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였음
 - 아동안전의 실질적 대상자인 초등학생들과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함으로써,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동의 시각에서 안전위해요인을 바라봄으로써, 아동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였음
 - 또한, 초등학생들이 직접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아동안전위해요소의 발굴부터 위해요소 해결과정을 경험하여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 매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문헌검토, 세미나, 거버넌스 모델설계 및 액션플랜 작성, 커뮤니티 매핑활동의 결과를 종합한 뒤, 성북구 관내의 장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의 파일럿 테스트를 2차례 진행하였음
 - 1차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장위초등학교와 관련한 아동안전 관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아동안전 위해요인으로 발굴된 교통안전, 보행안전, 빈집화재에 대한 아동안전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2차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아동안전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아동안전 증진방안에 대한 기관의 역할 및 필요자원, 한계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 2차례에 걸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및 액션플랜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 액션플랜을 설계하였음

제2절. 아동안전 거버넌스 파일럿 테스트의 정책적 함의와 개선사항

1.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개선

- 지역사회에서 아동안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필요
 - 아동안전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음
 - 거버넌스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핵심 참여자들이 아동 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핵심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다소 미흡함
 - 아동안전 거버넌스가 각 이해관계자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일상적 업무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빈번하게 마련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보소통과 공유 강화

- 신속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채널 필요
 - 아동 안전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 매핑활동, 거버넌스 회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함
 - 전자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공유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매핑을 통하여 안전 취약지구에 대한 구체적·즉각적 정보공유 필요
 - 커뮤니티 매핑이 안전 취약시설, 공간, 사람 등의 다양한 취약인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유용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집단 지성을 모으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매핑이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매핑정보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 간에 투명하고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는 매핑을 실시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 주민과 직능단체, 관련된 정부기관, 학교와 학생 등이 협력적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대학과 초등학교, 구청과 소방서 및 경찰청, 지역사회 NGOs와 활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서 가장 연관성 있고 필요성을 갖는 조직 및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매핑을 적극적으로 최신화하고 구체화시키면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매핑을 하는데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훈련과 조직구성으로 실행력 강화

- 명확한 역할설정을 기반으로 원활하고 협력적으로 거버넌스 활동 및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문서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액션플랜이 있지만 정확하기 인지하지 못하거나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는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 거버넌스 영역(교육·홍보, 현장활동, 시설 및 정책지원, 연구 및 회의)별로 매핑 및 거버넌스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훈련을 통하여 상황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과 책임성 있는 위원장 선출필요
 -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함
 - 협력적 관계망을 통하여 역할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 및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선출과 임기,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서 거버넌스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유하여 원만히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위원회가 책임감있게 역할을 하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위원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기관 구성원이 담당할 필요가 있음

4.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 및 본연의 업무로 편입

- 과도한 기존업무로 인하여 아동안전 거버넌스 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담당자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함
 - 아동안전 거버넌스가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
 - 따라서 기존업무에 아동안전 거버넌스 업무를 포함시키면서 기존 업무의 부담을 부분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 아동안전 거버넌스 담당자를 정확하게 정하여 인수인계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회피 및 업무지연의 발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전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기존 업무에 편입시켜서 담당자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업무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배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록

1. 제1차 세미나 결과(전문가)

1) 세미나 내용 전문

I . Session 1

1. 이석환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 매핑이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내 대학의 역할을 고민해볼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
- 현실세계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북구 관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제2의 시티즌으로서, 지역의 이슈에 직접 뛰어들어 정보를 생산해내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를 생산해내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이끌어내는 기제로서 대학의 역할, 대학생의 참여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지역주민들이 영감을 얻고 커뮤니티 매핑에 뛰어들도록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어떻게 하면 대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시티즌’을 깨워 매핑과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안전 거버넌스 세미나는 이에 대한 해법,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
- 국민대의 경우 수업을 통해서 매학기 200-300명의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 맵핑센터 등과 협력하여 매핑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구역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 맵핑”에서 맵핑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떻게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를 이것에 참여시킬 것인가의 측면이며, 이 과정이 관 주도로 수행되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는 커뮤니티 맵핑이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의 대학이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국민대학교에서 이를 주도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발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현할 것인가 ?

1-1. 지정토론

1) 성균관대학교 정규진

-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대안, 아래에서부터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음
-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행정학에서 지난 50년 동안 중요한 문제이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쉽지가 않음
- 사회적으로 취약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지리적,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 사실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어려움.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보다는 참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일종의 교육 안에 학습을 통해 초, 중, 고, 대학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주민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모임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열심히 노력하거나 참여해주는 사람들에게 어워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결국 문제해결에 대한 인지를 높이게 하여, 작은 시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바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중간관리자들에게.....참여자에게는 레드테이프를 없애서 주민참여 기반 캠페인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방식들 많은데 실제 참여가 떨어지는 것은, 이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임
- 자치센터부터,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어떻게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외사례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재난이나 안전 등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매핑과 유사한 정책을 실험한 적 있는데,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걸어다니는 출퇴근, 등하교길에서 발견하는 위험을 사진 찍어 올리게 되면, 사진이 자동으로 서버에 접수가 되어서 관리당국이 이를 접수하고 해결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실험이었음.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 리스크와 소셜미디어를 결부시켜서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임
-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차문제, 불법주정차 등으로 지속적인 트래픽 일어나고, 아이들 안전도 위험하고 가시거리 확보도 안되고 하는 등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인프라 구축, 예산, 전문 인력 확보 등 성북구나 유관기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히는 것이 많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cctv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cctv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관찰되는 불법적인 것을 리포팅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음. 결국 클라우드소싱, 집단지성과 집단자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성북구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매핑관련 라이선스라든지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공약과 92개 사업부문에서 고민하는 것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잘하려면 구청장 리더십과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성북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야함
- 종합법과 개별법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실 성북구가 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주민자치 사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정책적 과제로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함
- 시티즌 인베스트먼트 와이파이, 벤치, 불법주정차 등 니즈를 인지하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얼마를 요구하겠단든지 등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의 합리성이 확보되면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NGO)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게 하는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간자로서 시티즌의 대안을 집행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모델은 미국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델임. 성북구 내에 좋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 회원들의 회비나 도네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구조를 중간관리자로서 성북구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임완수 박사

- 시민참여형 GIS로 나온 것이 커뮤니티매핑임
- 커맵에서 가장 중요한건 사람과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음
- 사람들이 처음에 참여를 안 함. 그런데 참여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대해 알게 되고 지역사회가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됨
- 장애인분이 커뮤니티매핑 활동을 위해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니 많은 것을 느낌. 이분들에게는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보니 대단히 열심히 수행함
- 중요한건 커뮤니티 맵핑한다고 사람을 새로 모으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실패의 경우임. 이미 있는 모임인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이들에게 접촉을 해야 함

- 즉 주민의 필요를 알아야하고, 기존 모임을 활용해야 하는 게 핵심임
- 비영리단체 아닌 곳도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이 있음.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함
- 지금 커뮤니티 매핑이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임팩트와 변화, 미디어 활용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함
- 주민이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하니까 바뀌게 느끼는, 교육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량강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국민대가 이 지역의 리빙랩(living lab)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핑을 하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좀 아쉬운데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함

3) 김병준 교수

- 부모로서 생각이 드는 건 우리사회도 위험이 도처에 있다는 생각이 듭
-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
- 학교에 어머니회가 있는데,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참여가 가능한데 오후에는 못 옴. 왜냐 애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 이것도 사용자 중심에 대한 생각이 아직 내면화가 안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시민참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예전의 연구들은 온라인시민참여가 많이 배우거나, 시간 많은 애들이 한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지금의 참여는 다른데, 예를 들면 자전거동호회는 하나도 참여 안 했다가 자기들 자전거길 막았다든가 하면 집단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임
- 정치적, 정책적 목적이 있는 그룹이 아니더라도,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참여가 이끌어내질 수도 있다는 것임
- 또 하나는 대학의 역할인데, 과거에는 PPP(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개념을 활용하였는데, 이 개념에는 한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개념이 PPA(퍼블릭 프라이빗 아카데미)임
- 교육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게 곧 대학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
- 대학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대학을 통해 담론과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회의 논의를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보통 관은 임계치 도달할 때까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은 이를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mou맏고 참여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낌
- 녹색어머니회를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을지 맞출 때까지는 이 분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시키는게 중요하고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필요. 경제적 유인이나 제도적 유인도 필요함

II. Session 2

2. 김미숙: 아동안전 및 손상현황과 정책 과제

- 문제제기 : 아동안전사고율이 증가한다는게 문제임. 우리나라는 아동안전사고율 특히 교통사고, 청소년 자살율이 높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 안전인프라, 교육문제 등이 이유임
- 아동사고는 부모의 근로손실, 장애 발생 시 사회적 비용 등 문제 만들어냄
- 기존은 사후대응적, 책임소재 불명확, 국민인식도가 낮고,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미흡함
-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사실 인식과 실제 나타나는 행태,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집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는데, 사람들 인식은 골목길 등에서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 보호자의 안전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 근데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는 것에 비해 참여율은 낮게 나타나는 괴리가 존재함
- 근데 분석해보면 사망률은 떨어지는데 손상율은 급증. 그렇기 때문에 아동안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
- 대상별 차별화 전략,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아동손상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손상 감시체계 및 손상데이터 구축이 필요. 컨트롤 타워로써 거버넌스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1. 지정토론

1) 오미숙(성북구 교육안전청소년 담당관)

- 저는 어린이, 청소년, 학교교사, 학부모,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활동을 한다. 성북구 교육안전 청소년 담당, 아동친화도시 사업 펼치고 있고 아동권리 증진의 맥락에서 놀 권리, 전용공간 조성, 공간 내 안전하게 머물고 커뮤니티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음. 여기서 또

중요한게 아동의 참여라고 볼 수 있음

- 참여,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 소극적인게 사실인데 아동들은 현장에서 많이 참여를 시도해보고 있고 관내 대학과 연계 맺어서 청소년들이 지역자원인 대학생들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아동 청소년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으로 성장하여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참여 속에서 실제로 행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을 목격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한 맥락에서 성북구에서 아동 청소년들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아이들도 안전 체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어린이 의회, 구정 참여자,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 생각하는 것보다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이 있고 체제 속에서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음
- 거버넌스와 안전교육이 제도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구정참여단에 아동지킴이단이 있음. 시범적으로 아동협력평가를 당사자들이 직접해보는 프로젝트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함
- 실제 당사자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임(필요성과 연결)
- 이게 우리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아이들과 실제로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해보면 아이들이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교통 관련), 정보를 올리는(과속방지턱 등) 플랫폼을 원하기도 함.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의견에 대한 일련의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실제로 참여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함
- 시민인권위 시스템이 있는데 형식적인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아동안전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가로등도 없고 가로수는 아이들 키만하고 이 경우에 아이들이 안보인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바뀌는 시스템과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들러리로 거버넌스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참여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어야만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했을 때 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함
- 사후 대응적인 부분도 당연히 예방이 중요한데 사실 요즘 형식적이고 페이퍼로만 존재하는 안전대책 들이 많다. 실제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 페

- 이퍼 상으로만 대책을 세운 것들이 많음. 안전대책에서 특히 많이 존재함
-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전이 관리와 통제에 의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호 장구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것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사고가 대부분 뛰어놀거나 자전거사고 많다고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얘기함

2)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 어린이안전 TF를 몇 년 다녔는데도 정책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 과제로 하고 있고, 몇 년간 공부를 해보니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2004년에 인구 10만 명 당 인구사망률 높다는 관점에서 who 손상감시 범위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이 나왔음
-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린이 제품특별법, 식품안전법, 어린이보호구역법 등이 이루어졌으나 종합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음. 박근혜 당시 행안부에서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함
- 교육부는 교육개발원 등에서 어린이관련 콘텐츠 만들고, 복지부도 하고,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음
-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정부가 주기 쉬운 정책들이 다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국민조사에서 안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얘기가 많음. 정보수단의 문제가 있음
- 사고가 나서 시의성이 높아진 주제에 대해서만 단발성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지역사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린이안전에서는 중요함.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높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안전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사실 할게 별로 없음. 안전키트 제공해주는 등이 최선임. 사실 정책의 개입이 어려움.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개입이 주요할 수 있다는 것임
- 지역사회가 역할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주가 시민사회 뿌리가 깊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음. 광주의 안심마을임

- 부영이 가게(명칭)들을 지정해서 아동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음. 부모가 없을 때, 라면 끓이다 손 텐 아이가 부영이에게 들어가서 도움받는 사례도 있음. 즉 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존재함. 다양한 활동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음
- 안전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변화는 관이 주도하지 않아도 변화를 창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는데 학교가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수행해서 MOU를 도출하고 조율하는 실험적 사례들이 있음. 근데 막상 우리나라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관이 보면 참여 하는것이 많은데 연구자가 하는 것은 별로 참여안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니까 관이 변화를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를 어느정도 이끌어내는건 관이 참여해주고 조정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음
- 블랙박스로 단속하는 사례들도 있음. 블랙박스로 할 수 있는 단속에 대해서는 미리 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 미리 참여자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일정 시간대에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블랙박스를 두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있음. 이런 내용들이 관이 나갔을 때 단속 나가는 건 반발이 심하지만 시민들이 협약을 통해 단속하는 것에 참여하는 건 반응이 좋았던 경향이 있음
-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높은 수준의 참여하겠다는 답안이 돌아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으니, 본연구가 잘 수행되었으면 함

(3) 하현상

- 아동은 본인의 부주의가 높아서 안전교육이 필요함
- 사실 지역사회 환경개선의 목소리는 시민에게 나오는 것임. 그래서 학생교육과 함께 시민교육이 필요함
-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회가 주어 졌을 때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실제 필요한 것은 시민교육일 수 있음
- 대학이 사실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민이 목소리를 내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교육방식이 중요함. 현재는 시민교육이 집체교육 방식으로 하는 데 사실 실 내에서 집체교육 하는 것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 현장에서 직접 가서 놀이터의 활용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관리와 통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안전교육도 현장에서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 없다고 생각함
- 구청이나 대학교 이런 측면에서 접근 하는게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구조, 실용성 얘기가 많은데 안전 관련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있기는 있음. 사실 대부분이 정부관련 조직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보조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조직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음
- 실제로 주민이 뭘 하는 조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냥 뭐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행동하는 조직이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양한 조직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는, 행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거버넌스에 다양한 형태의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학교가 다양한 조직 만들 수도 있고, 구청이 만들 수도 있고, 주민이 만들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1~2개의 민간조직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2) 세미나 사진



세미나 시작



발표 모습



토론 모습



토론 모습

3) 발표자료

(1) 이석환(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2018.07.12.

국립대학교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1>> 커뮤니티매핑

Communitymapping(커뮤니티매핑)

Community : 커뮤니티 + Participatory : 참여를 통한 + Map : 지도 + -ing : 만들기

커뮤니티매핑의 장점

- 온라인 매핑을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에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음
- 높은 접근성을 통해 집단지성의 활용 및 거버넌스 구축, 정보격차 해소에 효과적임
- 참여를 플랫폼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각지대를 주민의 참여로 해소할 수 있음

교육 (Education) 효율 (Efficiency) 참여 (Engagement) 효과 (Effectiveness) 역량강화 (Empowerment) 평등 (Equity)

가치효과(6E)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1>> 매핑 사례 개요

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1. 남산초등학교
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2. 송암초등학교
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3. 성북초등학교
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4. 성북초등학교
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5. 성북초등학교
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6. 성북초등학교
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7. 성북초등학교
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8. 성북초등학교
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9. 성북초등학교
1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0. 성북초등학교

- 서울시 성북구 관내 29개의 초등학교 경운 기준 반경 300m의 구역
- 매핑 범례는 매핑 전문가의 FG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함.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2>> 수행과정

- ① 초등학교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커뮤니티매핑 대안제안 선정
- ② 커뮤니티매핑 오리엔테이션
- ③ 매핑 서버의 사전 세팅 및 커뮤니티매핑 서버리스 구성
- ④ 초등학교 주변 등거리 커뮤니티매핑 실시
- ⑤ 커뮤니티매핑 결과 분석 및 커뮤니티매핑 결과제출
- ⑥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1>> 분석개요

연번	항목	세부항목	데이터 수(개)
1	교통안전시설	통행보도	331
		신호등	298
		교차로방화벽	430
		어린이보호차량	253
	합계	1,312	
2	청소년유해시설		1,197
3	19금 환경		298
4	불법주정차		1,585
5	CCTV		1,142
6	기타		867
	합계		6,401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2>> 범례분석

- ① 교통안전시설 범례
- ② 청소년 유해시설 범례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2>> 범례별 분석

- ③ 19금 환경
- ④ 불법주정차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2>> 범례별 분석

- ⑤ CCTV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3>> 학교별 분석				01>> 분석 요약			
1. 교통안전시설 법적 - 횡단보도: 시월개천초, 시월송원초, 시월고교초, 시월가야초 - 신호등 : 시월김원초등학교 - 교속감지책: 시월개천초, 시월전달초, 시월장미초, 시월관동초, 시월문수초, 무주초 - 어린이보호구역: 시월이매초, 시월전통초  2. 청소년유해시설 법적 - 시월여중초, 시월상선초, 시월마아초, 시월동신초, 시월정자초, 대평초 3. 19급 환경 법적 - 시월상선초, 시월마아초 4. 불법주정차 법적 - 시월문안초, 시월상선초, 시월전통초, 시월송원초, 시월김원초, 시월가야초, 시월물대초, 시월말린초, 시월장미초, 시월정자초, 시월문수초, 정릉초, 대평초, 대암초 5. CCTV 법적 - 시월송원초, 시월마아초, 시월송덕초, 시월송계초, 시월정자초, 시월정미초, 시월문수초, 무주초				· 주거 형태별 특징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청소년 유해시설’과 ‘19급 환경’이 적었고, 단독주택 및 빌라(다세대, 연립) 밀집 지역은 ‘불법주정차’, ‘청소년 유해시설’, ‘19급 환경’, ‘CCTV’가 아파트 밀집 지역보다 많이 매칭되었다는 경향이 있었다. · 이를 29개(공립 24개고, 사립 5개고) 초등학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학교별로 아동 위험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소결을 통해 이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제시하였음(세부 사항은 최종보고서 참고). ·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성북’ 슬로건에 걸맞게,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과 관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부분에서 아동안전 제고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함(일례로, 가장 많이 매칭 된 불법주정차 문제와 같은 경우는 수 년 간 끊이지 않는 민원 중에 허나임.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요원의 부족, 경찰서와의 협업 부족 등의 이유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협의모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발전				‘학교와 선생님의 입장에서서는 행정적 업무의 부담이 큼니다.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모두 한걸이지만, 행정적 부담이 있다면 하기 힘듭니다.’ (A 초등학교 안전담당교사) –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 어떻게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아동안전 및
손상현황과
정책과제**

2018. 07. 12. (목)
김미숙, 서울기독교대학교

본고는 김미숙, 이주연, 김지민, 정윤경, 서울대병원(2015).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한국보건사
회연구소) 연구보고서 발표

Contents

- 문제제기
- 아동안전과 손상의 개념
-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 아동손상 현황
- 정책과제

문제제기

아동안전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지님
- **적은일 노력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지속
적으로 감소함**
 -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 2005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수립
 - 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2.4배 가량 감소함
- **아동안전사고율**
 - 선진국과는 달리 아동안전사고율은 증가
 - 특히 교통사고 및 자살률이 높음

아동안전

• 안전사고 발생 원인

- 안전불감증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놀이공간의 축소
- 새로운 놀이용품 출현
- 게임 및 놀이문화 발달 등 과거에 비해 위험에 과감해짐
- 주5일제 수업으로 놀이 시간 증가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아동이 방치됨
- 가정의 안전교육 부족

5/40

아동안전

• 안전사고 결과

- 부모의 자녀간병으로 인한 근로손실
- 장애 발생시 사회적 비용 조래

• 기존 안전대책의 한계

- 예방보다는 사후대응적
- 부처간 책임소재 불명확
- 법제도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음
- 각종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미흡

• 근거에 기반한 예방 대책 필요

6/40

연구주제

• 연구주제

-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여 정책도출
- 아동손상현황 파악
 - 아동손상의 유형, 주요 특성 분석
 - 특히 중증 손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손상기전, 대상자 특성, 발생시기 등 파악
- 아동안전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
 - 아동손상을 예방 및 대응하는 전략 수립
 - 지역사회 역할 제언

7/40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국민인식의 중요성

•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임
- 이에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여 정책도출

•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방법

-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의 안전 정도
- 안전행동
- 안전교육 참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9/40

조사개요

• 대상:

- 아동가구 1,005명
- 비아동가구(일반가구)1,000명

• 주요 조사 내용:

- 우리사회 안전 정도, 안전행동실천
- 안전사고 경험, 안전교육
- 안전사고 예방방법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2015. 11.)

10/40

우리 사회의 안전정도

• 아동가구 및 비아동가구 모두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가 보통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편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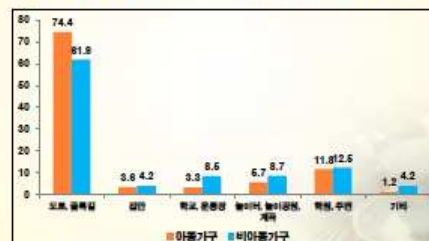
- 평균: 아동가구 3.42, 비아동가구 3.40 (5점 척도)
-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11/40

아동안전사고로 부터 위험한 장소

- 아동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모두 도로 및 골목길을 지목
 - 특히 아동가구가 도로 및 골목길을 더 많이 지목함
-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집안의 비율은 매우 낮음
 - 이는 우리사회의 아동안전 장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함
-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장소가 학원 및 주변임
 - 대다수 아동이 방과후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한 불안이 많음을 나타냄.



12/40

우리 사회가 아동에게 위험한 이유

- 우리 사회가 아동에게 위험한 이유는 아동가구는 **법규 미준수**에 대한 **마치벌과 시민의 법규 미준수**를 가장 많이 지적함
 - 법규에 대한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음
 - 아동가구는 **위험한 놀이 및 환경**도 지적함
- 비아동가구는 **안전교육 미흡**을 가장 많이 지적



13/40

안전행동 실천 정도

- 안전행동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임
 -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는 35% 내외로 파악되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헬멧 착용률은 극히 낮음
 - 자녀의 착용률은 27.9%, 성인 착용률은 20.2%로 우려할 수준임
- 도로교통법에 제시된 6세미만 아동의 카시트 이용률은 62.5%로 저조함
 - 아동가구가 시민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행동 실천률은 낮은 상황



14/40

아동안전사고 경험

- 아동안전사고 경험은 **아동가구가 더 많음**
 - 아동가구 11.4%, 비아동가구 7.7%임
- 기전별로는 **기타, 추락, 교통사고, 베임, 화상** 등의 순임
 - 비아동가구는 **교통사고, 추락, 기타, 베임, 중독**의 순임



15/40

가정내 응급처치 여부

- 가정내 응급처치 실시는 아동가구가 33.0%로 비아동가구 18.2%보다 높음
 - 아동가구의 실시율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다수의 가구가 있음
 -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16/40

사고 발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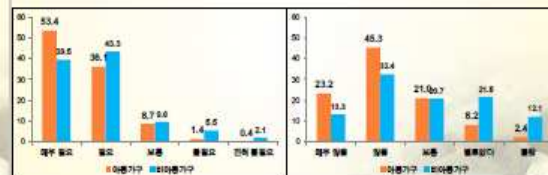
- 아동안전사고 발생 이유로는 **본인 부주의**가 가장 많이 지적됨
 - 그 다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지적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환경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함
- 아동가구의 경우 **보호자의 부주의**도 11.3%나 되고 있어,
 - 아동보호시 보호자의 보호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17/40

안전교육 필요성 및 참여의향

- 아동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 대부분인 80% 이상**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특히 아동가구가 필요성을 약간 더 높게** 지적함
- 실제 안전교육 참여 의향은 필요율에 비해서 낮음
 - 아동가구가 참여의향을 더 높게** 지적함(68.5% 대비 45.7%)



18/40

바람직한 안전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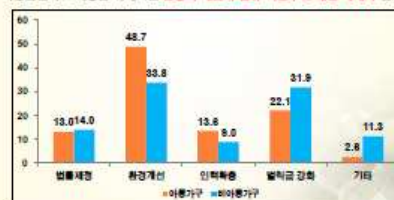
- 바람직한 아동안전교육 방법은 두 집단이 차이를 보임
 - 아동가구는 **학교교육**을 선호 (자녀 교육 포함)
 - 비아동가구는 **TV 캠페인과 공공기관의 시민교육** 선호
- 즉 대상별로 **차별화된 안전교육방법**이 필요함을 시사



19/40

아동안전사고 예방방법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도 두 집단의 차이를 보임
 - 아동가구는 **환경개선**을 48.7%로 가장 많이 지적
 - 아울러 **법규 미준수 시 벌칙금 강화**를 22.1%가 지적
- 비아동가구는 2항목을 비슷한 비율로 지적
 - 환경개선: 33.8%, 벌칙금 강화: 31.9%
- 인력확충 및 법률제정은 응답은 소수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과 법규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



20/40

아동손상 현황

아동안전과 손상의 개념

• 안전

- 물리적, 물질적 혹은 도덕적 **위협이 없는 상태**나 상황
- 위험으로부터 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 손상 (UN의 정의)

- 신체가 강한 에너지에 의해 **해를 입은 상태**
 - 폭력 및 성폭력, 전쟁,
 - 자살과 자해, 교통사고,
 - 넘어짐과 다짐,
 - 스포츠 및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 **비의도적 안전사고** 등

22/40

데이터 및 주요 분석내용

• 데이터:

- 119 구급일지
 - 성, 연령 및 인구사회학적 정보 포함
 - 손상 발생에 관한 역할적 정보 포함
- 분석기간: 2006년~2014년
- 대상: 0~17세

• 분석내용:

- 손상을 및 사망률
- 성, 연령별, 지역별, 기전별 손상을
- 발생장소 및 시간별

23/40

아동손상 발생규모

• 아동손상 발생규모

- 10만명당 751명 (2014년)
- 연령대별 ('06년~'14년 전체):
 - 13~17세: 38.2%
 - 6~12세: 31.5%
 - 1~5세: 27.6%
 - 0세: 2.6%

- **중고 청소년**의 발생률이 아동 및 영유아보다 높음
- **초등연령대**는 2번째로 손상이 높음

24/40

아동손상률과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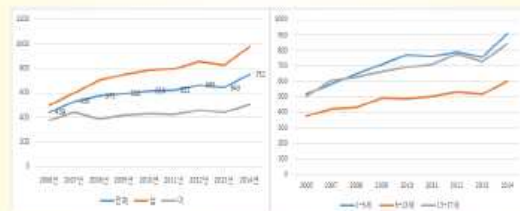
-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0~14세 기준)
 - '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급감**
- **손상률** (인구 10만명당 0~17세 기준)
 - '06년 439명에서 2014년 751명으로 **급증**



25/40

성 및 연령대별 아동손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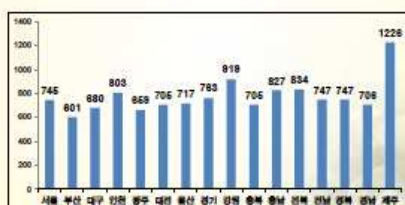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아**의 손상률이 여아보다 높음
 - 남녀 차이가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손상률이 증가**
 - **1~5세와 13~17세**의 손상률과 증가율이 높음



26/40

지역별 아동손상건수

- **지역별로는,**
 - **제주**가 가장 많았음
 - 제주의 경우는 민간구급대가 없이 **공공구급대**가 이송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추정됨
 - 그 다음은 강원, 전북, 충남, 인천의 순임.



27/40

기전별 아동손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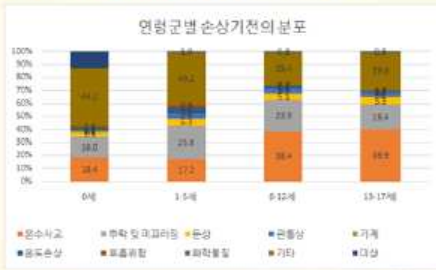
- **가장 발생건수가 많은 기전은 운수사고임**
 - 그 다음은 **추락, 보행자 손상**임
 - 12년간 운수사고, 추락 모두 증가함
 - 보행자 사고는 비슷한 추이를 보임



28/40

연령대별 아동손상기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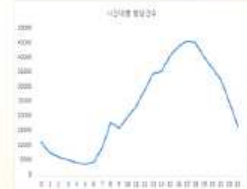
- 운수사고의 비중이 **연령상승**에 따라 높아짐
- 추락은 **1세~5세** 사이가 가장 많음.



29/40

아동손상 발생장소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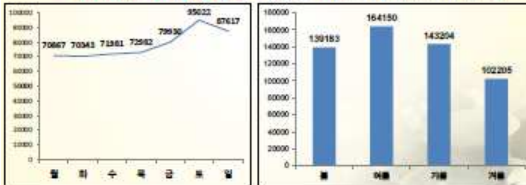
- 발생장소는 **집, 주택가**가 가장 많고,
- 그 다음이 도로 및 교통지역임. 학교도 상당수
- 시간대별로는 17시부터 증가하다가 18시에 정점을 이룸
- 그 이후에는 감소
- 즉 **방과후 시간대**의 사고율이 가장 많음



30/40

요일 및 계절별 아동손상률

- 손상은 **주말에 (토, 일)** 많이 발생
- 화요일에 최저
- 계절별로는 **여름 > 가을의 순**
- 외부 및 야외활동을 활발히 하는 계절에 더 발생



31/40

정책과제

정책과제



32/40

정책과제

• 대상별 차별화 전략

- **연령 및 성별 차별화 정책**
 -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한 안전행동 강화
 - 영유아는 화상, 익수/질식, 추락 등에 고위험 집단인 바, 적극적인 **부모 교육**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 안전교육 실시
 - **고학년 남자아동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
 -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집단임. 특히 **남자 중학생**
 - 이들을 위해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고학년 여자 아동의 자살 예방**
 - 자해 자살에 취약
 -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34/40

정책과제

- 기전별 차별화 전략

- **통학자랑 감시감독 강화**
 - 통학자랑 운영을 **신고제**로 전환 필요
 -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통학자랑 **지침** 필요
 - » 고려 사항: 학령기 아동은 **보행시 교통사고** 피해가 많음
- **자전거 안전행동 준수 강화**
 - 헬멧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 강화
- **화상특화 예방전략 마련**
 - 유아기 아동에게 추위증과 손상이 큼
 - **특화된 예방전략** 필요
- **추락, 낙상 연구 강화**
 - 질병부담이 큰 요인임(전체의 70%)
 - 대부분 **저연령** 아동에게 발생
 - 연구를 통해서 **예방전략**을 마련 필요
 - » 추락유형, 사고장소의 건축적 요인 등 **사고원인 데이터** 필요

35/40

정책과제

- 지역별 차별화 전략

- 안전다발 **지자체**의 안전개입 강화
 - **여가, 휴가 지역**이 아동안전에 취약함
 - » 여가시설의 안전설비 점검과 물놀이, 레저활동 등의 운영기준 강화필요
 - » **실질적인 감시와 강제** 확대
 - » **안전요원 추가 배치**
 - » 응급인력과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의 우수사례 공유**
 -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지역의 환경 및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지역에 적용

36/40

정책과제 - 지역별 차별화 전략(계속)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안전 인지도 제고 - 아동에게 위협할 수 있는 가정내 환경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홍보 - 부모·양육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 • 학교내 안전환경 정비 - 학교시설 정비, 체육 및 놀이 활동에 대한 안전지침 마련 - 아동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교사교육 확대 • 키즈카페 안전도 제고 전략 마련 -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무료 진단 실시 - 키즈카페 안전기준 마련과 미이행시 처벌사항을 강화 37/40	정책과제 • 안전인프라 구축 - 아동손상예방을 위한 Control Tower 구축 • 아동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16개이고, 관련기관은 40여개임 - 정책 연계와 실행력이 필요한 경우, 유기적 협력이 어려움 - 아동안전 및 손상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 필요 ◦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보전과 복지를 포괄하므로 적절 • 아동손상 감시 체계 및 손상데이터 구축 및 관리 - 지역사회 기반 아동안전 및 손상체계 강화 ◦ 통계생산 ▪ 아동안전사고의 원인, 구체적 사고부위, 아동의 생활 장소별 손상여부, 치료결과, 환경적 위험요인 등 ▪ 각 데이터 간 호환성 제고 - 아동손상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 확보 38/40
정책과제 • 안전문화 정착 - 아동안전교육 강화 • 소집단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 집체교육을 지양하고 효과성 있는 소집단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 (예: 영국 왕립사고안전기구: LASER - Learning about Safety by Experiencing Risks) - 체험장 교육 주제를 사망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 • 아동 및 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안전사고시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아동의 체육활동 강화 - 부모의 응급대처능력 제고 •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모니터링 - 안전교육 대상 확대: 자동차, 철도, 선박, 비행기 등 - 안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9/40	정책과제 • 안전문화 정착 (계속) - 국민의 안전의식제고 및 홍보 • 국민의 안전인식도 제고 및 안전행동실천 강화 - 안전불감증에 대한 각성 필요 - 국민의 안전행동을 제고 필요 ◦ 미준수시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 아동안전주간 설치 및 홍보 - 아동안전주간 설치 - SOS 국민안심서비스, 초동생 대상 U-안심서비스 홍보 • 아동안전예산 확충 - 아동손상예산: 5억 ◦ 실효성 있는 아동안전전략 마련을 위해 손상예방 확충 필요 40/40

2. 제2차 세미나 결과(실무자)

1) 세미나 내용 전문

발표: 김병준(커뮤니티매핑과 거버넌스)

이석환(국민대학교):

김병준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관기관들이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커뮤니티매핑이라는 것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학생 300여명이 성북구 주변을 위험한 지역, 취약 지역 교통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매핑했습니다. 매핑이라 함은 스마트폰에 어플을 이용해 현장을 찍고 올리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일단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동원해 매핑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성북구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북구에서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찌 보면 제 2의 구민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이 행동을 먼저 주도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직접 참여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지역이 어디고,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를 위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사례로 전파하고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 세 분께서 오셨고, 학생도 나왔는데 일단 커뮤니티매핑을 직접 참여했던 학생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김태영 학생은 이 매핑 활동을 학교에서 시작했고, 열정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매핑을 하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입니다. 실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영(국민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김태영 입니다. 저는 커뮤니티매핑 여러 활동들을 많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은 커뮤니티매핑 참여자와 해결해주는 주체의 가치통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집단지성이라는 참여가치에서 일단 참여자 간의 가치가 통합되지 않아서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먼저 들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이 많이 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통행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매핑의 본 가치도 이해하지 못한 채 활동을 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러 직접 나가고 ‘이 데이터를 왜 수집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무분별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졌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점은 가치공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차적으로는 집단지성의 가치, 2차적으로는 수집자와 해결해주는 자들의 가치가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저희가 커뮤니티매핑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걸러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매핑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매핑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북구 지역의 안전유해시설만을 갖고 하고 있지만, 매학기 장애인 접근 시설에 대한 매핑을 매학기 누적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식당, 화장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보면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장애물만 있어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만 매핑해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핑은 단순히 한 부분을 찍어 올리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경우에 따라 경사로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경사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사로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그 약국 문을 들어섰을 때 또는 카페 문을 들어섰을 때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전문이기 때문에 일단 턱까지는 올라가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로 스타벅스에 들어가 보면 경사로를 타고 올라갈 공간은 마련되어있는데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와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매핑을 하다보면, 얼마

나 우리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시스템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로를 만들어놓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매핑을 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매핑 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이 지역이 19급 지역인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인가에 대해 매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면 아이들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다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들 등을 알게 되고 지역주민, 학생들이 그런 시각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북소방서에서 오늘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안되서 저한테 메모를 적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북소방서에 관리하는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27개소이고요, 이 중에서 초등학교와 인접해있는 대표적인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4개의 지역을 저에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 장소는 성북소방서에서 판단하는 장소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내에서 기관이 파악하는 문제와 실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문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갭을 우리가 메꾸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일단 뭐 나중에 저희가 진행한 커뮤니티매핑 데이터를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까만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한 분씩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윤희(학부모):

제가 사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와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요. 우선 저는 강북구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수고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시설이나 유해업소에 대해 찍어서 올린다. 그 문제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박미현(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위험하고 안 위험한 지역, 시설들을 표시하면 아이들이 그 곳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 곳에 못 가게 하면

‘아 여기 왜 못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등 안 좋은 면들도 있을 것 같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어딜 가서 이런 걸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해요. 아이들이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저 반대편에 있는 차량을 못보고 건너는 경우도 많고 차도 아이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본 것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핑을 한다고 해서 바뀔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른 학부모님들은 불법 주정차라든지 학원 차량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바로 데려가니까 덜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법주정차가 어떻게까지 되는지, 이건 불법주정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커뮤니티매핑활동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아 이런 것이 위험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자신들이 일을 맡게 되고 변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저는 와 닿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그 학교가 속한 지역이 바뀌는 데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세현(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앞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등교할 때 학부형들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로 많이 데려다주시거든요. 자신은 잠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내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측에서는 계속 제지를 하고 있지만, 잠깐이라는 그 편리함을 위해 자신의 아이들의 안전함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녹색 어머니 활동이라던가 오후에 청소년 유해시설들을 순찰하는 조직들을 순찰 조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사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노인 봉사자분들이나 노인들의 일자리 구축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 조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문제되는 점은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데, 등굣길에도 하교길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하거나 개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감사합니다. 방금 학부모님들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분명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송덕초에서 수년 전에 커뮤니티 매핑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른들의 눈에는 안보이지만 외판 골목에 리어카가 하나 세워져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형들이 뺑 뜯기는 것을 내가 봤다. 이곳은 위험하다.’ 고 매핑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을 성북구가 보고 개선해야하는 점입니다. before/after를 비교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 고 매핑을 올린 장소에 대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매핑되고 있는 쪽에 대해 성북구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이 반응하면서 꾸준히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before after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 지역이 계속 위험한 지역으로 매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지금 공공데이터플랫폼이라 하는 것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매핑했던 데이터들이 올라가있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성북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병준(국민대학교):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니깐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사람들의 행동은 스마트폰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말씀하셨던 인식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까지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아주 시작단계입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봤을 때 울산초등학교에서 2016, 2018년도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곳과 차이점이 있다면 관내 대학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까 학생이 발표했던 것 처럼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고 가치에 대한 공감의 필요한데, 대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효과(시민참여활동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대학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축적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활용되면서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일회적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러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일단 국민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facility가 되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매핑을 나가게 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기초를 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관내 초등학교 3개가 참여하기로 결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매핑 서포터즈(국민대학생)들이 같이 나가서 지역을 다니면서 매핑을 도와주고, 매핑이 끝나고 나면 구글 지도상에 올라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부모, 선생님, 지역의 마을공동체 분들이 공동체 형식으로 문제를 합의하게 되고, 매핑결과 이쪽 지역이 가장 문제였더라는 합의를 보게 되고 그 것을 어디에 건의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경우에 대해 성북구가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성북구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단위로 매핑결과를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오늘 나와 계신 바로 이 모습처럼 관한 경찰서 소방서 학부모 선생님 등 이분들이 모여서 문제를 건의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이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핑 결과에 대해 회의를 하자고 하자면, 오늘은 시간을 내셔서 어렵게 다 나와주셨지만 누군가 강제로 하지 않는 한 다들 바쁜 와중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율해서 잘 엮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가장 경험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마을공동체에 계시는 고정남 선생님께서 한 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남(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떠오르는 했는데요. 지속가능성은 일단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치와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전체 관내 29개의 학교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성북교육청과도 join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청 내의 학교들을 행정적으로 움직이기는 쉽거든요.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조직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이미 녹색어머니들과 같은 조직이 있지만 학교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담당이라고 해서 아동쪽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그런 기관들과 조금 더 확장하고 회의도 지속적으로 물론 바쁘고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 이 가치가 있는 일을 공유해 나가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큰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환기하고, 지속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이 구조가 너무 거대해지면 권역별로 나눠 회의하고, 분기별로 함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나’ 말고 ‘우리’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보자 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이 마을활동가들이 각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꺼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이런 조직이 확산 될 예정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망도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안에 일곱 개의 복지관들이 있는데 시각하고 장애인은 성북구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정릉1,2,3,4등 성북동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복지관과 협력하는 것도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을 알리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지역에서 모아서 CCTV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써주었으면 좋겠습시다라고 나라에 직접 제안하는 거예요. 선정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해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동이나 거점 기관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가치공유가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힘들긴 하지만 꼭 해야하고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을공동체가 운영되면 그 자리에는 이런 분들(소방서 경찰서 등)이 나와계시는가요?

고경남(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상황마다 다르기는 해요. 요청을 했을 때 오시는 편입니다.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요청을 하시면 나오십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우리가 생각했던 장애 요인들은 가치가 공유되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이 자리에 경찰서에서 세 분이 나와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매핑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 불법주차, 19금 유해지역, 신호등이나 가로등 고장난 것 등을 매핑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는 경찰서 소관인 것 같은데 신호등이 고장나서 고치는 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성북구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임우섭(성북구청):

경찰서입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아 그렇군요.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김시몬(종암경찰서):

저는 생활안전계에서 CCTV나 유해시설 등에 대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구청이라 생각했는데, 또 이것이 경찰서 소관이네요. 저희는 범죄발생 통계라든지 112 신고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외부유출이 안되게 되어있어요. 집값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또한 작년 8월부터 탄력순찰, 순찰신문고라는 것을 운영 중인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도에 장소를 찍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순찰을 해달라 요청하면, 실제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 뒤 순찰 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 112 신고 다발지는 70~80%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용한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발생장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발생장소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곳을 탄력적으로 순찰하고, 주민이 요청하는 곳은 불안감이 많은 곳이기에 순찰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동안전지도와 같은 것을 각 초등학교 별로 요청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순찰하고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행을 더 하시면 세부적으로 주무 부서들에게 연락하시면 더 많은 자

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순찰시스템에 대해 요청하면 순찰을 최대한 나가는 것인가요? 겹치면 못하지만. 그런 제도들도 연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매핑이 되고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정보를 경찰서, 성북구, 국민대 등이 공유하는 제도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북구가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제도들을 연계시켜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연(종암경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 청소년을 담당하는 원정연입니다. 저희도 범위가 크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매핑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안전지킴이 집’ 라고 학교 앞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문방구, 슈퍼 등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지킴이 어르신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땡벌’ 이라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장소를 말하는 청소년 은어입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순찰관이랑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을 구글 맵에 표시해서 그쪽 방향을 순찰해나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가 잘 되면 이런 제도를 여러 커뮤니티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태준(성북경찰서):

저는 원정연 팀장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집, 지킴이 제도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 경찰서에 생각하는 것과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 마을활동가, 학생들, 성북구청 등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중에 보면 매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북구 전체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누가 인터넷이 될 줄 알았고, 부가적 기능들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작은 비록 이렇지만 정기적으로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면 나중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필요한 것에 대해 많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시스템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안전을

위한 사이트를 우리가 개설해도 좋을 것 같고, 경찰서에서 모은 데이터 플랫폼들도 게시하면 종합선물세트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역주민들은 필요할 때 데이터를 올리고 사용할텐데, 커뮤니티 매핑이란 정기적으로 활동해서 데이터를 관리해나간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매핑에서 활동하지 않은 정보라도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현상(국민대학교):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을 들으려고 사실 왔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부탁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공유해야합니다. 김태영 학생이 말한 것처럼 매핑을 하는 사람들, 해결하는 사람들 가치공유가 안되고, 다들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다 따로 놓고 있고. 일단 거버넌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봐야합니다. 방점이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방점들이 명확하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진행하는 중에 과제 프로젝트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경찰, 학부모, 구청 등에서 생각하는 것과 방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저도 4년째 매학기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매핑을 하지만, 이 매핑을 하면서 왜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학부모들도 바쁘고 기관도 바쁘고. 기관입장에서는 하나의 업무가 느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일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주변에 함께 가는 사람들 인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참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것까지 모두 논의하기엔 성급하지만, 소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찰 소방은 대응 단계(사후적)에서 학부모님들은 예비와 사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융합하면 아주 훌륭한 모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여 수준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겠다.’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다보면 필요성이 커지고 중요해짐에따라 역할의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잡으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할만한 이

유가 있지않으면 참여수준에 대해 거부감이 클 것입니다.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구조화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회의 매뉴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아동이다보니깐 교육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생활안전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것인지, 아동만 놓고 볼 것인지. 아동안전에서 아동만 놓고 접근한다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나면 지역사회에 대한 연결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 예산제를 활용하려면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주민자치회가 빠져있으면 그 분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그 관련된 대표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있다면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성북구 전체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엔 쉽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동단위에서 각각 거버넌스 체계를 있고 성북구는 그 다음 단위,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나라에서 행정자치가 동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가 도입되면 동단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면을 같이 생각해서 접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걸 하면서 아동이 참여해야할 것 같잖아요. 아동이 매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매핑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아동이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처방적으로 아동은 대상으로 놓고 나머지를 해주겠다는 접근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무언가를 활용할 때 안전하게 활용하게하는 방법을 배우게하고, 위험한 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느끼게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당연히 아동이 매핑의 주체입니다. 부모와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성북구에서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지역의 마을활동가분들이 들어가 계실거예요. 저희가 사실 시범적으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핑을 하고 그 영역과 관련된 공동체를 구성해 드릴텐데 이 3개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활동하는 공동체의 대표들을 그 위원으로 위촉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하는 것, 이것은 어른들의 리그가 아니거든요. 기존 주민참여라는 것이 성장한 성인들의 참여만을 갖고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아동거버넌스라는 아동에 강점들 두고 있다면 이에는 교육적 가치를 포괄하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회의 하는데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그 것도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매핑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회의를 하게 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의 회의 결과를 지역 자치 위원회에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개개인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집단지성이라는 힘이 작동하면 내가 올린 정보에 의해 세상이 바뀔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커뮤니티 매핑이 대학가는 데도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매핑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매핑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합니다. 6시간의 봉사활동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스펙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매핑을 시킵니다. 그 활동을 가지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북구에서도 마케팅, 홍보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전한 시민 육성의 중요한 방안으로.

임우섭(성북구청):

저희가 아동안전거버넌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저희의 목표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는 목표로 작년에 국민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400여가지의 시설들을 조사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올해 말까지 이를 모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학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6400여가지의 학교주변 시설들에 대해 올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주제는 아동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관참여와 역할 및 협력증대입니다. 아까 하현상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성북구 입장에서는 올해 국민대에서 연구를 한 후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면 그를 근거로 해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후에 각 기관간 공유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CCTV 설치하고 청소년 유해시설을 없애는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했다는 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하면 일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적부담이 있더라 하더라도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올해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를 공유하게 된다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뉴얼이 작성되어야할 것 같고요, 이 메뉴얼을 통해 각 기관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이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는데, 그 시스템은 올 해 말에 구축될 것입니다.

김기현(인재개발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은 사실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시스템은 많았습니다. 어쩌면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업무, 일을 각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공유가 된다면 일년에 한 번 정도 공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업무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부담감과 어려움은 활동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의 분들이 가치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제안점이 비슷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로 불법주정차의 경우 여기는 주정차라는 표시만 있습니다. 만약 그 곳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주정차를 하는 순간 ‘여기는 일 분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생각해본 것은 바코드를 찍어보면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주차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각들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담당자들입니다. ‘그래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물리적인 도구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엄청 많은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든 고민하지만, 가치에 대해 방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치적 관점으로 잘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양형우(국민대학교):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살짝 아는 상태에서 이곳에 오긴 했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각 부처에서도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자료를 구축해놓아도 사람들이 이 자료를 찾는 과정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어플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동에도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만을 위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어플로 아예 형성되어있어서, 신림동 집값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어플 하나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료들, 보수가 필요한 신호등, 불법주정차 데이터 등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임은숙(성북구청):

일단 저도 두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북 공공데이터플랫폼이라고 포털에 검색하면, 일단 이 플랫폼 자체는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이 서버는 작년 초에 오픈이 되어,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내용들, 통계들 등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아동안전에 대해 작년에 모아놓은 데이터에 대해 어플을 오픈하면서 유해시설이 플랫폼안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엄마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지나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내용을 전부 다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업무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하고 해결된 내용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어플을 만들 것입니다. 어플 오픈이 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할 것이고, 커뮤니티 매핑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매핑 데이터를 개최할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석환(국민대학교):

방금 말씀들으면서 제가 한 번 검색해봤는데, 성북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매핑데이라는 이름으로 2-300명이 서울 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대학에 시민사회와 정치 시민사회와 법, 개인과 사회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교과목들에게 학생들의 커뮤니티매핑활동을 의무적으로 평가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매학기 3-400명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매핑을 해야합니다. 강의평가 안좋은 이유가

있어요.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커뮤니티 매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대중 개념과 중요한 점 정도만 말하거든요. 학생들은 이를 평가를 받기위한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따라서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꾸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갖고있습니다. 매핑에서 ‘경사로를 찍어라.’ 하면 정말 경사로만 찍어놓는 활동은 무의미합니다. 경사가가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부분을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과정을 유도하려고 매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청에서 커뮤니티매핑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장애인 화장실 문 안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고. 그리고 안산시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게 3층에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전혀 배려가되지 않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머리로만 행정을 하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먼저 움직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라는 가치로 저희가 한 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세미나 사진



발표 모습



세미나 진행



토론 모습



토론 모습

2) 발표자료

(1) 김병준(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아동안전 거버넌스 형성방안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아동안전 커뮤니티매핑

제2차 세미나

2018.09.14.

국립대학교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1>> 커뮤니티매핑

Community Mapping(커뮤니티매핑)

Community : 커뮤니티 + [Participation] : 참여(소통) + Map : 지도 + -ing : 만들기

커뮤니티매핑의 장점

-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의 유용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비폭력적인 효과
- 높은 접근성을 통해 일반시민의 활동 공공성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버넌스 구축 효과
- 참여 플랫폼으로, 정부/기관에 해결되지 못하는 공공문제 시민자치를 주민의 참여로 해소

교육 (Education)
 효율성 (Efficiency)
 참여 (Engagement)
 효과 (Effectiveness)
 역량강화 (Empowerment)
 평등 (Equity)

기대효과(6E)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1>> 매핑 사례 개요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0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57개와 초등학교 경운 기준 반경 300m의 구역; 2017년 5월 11일(목)~15일(월) 5일간 182명 107개소(1~4인), 6401건 매핑 데이터

매핑 범위는 매핑 전문가와 FGI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4월 20일(목), 4학년 1개 반 & 5학년 1개 반)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초·중·고교]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와 시설은 무엇/어디인가요? 그 장소가 위험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관식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1>> 분석 개요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3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5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6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7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8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1.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2.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3.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4.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5.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6.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8.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99.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100.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257개와 초등학교 경운 기준 반경 300m의 구역; 2017년 5월 11일(목)~15일(월) 5일간 182명 107개소(1~4인), 6401건 매핑 데이터

매핑 범위는 매핑 전문가와 FGI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4월 20일(목), 4학년 1개 반 & 5학년 1개 반)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초·중·고교]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와 시설은 무엇/어디인가요? 그 장소가 위험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관식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2>> 범례별 분석

① 교통안전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② 청소년유해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③ CCTV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④ 불법주정차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2>> 범례별 분석

① 교통안전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② 청소년유해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③ CCTV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④ 불법주정차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2>> 범례별 분석

① CCTV

② 청소년유해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③ CCTV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④ 불법주정차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01 서론	02 사례 개요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	----------	--------------	-------

03>> 학교별 분석

1. 교통안전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2. 청소년유해시설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3. CCTV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4. 불법주정차 범례

출입로, 교차로,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01 사례 | 02 사례 개요 | 03 데이터 분석 결과 | 04 결론

01)>> 분석 요약

- 주거 형태별 특징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청소년 유행시설'과 '19금 환경'이 적었고, 단독주택 및 빌라(다세대, 연립) 밀집 지역은 '불법주거장', '청소년 유행시설', '19금 환경', 'CCTV가 아파트 밀집 지역보다 많이 매칭 되었다는 경향이 있었음.
- 이를 29개(공립 24개고 사립 5개고) 초등학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교별로 아동 위험 요소를 정리했으며, 소결을 통해 이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제시하였음(세부 사항은 최종보고서 참고).
-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성북' 슬로건에 걸맞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과 관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부분에서 아동안전 제고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함 (일례로, 가장 많이 매칭 된 불법주정차 문제와 같은 경우는 수 년 간 끊임없이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임.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요원의 부족, 경찰서와의 협업 부족 등의 이유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협업모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발제

"학교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업무의 부담이 큼니다.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모두 한성이지만, 행정적 부담이 있다면 하기 힘들습니다." (△ 초등학교 안전담당관)

-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사례 1: 울산 동평초등학교

학교: 울산광역시 동평초등학교 |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동평로 123 | 연락처: 052-1234567

1.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및 차량 통행이 잦음.

2. 주요 문제: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함.

3. 해결 방안: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와의 협업을 강화함.

4.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됨.

사례 2: 울산초등학교

학교: 울산광역시 울산초등학교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로 456 | 연락처: 052-7654321

1.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및 차량 통행이 잦음.

2. 주요 문제: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함.

3. 해결 방안: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와의 협업을 강화함.

4.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됨.

시사점과 교훈

- 지역의 필요를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문제에서 시작해서 해결책을 찾는 '살아있는 실험' 접근이 필요하다
- 다양한 축정을 통해 DATA를 축적하고 이를 OPEN 한다
- 시민과 공유(Share)한다
-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라
- 긴 호흡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보자
- 플랫폼을 만들라 (Community Building Platform)
- **지속 가능한 시민-기업-정부 협력체를 스스로 만들라**
- 아래로부터 변화와 실행을 강조하는 협력체를 만들라
- 기술중심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사합니다.

3. 매핑 참여자 소감

1) 장위초등학교

연번	이름	활동 후 소감
1	임재영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재미있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위험시설을 사진 찍는 활동을 하니 더 재미있었다.
2	오준석	학교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학교 안에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선생님들이 좋았다.
3	강동원	우리 동네에 위험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4	김서영	지루하고, 힘들고, 다리가 아팠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5	김서현	위험한 시설이 있었다.
6	권은찬	우리 동네에는 위험한 곳이 많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좋았다.
7	이승민	우리 동네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학교에 고쳐야할 것이 많았다. 문제점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8	김은선	학교와 학교 주변에 위험한 것들, 장소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에 쉽게 할 수 있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9	최사랑	우리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돌아다니며 직접 내 손으로 그런 곳을 고쳐나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다른 나라도 바꿔봐야겠다.
10	국채린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서 좋았다. 선생님께서 친절하셔서 좋았다. 공무를 안해서 좋았다.
11		재미있었고 공부를 안 해서 기분이 좋았다.
12	김태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안전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13	가은	돌아다니면서 추웠지만 우리 동네의 위험한 곳을 더 알 수 있었다. 재미있었기도 했고, 걸어 다니면서 아팠기도 했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니 더욱 재미있었다.
14	승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있었는지 몰랐다.
15	김준수	우리 동네의 위험한 것을 알았고 재미있었다.
16	한제희	겨울이라 손이 너무 시럽고 추웠지만, 내가 몰랐던 우리 동네의 숨겨진 곳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배가 고팠지만 참고 돌아다니니 우리 동네의 좋은 풍경이 보여 좋았다.
17	대환	우리 동네에 위험한 장소를 찾아내서 다른 사람이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좋았다.
18	김은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위험한 거리 같은 곳을 찍어서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돈암초등학교

연번	느낀점
1	수업안하고 돌아다니면서 좋았고, 찍는 것도 재미있었다. 도, 우리학교 근처에 위험한 곳도 찾아서 좋았다.
2	추웠지만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 알고 학교 주변에 시설물들이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다. 안전을 위해 노력하니 뿌듯했다.
3	동네 한바퀴를 돌고 공부도 안하고 학교를 나가서 정말 좋고 나중에는 더 많이 나가고 싶다
4	오늘처럼 돌아다니면서 알게된 점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다니던 길이 오늘은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등 개선될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5	재미있었다!!
6	1~4교시까지 학교를 탈출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다.
7	오늘 대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학교주변에 위험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렸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잘 고쳐주신다고 하셔서 학교 주변이 안전해 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것 같다. 우리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8	엄청 재미있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9	재미있고, 행복함
10	같이 체험해서 재미있고 좋았다. 우리동네를 돌아다니보니, 위험한 것이 없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었다.
11	친구들과 같이 놀아서 재미있었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
12	우리학교 주변에는 위험한 곳이 많이 없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험한 곳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13	커뮤니티 매핑을 배웠다. 계속 걸으면서 찍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만들어서 뿌듯하였다.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14	나는 위험한 것이 많을 줄 알았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거의 없었고, 돈암초 300m안에는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15	너무 재미있다. 추억이 된다. 또 하고 싶다.
16	수업은 좋았다. 개선될 점은 없을 것 같다.
17	커뮤니티 매핑을 배웠다. 우리 동네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18	놀이터가 재미있었다. 자유로워서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여기가 어느 곳이었는지 알았다.
19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좋았다. 우리학교에 그렇게 위험한게 많다는 걸 신경쓰지 않았는데 막상 찾아보니 너무 많아서 당황했다. 수업을 안해서 짜릿했다.
20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이 더 생겨서 불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1	우리지역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 주소 찾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22	재미있고, 착한쌤이랑 수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위험한 것을 찍고 그러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오시면 좋겠다.
23	다음에도 하고 싶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

3) 정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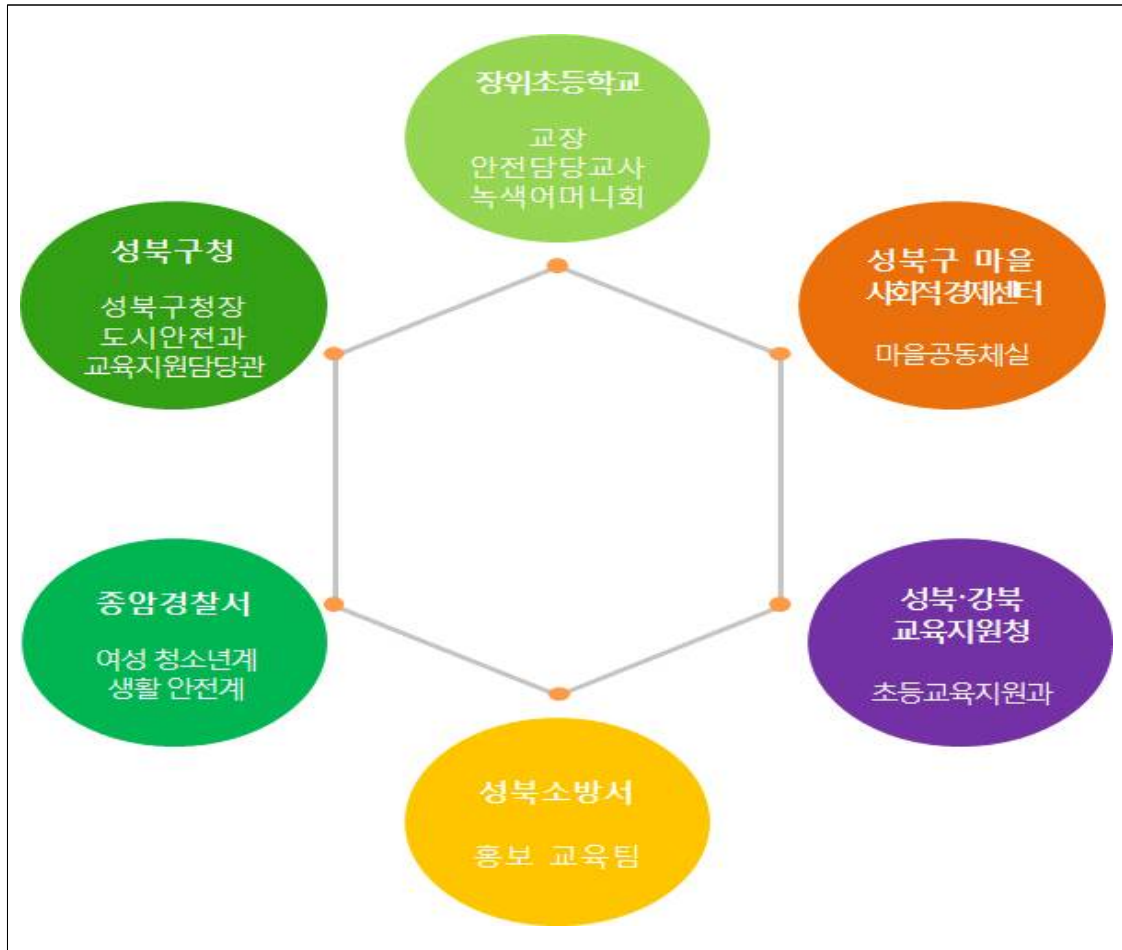
연번	느낀점
1	힘들고, 추웠지만 우리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2	선생님들이 재미있었다
3	찾음 문제점들이 얼른 개선되면 좋겠다
4	힘들었지만 의미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냥 지나쳤는데 새롭게 우리 학교 주변을 볼 수 있었고, 나를 위한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더 의미있고 열심히 했다
5	재미있었지만 힘들었다. 새로웠지만 힘들었다
6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 주변 동네를 돌아보는 것도 꽤 재미있었다. 앞으로 평소에 잘 몰랐던 우리 동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7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
8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깜짝 놀랐고 나라도 쓰레기를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9	재미있게 활동을 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10	주변에 쓰레기가 많았다. CCTV도 많았다
11	추웠지만 봉사활동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해줬다
12	추웠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뿌듯했다
13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새로웠다
14	춥고 걷기 힘들었지만 이 지도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보람찼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
15	재미있었고 우리 주변 지역에 이렇게 위험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닐 때 조심해야겠다
16	학교 주변에 있는 모르는 시설들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다. 밖에 나가서 행복했고 흥분되었다
17	힘들었지만 새롭고 좋았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
18	성북구의 나쁜점과 좋은점을 알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19	추웠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재미있었고, 내가 몰랐던 안전표지판들과 안전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곳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잘 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20	밖에 나가서 정말 좋았다. 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21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 많았다

4) 석관초등학교

연번	이름	의견
1	김엘리아	나는18개나 했음. 하는것도 많이 재미있고 이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이지민	불법주정차가 정말 많아서 놀랐다. 그리고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 시설도 많아서 놀랐다. 그리고 칠판에 적힌 것 처럼 먼저 온게 아니라 가장 많이 한 조가 최고니까 만족한다. 우리조 되게 많이 찾았다. 그리고 활동하는 내내 김태영쌤이 재밌고 활발하게 활동하게끔 이끌어주셔서 좋았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되게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3	이성구	불법주장차로만 거의 다 잡은 것 같다. 12개를 잡고 에이스 엘리야는 18개나 해서 우리 모듬이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했으니 만족! 우리동네에 법을 어길 것이 많은 것 같다.
4	방선우	오늘 나의 소감은 일단 재미있었다. 평소 내가 다니면서 무서운 곳도 가보고 공포스러운 곳도 많이 다녀왔다.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좋았고 재미있는 경험, 내가 엄청난 일을 하였다는게 정말 자랑스러웠다.
5	최유준	오늘 수업시간을 빼먹고 동네를 돌면서 위험한 곳을 찍었는데, 우리동네에 위험한 곳이 많은 것 같다.
6	고은수	오늘 수업시간에 밖에 나가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 움직여서 좋았다.
7	-	이 활동을 하고나서 이제는 집 앞이 캄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았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하고 이 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다. 또 하면 좋겠다.
8	김태윤	오늘은 세계최고로 재미있는 날이었다. 임동환 선생님이 우리반 정아준 선생님보다 잘생기셨다. 그리고 너무 착하시다
9	박하윤	오늘 이 활동을 통해 학교주변이 바뀌져 있기를 기대하고 이런 활동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몰랐던 문제점들 알고 있는 문제점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게 좋았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10	전병주	생각보다 돌아다닌 곳에 위험한 것이나 유해한 것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도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11	김건우	오늘 선생님과 학교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시설을 보아서 학교주위에 위험한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선생님과 이야기 하면서 다녀서 재미있고 좋았다.
12	한상민	수업시간인데 돌아다녀서 좋았다. 조금더 하고 싶다.
13	김유은	우리동네는안전하다.쓰레기가많다.선생님이재미있다.
14	강지현	자세하게 학교 근처를 봐보니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놀랐다. 그리고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뿌듯한 느낌도 들었다.

4.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1) 성북구 아동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조직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장위초등학교 안전담당교사	정수진	02-942-1772
종암경찰서 생활안전계	김시몬 순경	02-3396-7520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	김홍창 팀장	02-925-2911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대표번호	02-927-9501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윤경호	02-2241-3614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이희진 장학사	02-944-9314
국민대학교 북악인성센터	김기현 과장	02-910-6343

2)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 협의체 및 아동안전 유관기관 연락망

○ 아동안전 유관기관 연락망

소속	담당자	연락처	주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 안전지도자 중앙회	대표번호	02-843-86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0길 45 광신빌딩 2층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	02-920-1346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돈암 119안전센터	대표번호	02-924-0119	서울 성북구 보문로 192 돈암119안전센터
성북보건소	대표번호	02-2241-1749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하월곡동)
성북강북Wee센터	대표번호	02-917-7887	서울 성북구 종암로 208 별관 성북강북교육지원센 터 3층

*성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동마을안전협의회 등의 단체는 유관기관 연락망에서 제외함

○ 성북구의 아동안전거버넌스 협의체 외, 아동안전 거버넌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함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996년 창립한 시민단체로,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어머니 안전지도자중앙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안전학교 등의 산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성북경찰서는 종암경찰서와 함께 성북구 내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 확산 시 참여해야할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돈암119안전센터는 성북소방서와 함께 성북구 내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북구 아동안전거버넌스 확산 시 참여해야할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성북보건소는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보건교육, 방문보건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아동안전 거버넌스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성북강북Wee센터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임. 아동안전의 방향에 따라 거버넌스 협의체에 참여해야할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5.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내용

1) 1차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이석환 :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언제 다시 거버넌스 협의체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전에 이 다음 협의체 운용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차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가 성북구에 존재하는 한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우섭 : 작년부터 진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 오늘 진행은 제가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분씩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환 :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2년을 넘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표방하면서, 국민대 학생들이 비교과 과목으로 커뮤니티 맵핑이라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300~4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커뮤니티 맵핑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누적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실제 등하교 과정에서 맵핑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고 이 프로젝트가 새롭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북구에서는 이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어플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이 잘 구축되면 구청장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이를 1순위의 민원으로 처리하고 고려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학교, 경찰서, 구청 등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역사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해결방안들이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 일종의 템플릿(체계)을 구축해보고자 하었는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여러 안건도 제안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후에도 이 과정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희 :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장학사

님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사실 장위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의 무당집 등을 피해 다니도록 자녀들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학교 주변에 다량의 휴지 등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사례로 학교 자체적으로 휴지 등이 자주 버려지는 장소에 팻말을 다는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노력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 간의 협력으로 보다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듯합니다.

박명희 : 저희 소방서는 안전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교육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음에도 소방서 자체적인 인력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어린이 안전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을 따로 교육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기관이 모여 협력하여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몬 : 경찰서의 경우에는 구청과 연계해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서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커뮤니티 맵핑과 지역사회 협의체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업무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암서 : 아동안전 지킴이를 여성·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임우섭 : 올해 말에 공공데이터 플랫폼 어플을 개발해서 오픈할 계획인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구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협조요청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주제로 한 부분에 대해 올해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각 기관이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용화되는 어플의 경우에는 오픈을 해서 성북구 주관 하여 각 기관별로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시설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할 생각이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를 어떤 기관에서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협의체

를 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임은숙 : 각 기관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의 취지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플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자면, 민원사항을 등록하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으로 공유되는 것이고, 1:1로 구청장에게 연결되어지는 민원 등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민원창구로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는 방식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맵핑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설레기도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인생 최초로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배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주변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민원접수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맵핑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접수하고 이것이 민원으로 연계되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영 : 이 학교에 6년 넘게 있었는데, 사실 이 주변은 교통안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동안전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주변 다른 학교들도 취약한 곳들이 많은데, 이런 협의체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현상 : 맵핑과 연계한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들, 관내 기관 분들이 나서주셔서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부담 가지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성북구청)가 일방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거버넌스에서는 민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정부와 기업(민간), 비정부 기관(NGO와 같은 사회적 기) 등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국정운영 관리나 행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주도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통제시

시스템을 뜻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다하고, 견해 차이를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동안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안전 지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이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위논문의 상황과) 다른 것은 기술적인 권한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은 스마트폰 이용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각자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지속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플랜의 4가지 영역 중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신영희 : 교육·홍보영역에서 학생들 연수, 학부모 참여, 가정통신문 등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어플)활용방법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보고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직 깊이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스스로 만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현장활동 영역. 최근 학부모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 중 학교 주변의 재개발 구역에 공가가 많이 생겨났는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한다는 것이 발생해서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지만 몰래 들어가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년(19년 12월)까지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위원장, 지구대, 동사무소와 자치위원회 등과 연계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시몬 : 구청 정비과랑 실제 공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공가에 구체적으로 큰 펜스가 쳐져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거주중인 집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 문이랑 유리창을 다 깨놓은 상태로 관리하지만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순찰을 돌기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종암서 : 저희도 교육·홍보 쪽으로 돕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다니다가 장애요인이나 위험요소를 적극 알리면 구청에서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홍보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교육을 다양한 계층과 장소로 가고 있어서 알리는 것은 성북구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몬 : 저희는 현장활동 영역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 발생지라든지 112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순찰지역을 잡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와 순찰지역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고 위치가 나오고 유해업체를 중점적으로 하는 현장 활동은 경찰이 맡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시설·정책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준 : 누적 데이터가 많아지면 순찰을 돌아야 할 곳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암서 : 여성·청소년과는 홍보쪽을 맡겠습니다. 2017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 사진을 찍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하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부동산이나 슈퍼에서 아동이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112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동지킴이 어르신이 하교시간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홍보쪽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 성북구청과 경찰이 연계해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을지 연구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종암서 :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담배 피는 곳은 어딘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위치를 학교 선생님과 공유합니다. 성북구청에서 경찰 데이터(구글 맵 클 데이터)를 끌어와 커뮤니티 매핑 데이터와 매칭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임우섭 : 저희는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은숙 : 어플 개발이 전부 완료되면 각 기관으로 홍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분기별로 하거나 커맵데이 같은 것을 주관하면 누가 주관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나 국민대나 주관해서 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활동은 국민대랑 성북구청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정책지원 영역에서 민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한 해결은 성북구청이 하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어플에 대한 최종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연구 및 회의 영역에서는 협의체 회의가 상시든 정시든, 회의에 참여하고 피드백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지속이 되려면 문제 발생 시 해결하도록 서로 연락처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니다.

정수진 : 아이들하고 함께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핑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범지대 중에서 장위쉼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매일 다투고 담배 피는 청소년이 있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인지 연애하러 혹은 담배피러 자주 옵니다. 아이들한테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교통 안전의 해결 방법은 여기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크게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비켜야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정말 위험해보입니다.

임우섭 : 우범지역이어서 CCTV가 필요하고, 순찰해줬음 좋겠고, 주차가 부족한.... 이런 내용들은 어플에 올리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진행 상황도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면 기관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자료 내서 확인 등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부서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플이 완성되면 시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선영 : 생활체육안전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저희 학교 ‘아마존 사업’을 통해 일방통행 길도 만들어졌고,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제 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불법주차가 다 되어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다보니 초등학교 주차장을 저녁시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단속을 좀 자주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사거리도 큰 사고가 나서야 신호등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우섭 : 그 구역은 교통흐름이 마비가 될 것 같아 신호등 설치가 미뤄졌습니다.

정선영 : 신호등이 있었으나 불이 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꾸준히 말을 했지만 바뀌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맡겼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찰서 소방시설에서 유해시설을 점검했었습니다. 매핑을 따로 더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준 : 맞습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2차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임은숙 : 아동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국민대학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수집해서 활동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는데, 간략히 성북구청에서 개발한 활동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 오픈하여 3.1부터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시면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등으로 간편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 본인 계정을 이메일을 통해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보기’와 ‘목록보기’ 등을 통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커뮤니티 맵핑 포인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 사진과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은숙 : 이 애플리케이션이 또 하나의 민원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원들을 당장 해결해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해결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커뮤니티 맵핑 데이’라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맵핑 데이에 모여주신 분들이 함께 ‘등록하기’의 기능을 통해 여러 문제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학교와 함께 장위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조사해 둔 자료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계획 중인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노란 발자국’ 등의 안전시설들을 설치할 때 여러 부처나 관계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 1차 회의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장위 초등학교 주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빈 집’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집이 가지는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맵핑을 진행해보고, 화재·범죄 등 어떠한 측면에서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사항들이 ‘현장포토’ 등의 민원창구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해결하는 과정에 활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수 있고,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은숙 : 한 가지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맵핑 자료들 중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을 목적으로

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맵핑 자료를 민원으로서 바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간단한 개인정보의 기입을 통해 ‘현장포토’라는 민원으로 연계되어 바로 민원 접수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석환 : 가칭 거버넌스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대표자가 민원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장위 초등학교에서 거버넌스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만큼, 이곳에서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요청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다른 곳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장위 초등학교의 주요한 문제로 제시되었던 또 다른 내용은 도로가 너무 좁고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장위초등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는 ‘빈 집’과 ‘도로·교통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빈 집과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어떻게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빈 집 문제를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 접근할 때 어떠한 기준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환 : 먼저 저희 연구진들이 가칭 거버넌스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는 사례로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 상 모든 단계를 말씀드릴 수 없는 만큼,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페이지의 2단계를 보시면 주요한 것으로 참여자의 역할, 우선순위, 한계점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역할들은 각각 이루어질 수 있고, 성북구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들이 거버넌스 협의체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무조건 성북구청이 해결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성북구청은 하나의 부분을 담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맵핑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북구청의 맵핑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업들에 맵핑을 평가요소로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대학교는 학생과 수업, 교육의 측면에서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한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석환 : 그리고 7페이지의 4단계를 보시면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위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소방서, 국민대학교

등에서 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은 사실 지역 주민으로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의 경우에는 장위 초등학교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에, 성북구에서도 간사의 역할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규 인원들을 주체로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임은숙 : 정기적인 회의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각 행사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석환 : 다른 이야기로 교통안전 파트는 커뮤니티 맵핑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호등 건널목, 19금 환경, 어린이 보호 표지판 여부 등의 기준들이 맵핑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맵핑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빈 집을 맵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집을 화재 발생, 범죄, 탈선, 안전시설문제 등 어떠한 측면에서 맵핑 할 것인지에 대한 고견들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주 : 거주민으로서 장위 초등학교 주변을 살펴보면 ‘빈 집’에 절대출입금지 등의 경고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이 그런 경고문과 표지판 등을 보고 오히려 더 그곳들에 출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히려 더 악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란 :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욱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들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김영주 : 그러한 경고문들이 어른들만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생들만 되더라도 빈 집이라는 표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석환 :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빈 집의 주변에 cctv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맵핑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창 : 거버넌스 협의체 시나리오를 보면 학교 등에 대한 소방서의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수행되기 어려

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24시간 동안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집 문제점의 해소 및 맵핑을 위한 논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방교육의 측면에서 시민안전과수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동태를 파악하여 소방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주변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석환 :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인건가요.

김홍창 : 서울시의 사업으로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여명을 넘어섰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PR교육, 대피교육 등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 지금 논의하는 것이 빈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맵핑할 수 있는지, 즉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지역의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도 없이 단순히 추정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다른 재개발 지역의 빈 집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지금의 장위 초등학교 상황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빈 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장위 초등학교 인근 빈 집을 맵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환 : 그런 데이터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 협의체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기준들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빈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불장난, 폭행, 성범죄, 상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주변에 CCTV가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도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등의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 탁 트여 있는 곳은 괜찮은데, 골목 같은 곳들은 빈 집들이 있으면 무섭고 사실 쓰레기들도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숙 : 장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후미진 골목,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후미진

곳에 위치한 빈 집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환 : 국민대학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거버넌스 모델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시키고,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거버넌스 협의체의 운용을 위한 분위기는 점차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참여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위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세팅을 갖추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인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은숙 : 성북구청에서는 2월 말에서 3월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는 학교를 통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동네의 주민들이신 만큼, 활동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국민대에서도 활동으로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하게 된다면, 성북구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영 : ‘빈 집’ 및 ‘도로·교통안전’ 맵핑은 국민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혹은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이석환 : 대학이 초등학교의 교육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맵핑을 수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영 : 사실 아이들은 매년 안전지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한 곳을 체크하고 적어서 크게 인쇄한 후 급식실 앞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빈 집에 관한 맵핑을 하여 전시하게 되면 아이들도 공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협조해주신다면 대학생들과 함께 장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맵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환 : 3월 1일부터는 국민대학교 인재개발원 북악인성교육센터에서 모든 커뮤니티 맵핑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 한 가지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 때문에 길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에, 저학년 아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아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일자리

의 측면에서 복지관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할머니들이 녹색어머니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보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 이러한 내용들이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성북구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숙 :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사실 위험요소들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이 참여주체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오늘로 정해진 일정이 종료되지만, 어머니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 드리겠지만 녹색어머니회 대표 등과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안전을 주관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 가칭 장위초등학교 거버넌스 협의체의 단체 연락방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도 생각합니다.

정선영 : 주요한 회의 사안이 있을 경우에 단체 연락방을 열어 논의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은숙 : 거버넌스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을 때에 운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환 : 오늘 모두 좋은 말씀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2차 아동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많은 활동들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리라 믿고, 2019년에도 분기마다 협의체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